

제**16**회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2021.09.23 - 10.05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먼저, 올해로 16주년을 맞이한 “2021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우리 아이들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예술가와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가하며 예술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페스티벌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개발하고 예술교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술은 글로만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생각의 유연함과 발산적 사고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참여형, 놀이형 학습 등을 통한 융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도 학생예술동아리 다각화, 학교예술교육 온라인 캠페인 등 체험과 실기 중심의 학생 맞춤형 예술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예술을 직접 체험하며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아름다운 꿈을 품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Hello, This is Yoo Eun-ha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celebrates its 16th anniversary this year.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people involved in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for providing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s to foster creativity and imagination.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s a place where children become closer to art by communicating with artists and participating in various activities beyond space-time constraints. I hope the festival will be an opportunity to develop students' creativity and sensitivity and expand the base of art education.

Art is difficult to teach by writing alone. In particular, children who need flexible thinking and divergent thinking need to be educated through various participatory and playful learn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will continue to expand opportunities for art activities centered on experience and practical skills, such as diversifying student art circles and online activities for school arts education.

I hope that through this festival, children can experience art in the center of the city and develop artistic sensitivity and have beautiful dreams.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ce again on the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d thank you to everyone who worked hard to hold the Festival.

Thank you.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Yoo Eun-ha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유은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오세훈입니다.

‘2021 제16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예술인 및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에 시작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역사의 현장이자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입니다.
올해도 국제교류전, 어린이 그림대회 등 새롭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준비돼 있다고 하니
‘광화문 미술여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참여형 전문 미술축제’인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교류하고
문화적 공감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술축제로 더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오 세 훈

Hello, This is Se-hoon Oh, 38th Mayor of Seoul.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21 16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rtists and officials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for their efforts to safely and successfully host this festival.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began in 2005, is a venue for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exhibitions and programs in Gwanghwamun, the site of history and the center of Seoul. This year, new and diverse online and offline programs such as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children's painting competitions are prepared, so I hope that citizens who are tired of the prolonged COVID-19 will be able to gain comfort and hope for a while through the Gwanghwamun_Art Travel.

I hope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 Citizen Participatory Art Festival, will develop into a representative art festival in Korea where artists and citizens freely exchange works and form cultural empathy, and thank everyone who visited the festival. Thank you.

Seoul Mayor Oh Sehun.

서울특별시 오 세 훈
Mayor of Seoul. Oh Sehun.

오세훈



안녕하십니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대회장을 맡게 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성공적인 문화예술축제의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관계자분들과 다양한 작품으로 전시를 빛내주신 미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축제, 경계 없는 전문미술축제인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문턱 낮은 예술을 목표로 국내외 기성작가들의 작품부터
자유롭고 창의적인 감성을 담은 어린이들의 작품까지 전시합니다.
예술적 다양성을 지키면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예술과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미술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전시를 통해
예술과 시민이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는 대면과 비대면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뉴노멀 시대에,
예술가와 시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이 많이 줄어든 상황 속에 이번 전시를 통해 긴 시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바람과 활기를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는 미술인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곳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광화문 미술여행>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인 호

Hello, I'm Kim In-ho, chairma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nd I'm Chairman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too. I sincerely thank the officials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for their efforts to host a successful cultural and artistic festival and the artists who exhibit with various works.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 festival for everyone and a professional art festival with no boundaries, will display the works of domestic and foreign artists and children with free and creative sensibilities. While maintaining artistic diversity, we are trying to make more citizens meet and communicate with art.

It is expected that the exhibition will be held in Gwanghwamun, the center of Seoul, under the name of "Gwanghwamun_Art Travel." In particular,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events will be hel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a meaningful event for artists and citizen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eyond time and space in the new-normal era." I hope this exhibition will bring a new energy to citizens who are tired of covid19 for a long time.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will consider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so that artists can show their works in more places and citizens can enjoy cultural benefits.

Once again, I sincerely congratulate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Gwanghwamun_Art Travel> and pray that it will become a Festival for all citizens to enjoy. Thank you.

In-ho Kim, The Chairma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인 호
Kim In-ho, chairman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reading '김인호' (Kim In-ho). The signature is fluid and stylized, with the first character '김' being particularly prominent.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신선한 바람결이 부는 가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2021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전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지난 16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미술인들과 시민들이 교류하는 장으로서 예술의 특수성이 가진 벽을 허물고 일상예술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예술을 소개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미술인과 시민들이 소통하여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시대와 사회를 향한 이해와 융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이 악기 하나와 운동 하나를 취미로 가질 수 있도록 '서울학생 악기하나 운동하나' 사업을 오랫동안 펼쳐온 바 있습니다. 이는 예술적 감수성이 미래 시민의 일상에 녹아들기 위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예술계 활동 여건 속에서도 불타는 예술혼과 열정을 보여주신 예술인들과, 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찾아주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자리하지 못하시더라도 큰마음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 희 연

Hello, I'm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e start of the year seems like yesterday, but it's already autumn.
On such a beautiful day, I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hosting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has been trying to break down the walls of art and establish itself as a daily art as a venue where artists and citizens who have been active at home and abroad for the past 16 years are interacting. I hope that this event will not only be a place to introduce art to citizens, but also a place for understanding and convergence of our times and society where contemporary artists and citizens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hearts.

To support students' overall growth,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s long undertaken the "Seoul Student Musical Instrument and Exercise" project so that each student can have one instrument and one exercise as a hobby. This will be the soil for artistic sensitivity to be incorporated into the everyday lives of future citizens.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artists who showed their burning artistic spirit and passion despite the difficult conditions in the art activity, and to the citizens who came with their love and interest in art. Although we are still careful to take active steps due to the covid19, we hope that you will send it freely even if all art lovers are not attend. Thank you.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ho Hee-yeon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 희 연
Cho Hee-yeo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조희연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청장 김영종입니다.

<광화문_미술여행>을 주제로 개최하는 '2021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어느덧 1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미술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문화축제입니다.

앞으로도 창조적인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술문화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즘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가 대폭 축소되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문화예술을 통한 위로와 힐링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은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만큼 더 많은 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종로구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서 최근 다수의 구립미술관 건립과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로구만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려 역사와 문화예술,

자연이 어우러지며 주민과 예술인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품격있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항상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시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김인호 회장님과

엄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m Young-Jong Kim, the head of Jongno-gu.

Congratulations to the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of <Gwanghwamun_Art Trip>.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started in 2005, marks its 16th anniversary.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s a cultural festival that has led to the popularization of art by setting up a venue for festivals that anyone can enjoy regardless of experts and non-experts. I hope that Festival will continue to develop art culture through creative exhibitions and various programs.

Due to the Covid 19,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have been drastically reduced, reducing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enjoy culture and arts. Among them, this event is meaningful in that it gives comfort and healing to citizens who are tired of their daily lives through culture and art. Although it is regrettable that it can be carried out in a non-face-to-face online manner, there are no time and space constraints, so I think we can bring more fun and happiness to more people.

Jongno-gu is the center city of culture and arts, and is currently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a number of municipal art museums and holding various cultural events. By utilizing th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Jongno-gu, we will provide continuous interest and support so that history, culture and art, and nature can blend together and become a decent city where residents and artist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 sincerely thank the Chairman of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n-ho Kim and President Jong-seop Um for their hard work in developing culture and art, and I wish the health and happiness of all those who participated. Thank you.

종로구청장 김 영 종

Young-jong Kim, The head of Jongno-gu office

김영종

“제16회 2021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미술의 세계화와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매년 격조 높은 미술 전문축제를 선보여온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미술문화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작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날 예술은 더 이상 특정 소수 계층이나 마니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술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점점 더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국내외 다양한 예술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마다 추진하시고 힘써주심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이번 <광화문 미술여행>도 동시대 미술인들의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펼친 전시로

시민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서울의 심장 광화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진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을 위한 문화예술축제로 우뚝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다양한 예술이 융합되어있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예술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범 현



Congratulations on opening of the "16th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I would also like to thank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has been presenting a high-quality art festival every year to globalize Korean art and popularize art culture despite the difficult environment.

today, Art is no longer for a particular minority or mania. Also, the area of art is constantly expanding and increasingly vast. In this trend, I applaud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for promoting and working hard every year so that citizens can enjoy various arts at domestic and foreign.

This "Gwanghwamun Art Trip" will also impress citizens with the colorful art world of contemporary artists, and I hope that the heart of Seoul, Gwanghwamun, and furthermore, Korea's artistry will be known to the world and established as a cultural and artistic festival for the world.

I wish you a successful opening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d I sincerely hope that it will be a time to feel that all of your lives are art. Thank you.

Lee Beom-heon, The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s&Cultural Organization of Korea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범 현

Lee Beom-heon, The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Artistics&Cultural Organization of Korea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이범현' (Lee Beom-heon).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미술인/작가분들과 미술애호가들의 참여 속에 '2021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르에 대한 구분이 무너진 현대미술계에서는 참신한 시도와 새로운 표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가의 다양하고 신선한 예술세계를 시각화 하는 미술의 의의는 이제 모방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로운 예술 세계를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일으킵니다.

동시대 작가들의 뜨거운 예술혼과 미적 열망을 녹인 '2021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고양시켜 대중에게 예술이 더욱 바람직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들, 기획자들, 그리고 관객들의 관심에도 감사드리며, 본 전시가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광수

Hello, Those of you who love art.

I am truly happy to hold the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th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and art enthusiasts who are completely striving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

In the modern art,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genres has been broken, novel attempts and new expressions are continuing. The significance of art, which visualizes the artist's diverse artistic spirit, now creates new challenges and impressions by opening up his own art away from imitation and rules.

I hope that Korea's art can be developed through the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melts the passionate artistic spirit and aesthetic aspirations of contemporary artists. Also, through this exhibition, art will be more desirable and friendly to the public by raising the love and interest in art.

Thank you to the organizers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for their efforts to popularize art. Thank you for the impressive art works, directors, and audience's interest, and I hope this exhibition will be successful.

Thank you.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광수

Lee Gwang-so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rt Association

이광수

몹시 더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과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2021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광화문 미술여행>'은 예술을 통해 서울시민을 사유와 치유의 광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본디 예술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작가의 뜨거운 혼과 미적 열망을 함께 녹인 작품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 영혼의 내면에서는 깊은 울림과 함께 무한한 에너지가 합쳐진 시너지들이 분출되어 묵은 감정들을 눈 녹듯 녹게 합니다.

이러한 예술을 바탕으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레 예술의 열과 맺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언어를 초월한 소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부디 본 전시에서의 예술의 향연에 참여하셔서, 풍요로운 가을을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고 다채로운 축제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작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술을 통해 서울시민을 하나로 묶는 대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hot summer has gone and autumn has come, and the beautiful autumn leaves are getting colored.

The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Gwanghwamun_Art Trip>, which is held in Gwanghwamun, leads Seoul citizens to the square of healing through art.

Art is what makes our lives more abundant. When we face a work that melts the artist's passionate artistic spirit and aesthetic aspirations together, we are deeply moved and infinite energy erupts inside of us, melting bad emo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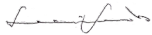
Based on this ar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revitalize our lives and lead to communication beyond language by leading us to experience the beauty of art naturally in our daily lives. I hope you participate in the art festival in this exhibition and share the beautiful autumn with us.

I would like to thank the officials and artists for preparing a colorful festival, and I hope it will be a big festival that brings Seoul citizens together through art.

Thank you.

(사)서울미술협회 이사장 이 인 섭

Lee In-seop, the Chairman of Seoul Art Association





안녕하십니까?

16번째를 맞이하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하여 아쉽게도 준비했던 행사를 치르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더욱이 한국기초조형학회와 공동 주관, 주최하는 행사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기초조형학회는 예술·디자인 전 분야에 관계된 ‘기초조형’을 중심으로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창조적 조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학회로서 전시뿐만 아니라 학술대회와 전문도서, 학술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적합한 조형과 예술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요구받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개방적 시각으로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발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된 시대에 새롭게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는 명확한 체계와 명쾌한 비전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과의 이번 공동 협력 행사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작가들을 비롯하여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한국기초조형학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Hello?

Congratulations on the 16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Last year, I was very sad that It couldn't hold the event that due to covid19. However, I am very honored to hold this Festival Co-Organized and supervised with the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Art(KSBDA).

KSBDA is the largest academic organization in Korea that establishes academic status based on 'Basic Form' related to all fields of art and design and strives to realize 'Creative Formation' in society is conducting various projects such as exhibitions, professional books, and conference.

Each era is required to have a view and interpretation of the appropriate sculptures and art, but this era we face is increasingly open-minded, demanding new experiences and creative ideas, and desperately needs a clear system and clear vision that can be applied and expanded in a changed era. Therefore, I am confident that this cooperation Festival wi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be able to create greater synergy in the future if it can be continuously promoted through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I would like to thank the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is Festival and many of them who played a big role in planning and promoting the Festival on behalf of the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Art.

(사)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 김 지 현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Art (KSBD) Jee-hyun Kim

가을과 함께 “2021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광화문_미술여행>”이 시민 여러분께 돌아왔습니다.

고상한 전시장의 위압감 속에서 그 가치를 뽐내던 예술은 이제 거의 종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 누구나 향유 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드리는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을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이끌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미술작가들의 다양한 예술혼과 창작세계를 펼쳐보임으로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에서 시민 여러분이 예술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축제의 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본 전시를 통해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1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th autumn,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Gwanghwamun_Art Trip>" is back to the citizens.

I think the art that used to show off the novel, dignity of the exhibition hall is now over. I have no doubt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lead the paradigm of new art that can be enjoyed by anyone and inspires us.

Based on this trend, I hope that citizens can experience artistic diversity and enjoy art naturally in our daily lives in this exhibition. I hope all the citizens who came to the festival have a valuable and precious time through this exhibition.

Congratulations on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d I sincerely thank those who have spared all their passion for it.
Thank you.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장 림 만 선
Man-sun Lim, the Chairnan of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Operation Committee

림만선



광화문_미술여행

Gwanghwamun_Art travel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공감과 소통' 미학의 치열한 실험장으로 거듭나기를

심상용(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올해로 16회를 맞은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의 주제는 ‘비대면 시대의 예술’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행사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에도, 국내 기획전이나 어린이 그리기대회 뿐 아니라 국제전까지 기획한다니, 먼저 그 적극적인 행보가 고무적이다. 한국의 선도적인 디지털 소통 환경이 사태를 극복하는데 의미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테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1년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이 난황 가운데 ‘기대하는’ 성곽을 뚫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축제 성격에 띄는, 일련의 전시들과 행사의 집합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삶이 사회의 전 영역에서 비대면, 화상 미팅으로 대체되고, ‘언택트(untact)’의 삶이 일상으로 자리잡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하는 비상사태의 한 가운데서, 그 행보를 중단하지 않아야 했던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의 결박함은 무엇인가.

(적어도 내가 이해하기로) ‘광화문 국제예술축제’의 취지는 그 이름에서처럼 모호하지 않다. 미술 축제와 축제로서의 미술을 지향하도록 했던 그것은 예술과 삶의 근대적 분리를 넘어서는 것, 엘리트 미학과 대중의 미감 사이의 간극을 ‘공감과 소통’의 가치로 매립해, 예술의 새 지평을 지향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의 행간에 대문자 ‘A’로 시작되는 ‘위대한 예술’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성찰, 즉 ‘의미와 쓰임새를 상실한 채 근대 미학의 소통적 불구를 앓고 있는 예술에 대한 경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취지가 더욱 선명하게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이 지향해온 대안적 노선으로 자리매김 되어, 여타의 문화 이벤트들과의 변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예술은 계몽된 근대주의의 맥락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향한 치열한 정신이요 그 가장 고유한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엔 바로 그 자유와 해방 정신의 극적인 실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저술가 크리스틴 조디스(Christine Jordis.1942~)에 의하면, 이러한 귀결은 길을 잃은 서구 근대 사유와 지성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근대주의, 계몽된 근대 지성은 사람들을 “베를로 남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성을 망각한 채”, 부질없고 서글픈 ‘홀로 서기’를 연습하는데 인생의 거의 전부를 소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잘못 인도했다. 근대 미학이 사람들의 감정과 감각 위에 했던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몽된 근대인에 있어 인생은 프로메테우스의 후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고작 “아는 사람은 고사하고 낮익은 자취, 기억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짓밟힌 병실이나 노인 보호시설”로 직행하는, 그리고 그 차갑고 낯선 곳에서 비참하게 맞이하는 최후로 정의된다. 계몽된 주체의 예술은 인생의 도정에서 어떤 위로도, 대안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어떤 것으로 귀결되어 왔다. 인간이 무한대의 자유를 경영할 자질을 갖춘 존재인가를 증명하고자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결말의 몇몇 부분:

자유는 성공과 돈을 생각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시대로 귀결되면서, 예술은 애정과 헌신을 대변하는 것과 무관한 영역이 되었다.(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예술이 ‘치욕스러운 시대’와 타협한 것으로 본다. 진단서는 증세가 시작될 당시부터 발부되기 시작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자 인권변호사였던 리처드 헨리 다나(Richard Henry Dana)가 일찍이 질병을 간파했다. “근대체제 전체가 잘못된 인간관, 곧 인간성에 지나친 자신(自信)을 갖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에, 그 본래 성향이 발현되도록 내버려둔다면, “필연적으로 지금껏 지구상에 유례없는 깊고 넓은 비참을 인류에 가져다 줄 것이다.”

20세기에 쏟아졌던 진보를 자처했던 술한 예술담론들의 덧없는 행렬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그다지 또는 전혀 진보적이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그것들에 의해 내려진 진보, 담보, 퇴보의 경의는 대체로 잘못된 것으로, 이는 그것들의 잘못된 근대주의적 계몽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진보 철학의 언어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원시적이고 야만적 형태는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잘못 가르쳤다.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아방가르드(avant garde) 즉 ‘앞’을 진보로 감각하고, 야만상태로 ‘돌아간다’, ‘후퇴한다’와 같이 표현하지만, 사실 폭력과 야만상태는 우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아래’에 있다. 근대체제는 진보를 잘못 이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야만상태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진보를 자처하는 그 술한 담론들이 그것들의 놀라운 무지와 무감각과 무기력으로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아픈 질문과 기대가 여기에 있다.

이 시대의 글로벌화된 경제와 국가, 권력 기관들에서 예외 없이 목격되는 탐욕과 그것의 근본적인 파괴성을 예술도 무감각하게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술도 ‘창조의 세계’, 곧 진정한 세계로부터 마땅가지로 단절되어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예술과 삶의 분리와 분열을 넘고, 엘리트 미학과 대중의 미감 사이의 간극을 극복한다는,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이 자신을 출범시킨 취지에 답해나가는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맥락에서 ‘공감과 소통’의 예술이 더 깊게 사유되고 실현되는 대안 미학의 실험장으로서 ‘광화문 국제예술페스티벌’이 힘있게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_
"Sympathy and Communication" will be reborn as a fierce experiment center
for aesthetics

Sang yong Shim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s)

*

The theme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marks its 16th anniversary this year, is "art in the age of non-face-to-face." Due to the COVID19, most of the Festivals will be held in a non-face-to-face system. It is encouraging to plan not only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but also children's drawing competitions. It is fortunate that Korea's online communication environment will help overcome the crisis. We hope that the 2021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produce "expected" results in the chaos. What is the urgency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hich had to stop its activities in an emergency situation where people were worried that untact life would take root as a daily life instead of face-to-face video meetings?

The purpose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s Festival' (at least as I understand) is not as ambiguous as its name. It, which led to the aim of art as an art festival and festival, will aim for a new horizon of art by reclaiming the gap between art and modern separation of life, elite aesthetics and public aesthetics as the value of 'sympathy and communication'. This also means that the lines of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contain some forward-looking reflection on 'great art' that begins with the capital letter "A," that is, boundaries for art suffering from the communication disorder of modern aesthetics, losing its meaning and use. I hope that this purpose will become more clearly established as an alternative route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has aimed at, and will be reborn as a true art festival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cultural Festivals.

**

Art is a fierce spirit toward freedom and liberation within the context of enlightened modernism. It meant its most unique practice, but today it shows a dramatic failure of the spirit of freedom and liberation. According to French author Christine Jodis (1942~), this result is an inevitable product of lost Western modern thought and intelligence. Modernism, enlightened modern intelligence misled people to live a life that consumes almost all of their lives practicing "being alone," "being oblivious to the need to give and share with others."

What modern aesthetics did on people's emotions and senses is not much different. For an enlightened modern man, life is defined as a shabby and gloomy appearance to be the successor of Prometheus, going straight to a "familiar trail, a ward or shelter trampled with the least respect for memory," and being miserable in that cold and unfamiliar place. The art of the enlightened subject has resulted in nothing comforting, alternative, or power to overcome in the course of life. He tried to prove that humans were qualified to manage infinite freedom, but he was lost.

Some parts of the ending:

As freedom resulted in the era of young artists who thought of success and money, art became an area unrelated to representing affection and devotion. (Pierre Bourdieu) Nicholas Wolterstorff sees art as a compromise with the 'shameful era'. Medical certificates began to be issued from the start of symptoms. Richard Henry Dana, an American poet and human rights lawyer in the 19th century, early saw through the disease. "The entire modern alternative system is based on having too much self-confidence in humanity, that is, humanity, so if its original tendency is allowed to emerge, it will inevitably bring humanity an unprecedented deep and wide tragedy."

It should also be pointed out about the ephemeral procession of numerous art discourses that claimed to have made progress in the 20th century. It turns out that they, too, were not very or completely progressive over time. The definitions of progress, steps, and regression made by them are generally wrong,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ir wrong modernist enlightenment. In the last century, the languages of progressive philosophy misled us to think that "the primitive and savage forms of humans are behind us." As a result, we still sense avant-garde, or "front," as progress, and express it as "return" or "retreat," but in fact, violence and barbarism are not behind us, but below us. The modern alternative system misunderstood progress and let go of the barbaric state in us freely. This is why the numerous discourses claiming progress have left deep scars on history with their amazing ignorance, insensitivity and lethargy.

A painful questions and expectations are here.

Isn't art insensibly enjoying the greed and fundamental destructive nature witnessed without exception in the globalized economy of this era, the state, and power agencies? If so, the art of this era is no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being cut off from the "world of creation," that is, the true world. Therefore, attention is being paid to whether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answers the purpose of launching itself, which goes beyond the separation and division of art and life and overcomes the gap between elite aesthetics and the public's aesthetic. In this context, I hope that the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will be reborn as an experimental site for alternative aesthetics where the art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is thought and realized more deeply.

Bheem Malhotra



Malhotra Bheem Malhotra, born in 1964, got 1st class five years degree course from Government College of Arts, Chandigarh in 1986, is presently working as Associate Professor in Art in Chandigarh College of Architecture, Chandigarh, also is Honorary Chairman Chandigarh Lalit Kala Akademi, and Member UT Higher Education Council 2015.

As an artist of repute he has participated in many exhibitions at the stat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got many awards and honours.

His works are in the collection of many museums,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in many private collections in India and abroad. His Mastery in water colour brought him the national award (SCZCC) by Ministry of Culture, Government of India in 2015 on his water colour painting. He has also got award in All India Exhibition of Water colours, 2015 in New Delhi. He has attended many national & international level art workshops and display his works in 20 solo shows including Nehru Centre London, UK and many group shows in India and abroad. He has contributed in many art shows for charity. He has also honoured by Chandigarh Administration on 15th August 1999 & 26th January 2013 for his contribution in Art and culture.



Bheem Malhotra abstract landscape 30x40 inches



Bheem Malhotra abstract Landscape 12x12 inches on canvas

Kalicharan Gupta



My work with the abstraction of light and colours of urbanizati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wathes of colour and its absence speak of the tall buildings and expanding inhabitation clusters that are taking over all available space, be these green spaces or waste spaces. This incroaching on the rural and the natural habitat is suffocating the life out of not just the environs but also cultural Lebensraum or living spaces.

Living in a congested country as we do right now, we cannot but both rejoice in humankind, as quail at the shortage of the particular breathing space in which are born the buddhas, or those perceptions as are humankind's crowning glory.



ABSTRACT LANDSCAPE ptg no. 20200105 acrylic 20x24 inches



ABSTRACT LANDSCAPE ptg no. 20200127 acrylic 20x24 inches

Meena Deora



Solo Exhibition in Shridharani Art Gallery National Exhibitions
by Lalit Kala Academy
Sahitya Kala Parishad Participated in Art Shows in London, Korea,
Bahrain, Dubai and Singapore

Many times of Group Exhibitions Works are in collections of Ambassador
of Mexico, Pheroza Godrez, RPG Foundation



Meena Deora Transcendental acrylic on paper 22x44 inches 2020



Meena Deora Transcendental -3 Acrylic on paper 22x44 inches 2020

Nirensen Gupta



Graduated from Calcutta University
Government College of Art Crafts, Calcutta. Seventeen One-man shows in India.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shows in India and abroad including India Korea,
Korea India 2002 onwards.
Received six major awards.

Participated in various artist camps in India and abroad.
Curated Millennium Show 'Their story' organized by VHAI and Dhoomimal Millennium
Exhibition Artists connection with Bengal.
Published articles in Indian leading newspapers and magazines.
Prof. Niren Sen Gupta



Aparajita oil on canvas, 60X36cm, 2008



Saranagata 36X60inches oil on canvas 2009

Rashmi Khurana



Rashmi's journey as an artist has been like that of a river.....flowing through time through an intuitive sense of destination. Gushing through, slowing down, accumulating, letting go, reflecting cultures and always breathing life.

Over the rashmi has grown to be sensitive to the 'everyday aesthetics'. and possibilities of beauty in our environment. The sculpture-like quality of her expressive relief like surfaces embeds space and time containing within them the amorphous narratives of the artist's life and practice.



Rashmi khurana Lockdown self-1 42x72 inches 2021



Rashmi khurana Lockdown self-2 42x78 inches 2021

S.K Sah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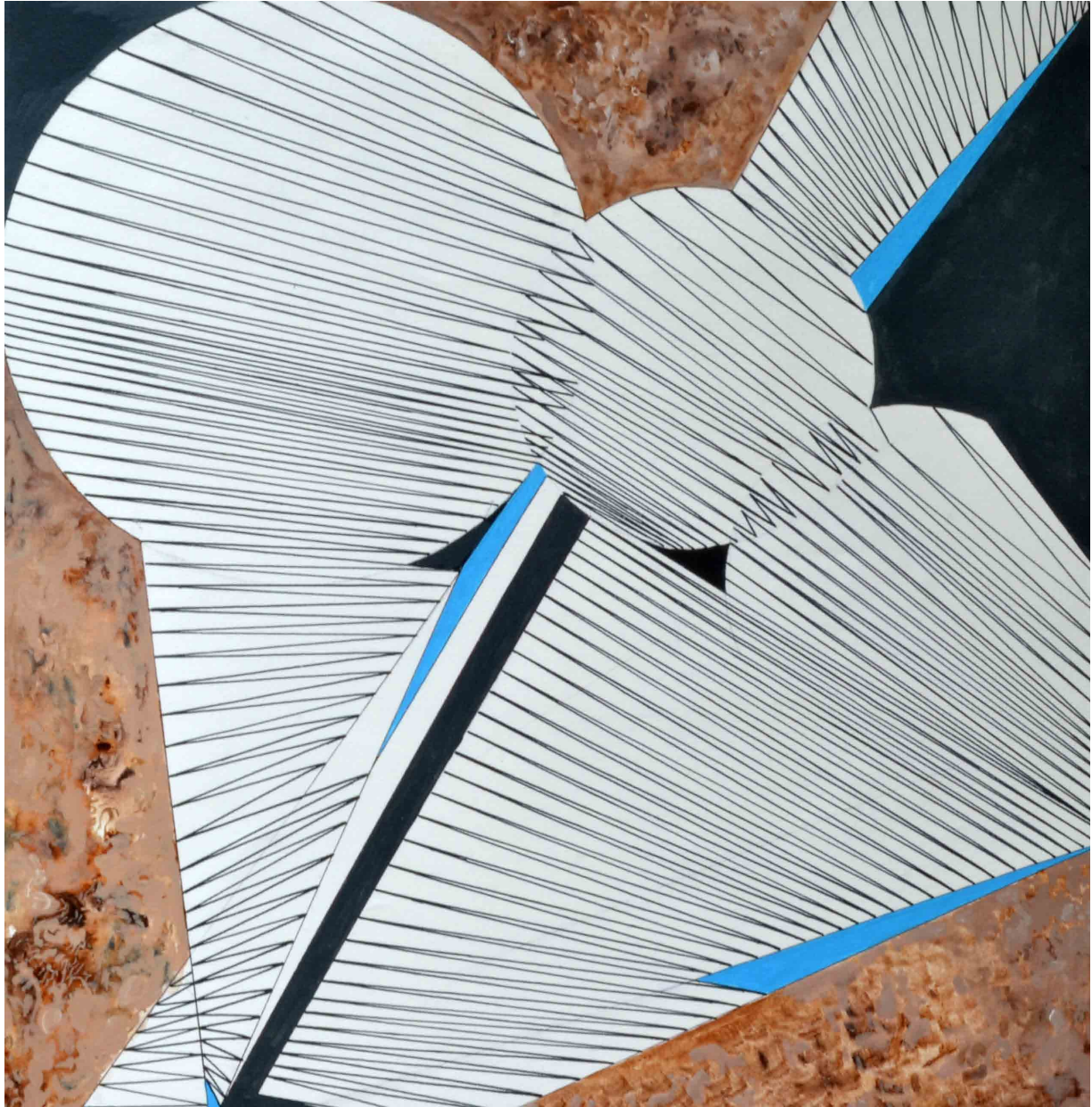
S.K. Sahny was born on 27th December, 1937. This prolific artist and ex Keeper at the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New Delhi, studied art at Sir. J.J. School of Art, Mumbai. Sahni's drawings express the draftsman's personality spontaneously in the flow of lines. His lines are not lifeless strokes on a canvas rather; they are the very essence of his artistic creations.

In Sahni's works, Lines dominate and define his abstracts which are unplanned. Beginning primarily with monochrome, it was during 1990s that Sahni started introducing color into his pen and ink drawings and started working on canvas.

Sahni has held more than 25 solo shows and 50 group shows across India. A Retrospective Exhibition of his works of last fifty years was held at AIFACS, New Delhi in 2016. He was invited to show his works in The Museum of Geometric & Madi Art, Dallas, USA in 2017. His works are in Private and Public collections including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New Delhi, Museum of Fine Arts, Chandigarh and Alkazi Arts Foundation, New Delhi.



Space D - 14 ; 2019



S.K. SahnySpace D-34; 2021

Shobha Broota



1943, Born in Delhi

1964, Diploma in Fine Arts, College of Art, Del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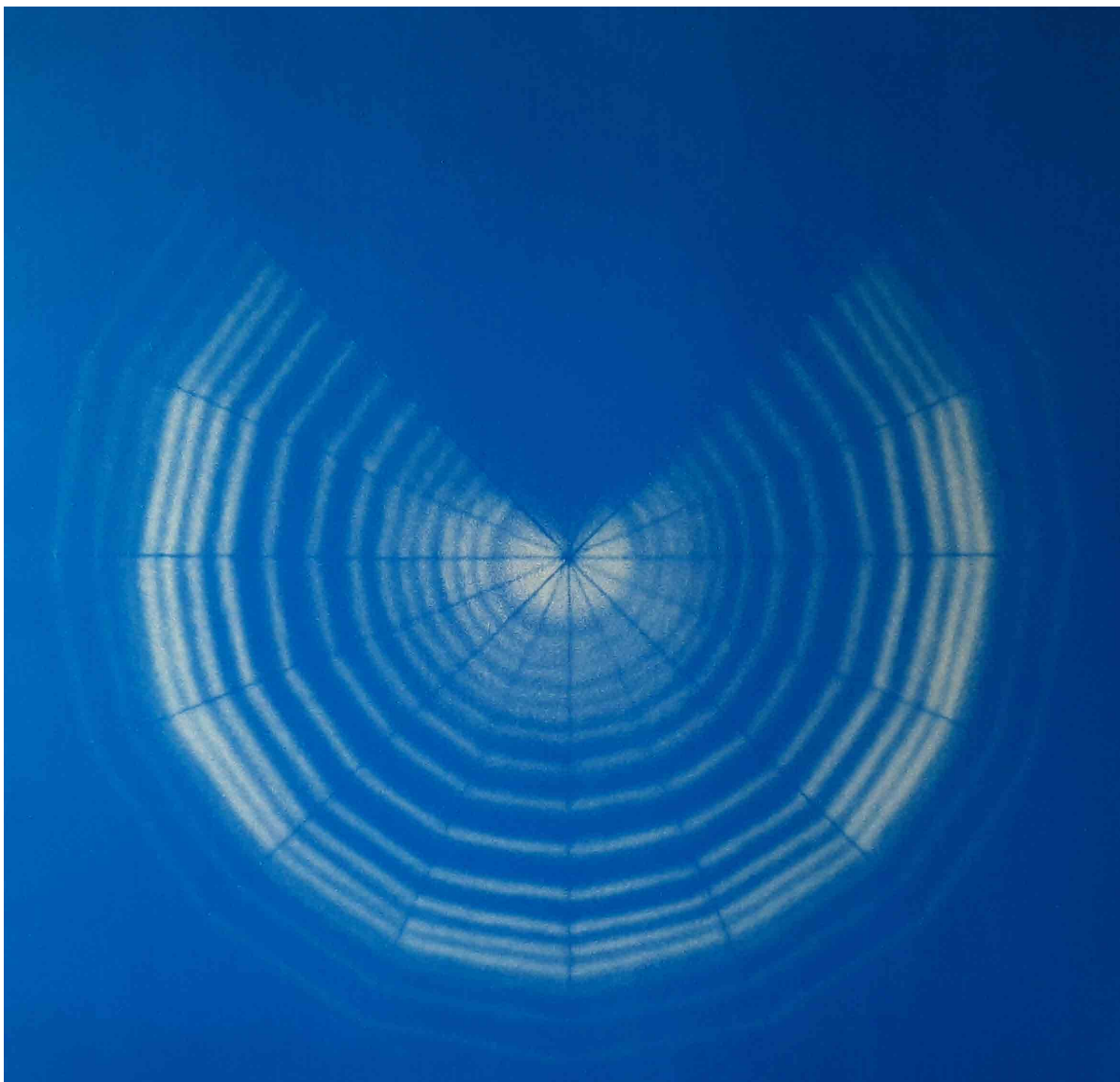
1962, Sangeet Visharad, Masters in vocal Indian classical Music.

2017, Raja Ravi Varma Samman” an Award conferred by Megh Mandal Sansthan, Rajasthan.

2018, Alva’s Varna Virasat” National Award,a“Lifetimes Achievement Award”, Alva’s Education Foundation, Mangalore, Karnataka.



38 Untitled SB 36x36 Acrylic on canva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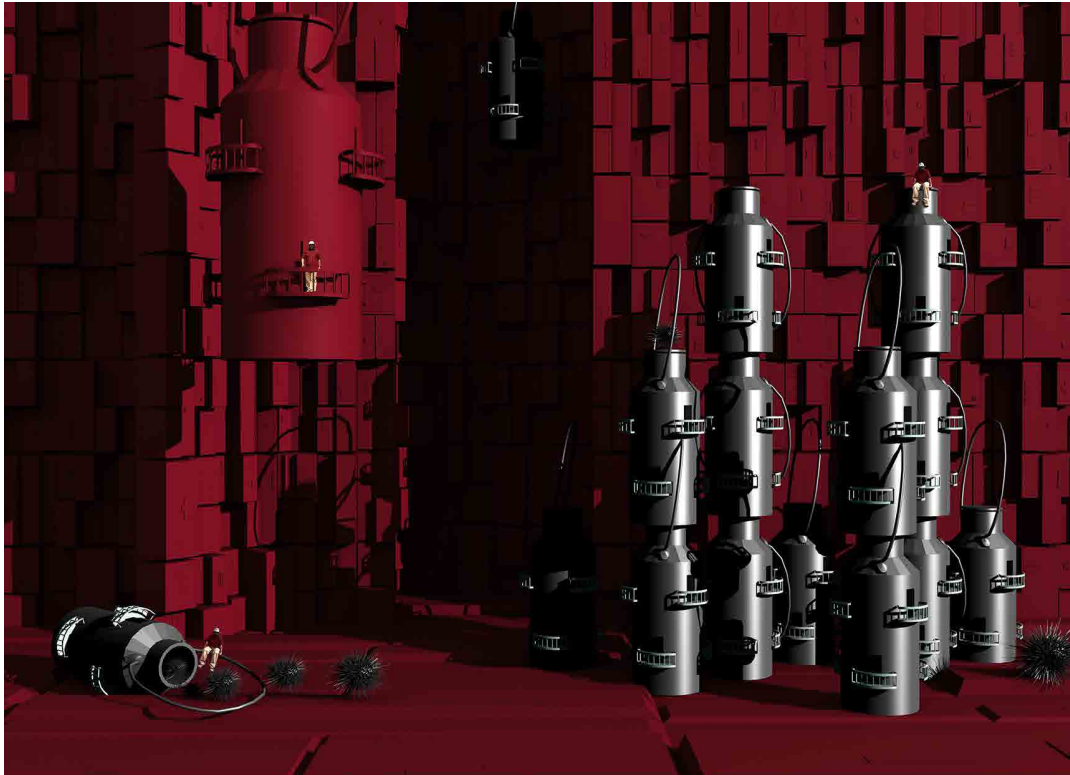
SB Untitled ,White circle on Blue,2020,Oil on Canvas, 36x36 Inches

Shovin Bhattachaj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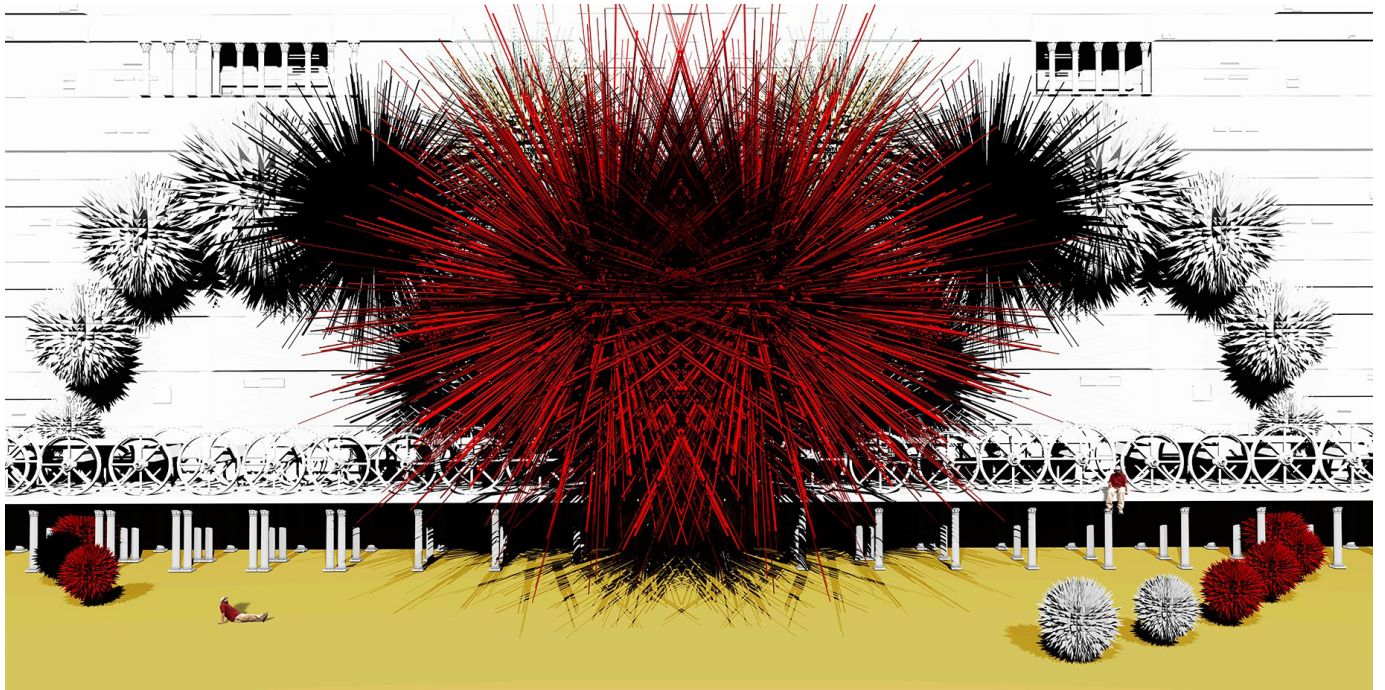


M.F.A. in Painting from Fine Arts Dept., Assam University (Central University) Silchar, Assam / Seven solo shows / 224 group exhibition in Indian and abroad / Participated in 44 Artist's Camp or workshop national and International

Won many awards including LKA National Scholarship; Junior Research Fellowship from H.R.D, New Delhi; (UNESCO) scholarship (2002); "All India Platinum, Gold and Silver Artist Award" (2015, 2016 and 2017) for Installation and Digital art from Prafulla Dhanukar Art Foundation, Mumbai; 1st All India Art Exhibition, 1st and 4th All India Digital Art Exhibition A.I.F.A.C.S., New Delhi (2011, 2014); 78th and 83rd Annual All India Art Exhibition, A.I.F.A.C.S., New Delhi (2006 and 2011); State Award org by Art & Cultural Dept, Govt. of Meghalaya / Many collections in India and Abroad / 91+9818073557 / shovinb@gmail.com / www.shovinstudio.com



Trazedy of Milkcaane 30x40 inch, Archival Print on Archival Paper,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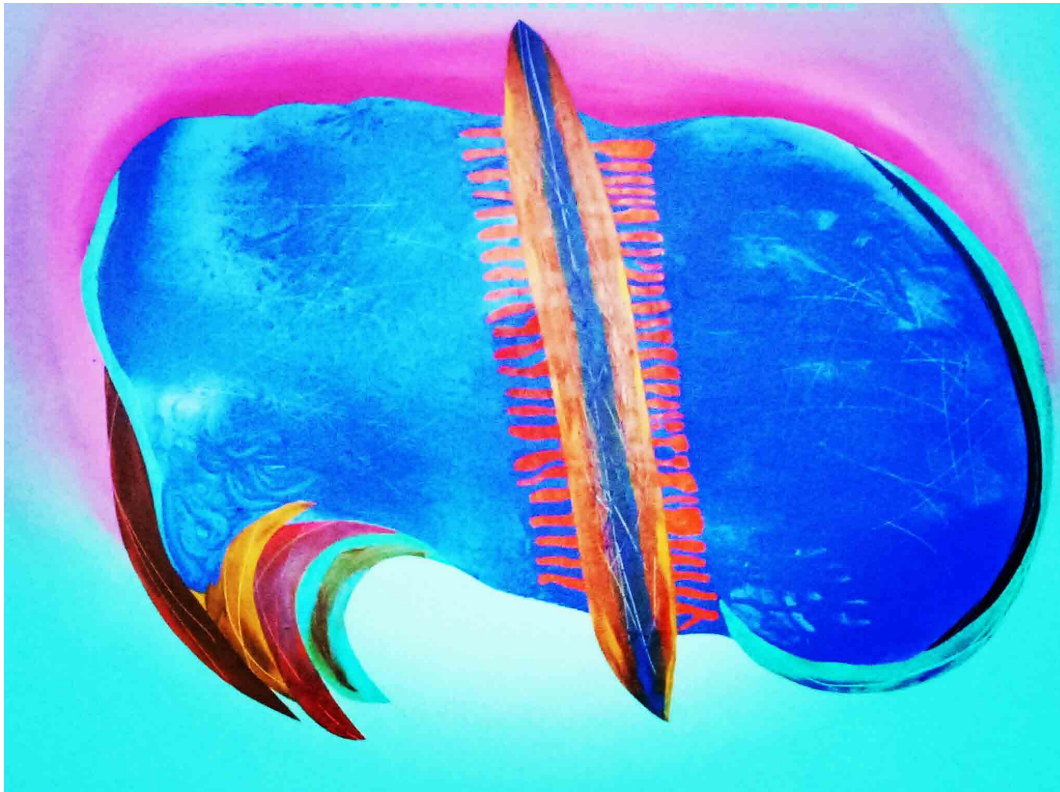


wheel Lock 40x80 inch, Archival Print on Archival Print, 2020

Vidhyasagar Upadhyay



M .A in Painting from University of Udaipur .1970.
Ph.D. in Painting from Sukhadia University, Udaipur 1996.
National Award on Painting
by National Lalit Kala Akademi N.Delhi 1981
19 times of Solo Exhibitions
30 times of Group Exhibitions



Untitled, Acrylic on canvas, 90x120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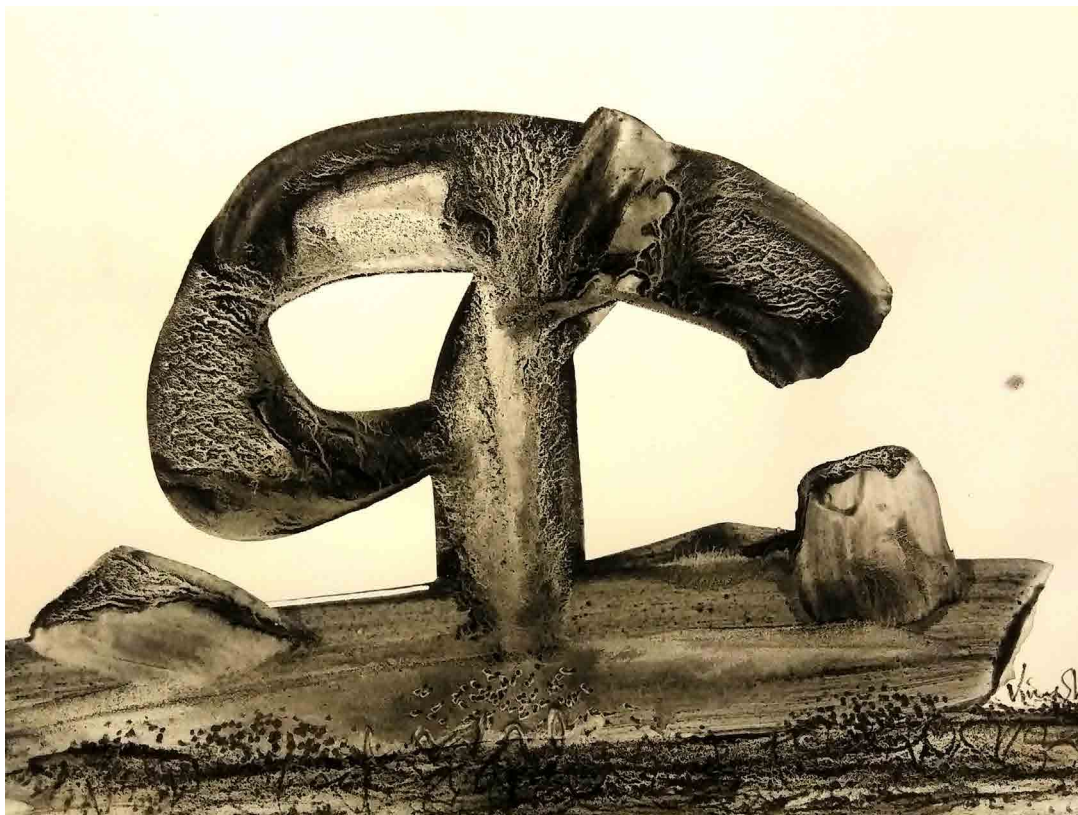


Untitled, Acrylic on canvas, 90x90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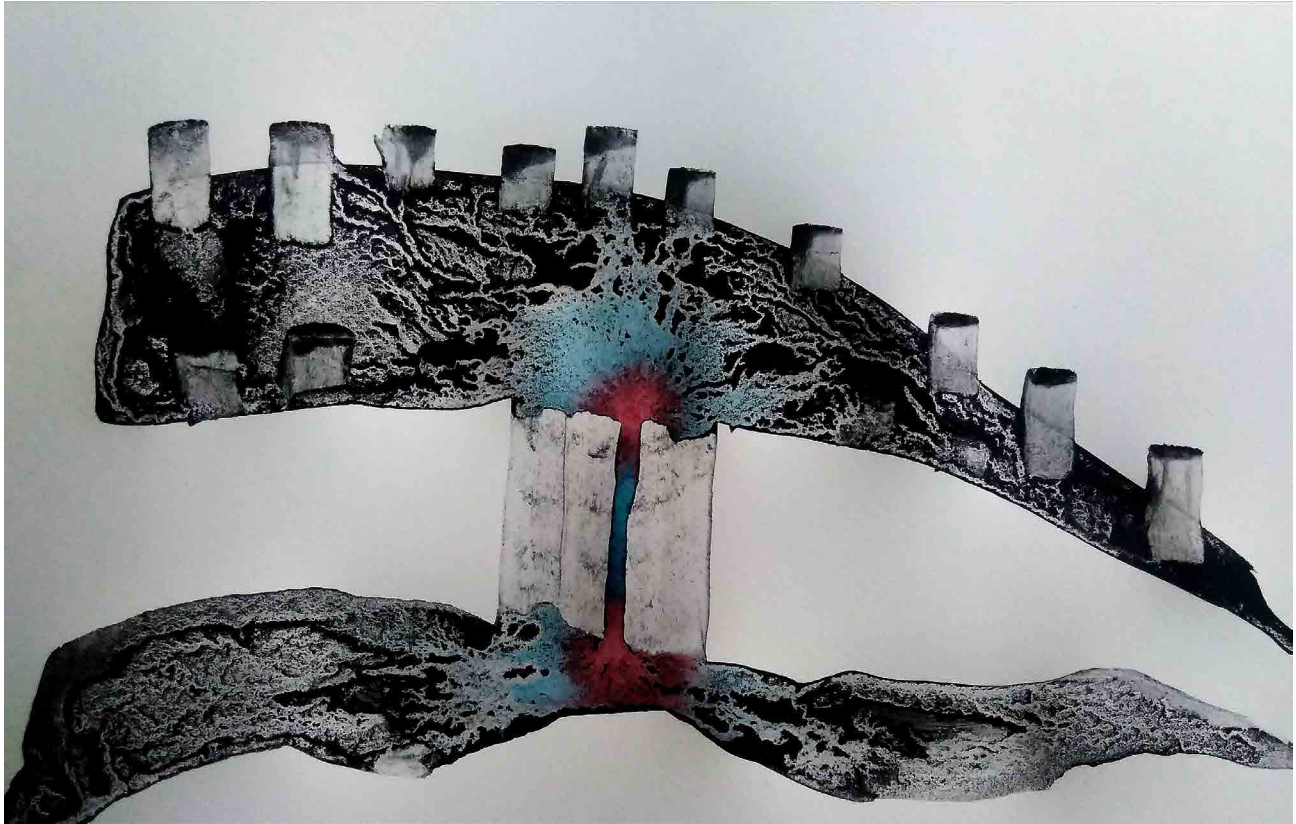
Vinay Sharma



Post Graduate in Graphics from Faculty of Fine Art, MS University, Baroda in 1990. He had held 13 solo shows including Gallery of Contemporary Art in Poland in 1999, Hanover Galleries Liverpool in England and Talisin Arts centre at Swansea University, UK in 1996, Hope Street Art Gallery in Liverpool 1989. He has also participated in several group shows in India and abroad including Germany, UK, Australia, Korea, Jaipur and Mumbai New Delhi. Honorable Mention by Lalit Kala Akademi New Delhi in 2000. Golden Jubilee in India's Independence Award (Rajasthan) by AIFACS. Visited world wide Museums and art Galleries.



Untitled, Acrylic on canvas, 90x120cm, 2020



vinay sharma 'From Nature' pen and ink 2021

Painting and What it Means to me : Vinay Sharma

Painting is an expression of my inner being. It is, in fact, a compulsion with me for it started at an early age when I was a mere child. My first canvas came into being when I was about 16-17 years of age. Since then, painting has become synonymous with life. I paint because I exist. Certain emptiness persists till I take the brush and paint in hand and then shapes, and lines emerge. I owe a lot to my village home where I grew up amongst festivals, rituals, traditions, and of course, astrology. Astrology was a way of life and its basics have surfaced in a philosophical way in my work. The impressions I inculcated as a child have become recurring symbols in my work. I feel that my inner and outer beings have submerged effortlessly in the recent series. Creation, the formless nature of form, the first word, and the first sign of life on earth - all these concepts have a lasting relationship with my paintings. The intrinsic quality of my work is laced and defined with these concepts.

The process of creating a canvas is gradual with me. I use multimedia to paint. In my old paintings snatches of the current style were recurring. In the recent paintings I have used multimedia to create symbols. The old paper used for astrological scroll and book keeping copies of my ancestors, is the canvas. A sense of time forms the theme of these paintings. To create multilayered images, I have used collage, print and traditional miniature painting style in oil and water colours. These merge with handwritten astrological scrolls. While making this series, I had a sense of being a witness to my own ancestry. I am evolving slowly, for each year brings newer images, techniques and combinations to my paintings. Painting given me a catharsis, and I guess, that is the reason I create.

Kang, Ki Yung
강기웅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수료

개인전 9회

단체전 500회

'서라벌등문전', 조형갤러리

한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경기도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현재, 용아트 대표,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상형전 자문위원, 광화문아트포럼 자문위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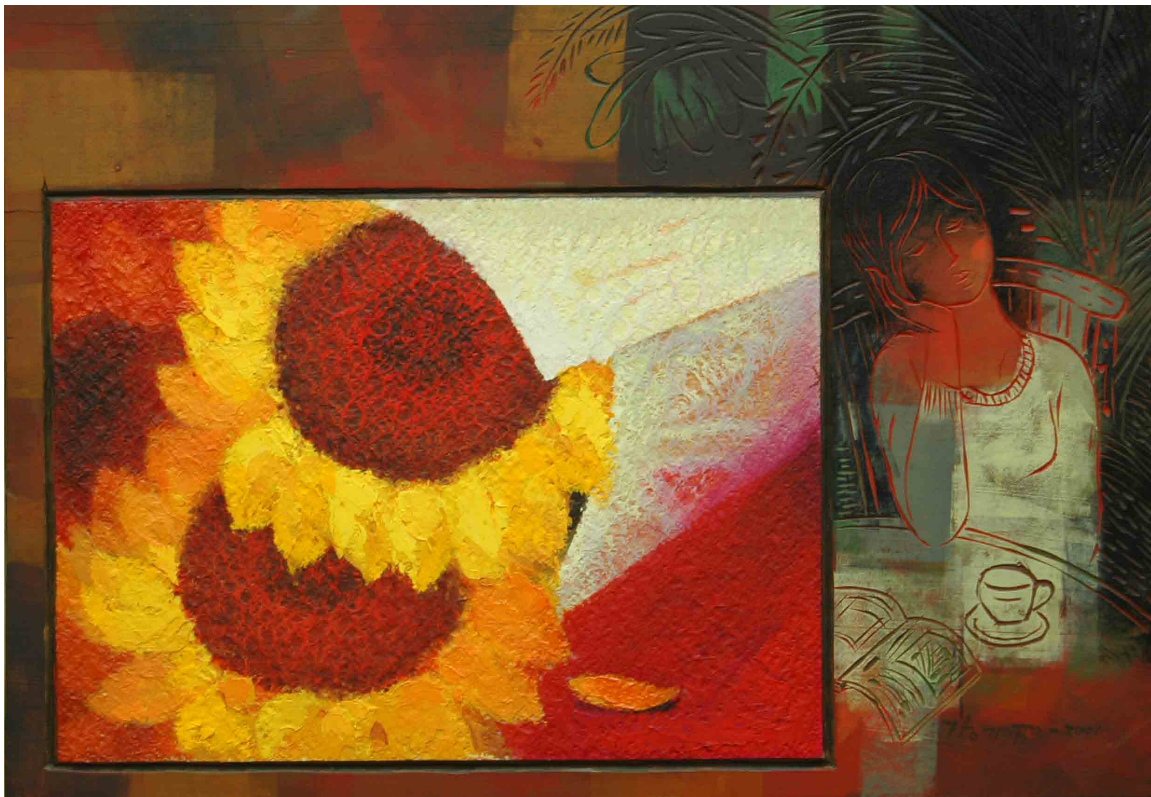
M.A.E. in Dankook Univ.

9 times of Solo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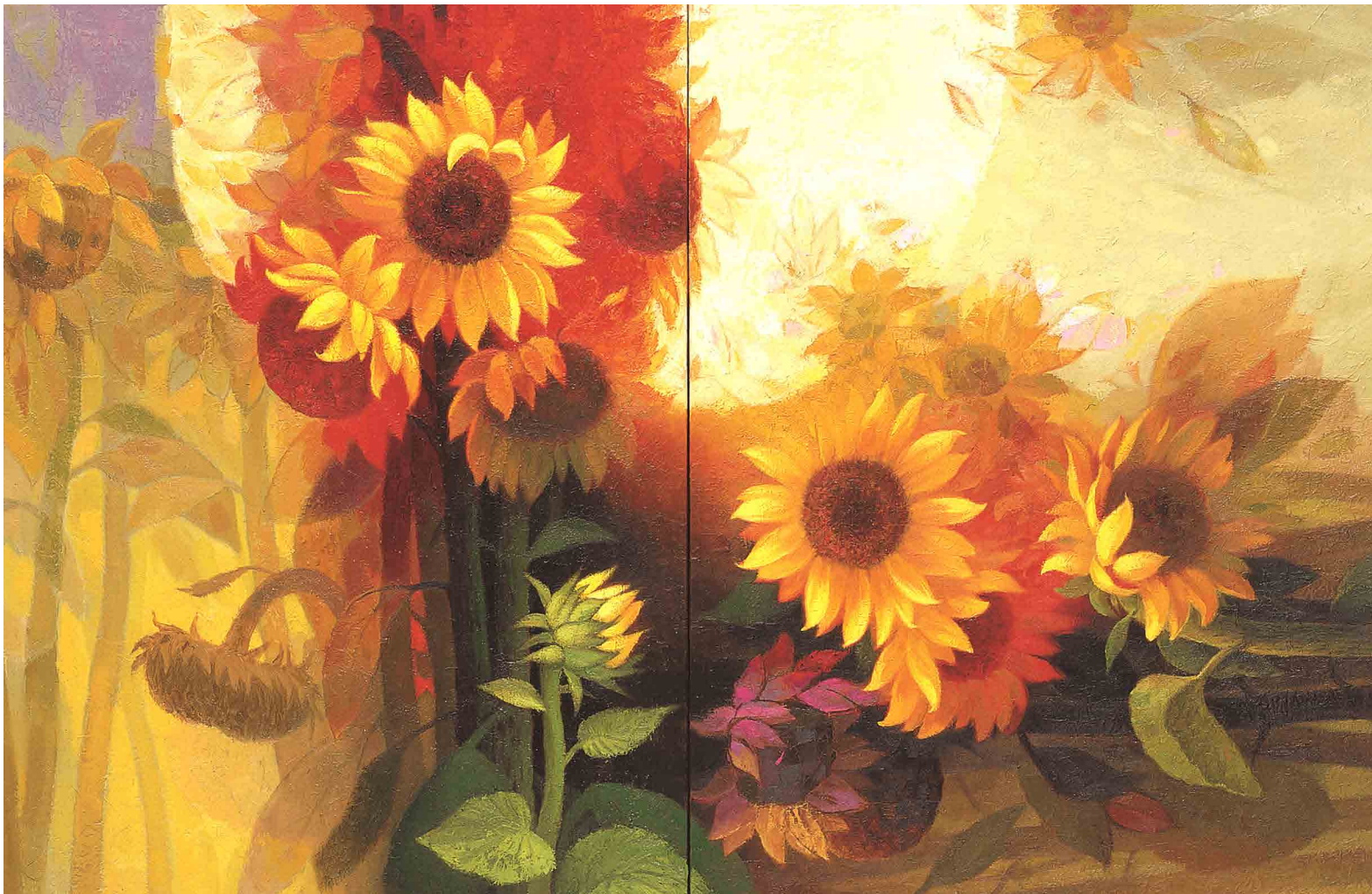
500 times of Group Exhibitions

'Seorabal High School Alumni Exhibition', Chohyung Gallery

'Korea Conceptual Art Association Exhibition', Seoul Art Center, G.A.F



타입 - 타입. 송판 50x34x5.2 조각 및 유화



화려한 시절 50호 변형(121.2x72.7) 2004

강민희
Kang, Min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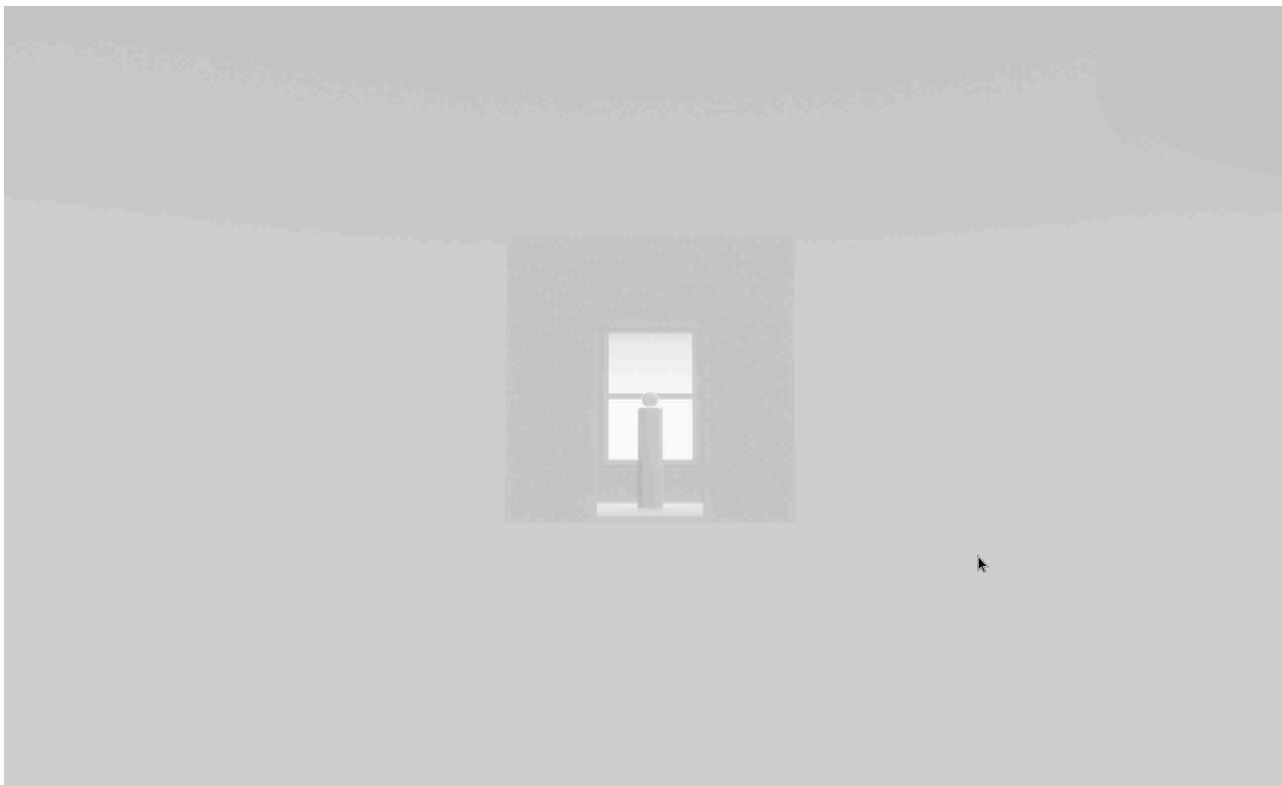
2021 영국왕립예술학교 조소과 석사 졸업
2017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섬유예술과 학사 졸업

2021 MA Sculpture, Royal College of Art
2017 BFA Textiles,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주로 빛을 재료로 삼아 물질의 표면 성질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그리며
주관적인 지각과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결합하는 설치미술을 한다.

최근 작업은 창문이나 미디어 화면을 통한 실시간 경험에서 매개된 공간적 그리고 심리적 거리
의 층을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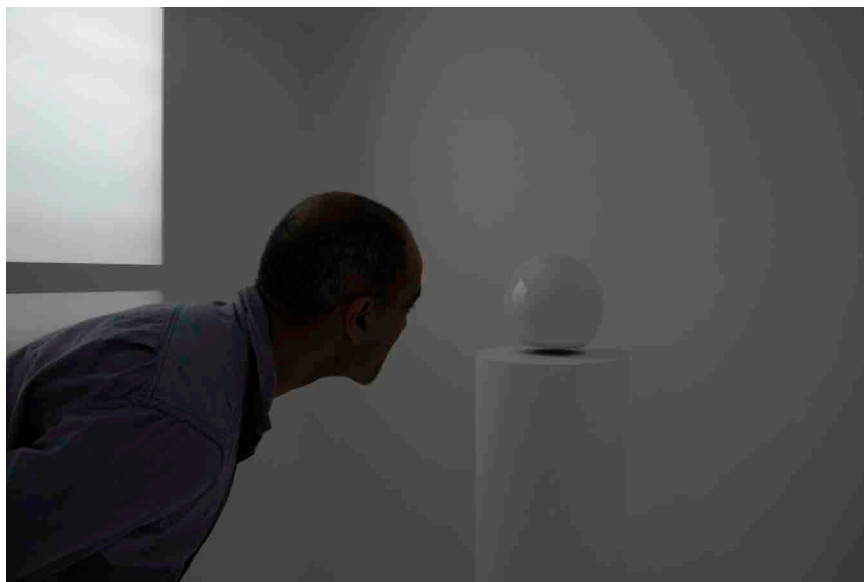
Vanitas Vertigo Venus(2021)는 ‘방’ 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인공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어지럽혀진 시간의 흐름과 시간에 따라 가중되는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현실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가상 시공간을 디지털 플랫폼 가상공간 안에서도 구현해 보는 시도
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놓인 시공간의 연속성과 상대성을 탐구한다.



Vanitas Vertigo Venus, 3D digital render, 2021



Vanitas Vertigo Venus, LED, 실시간 시계 센서, 아두이노 보드, MDF, 뉴트럴덴시티 필터,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자기 공중부양 모듈,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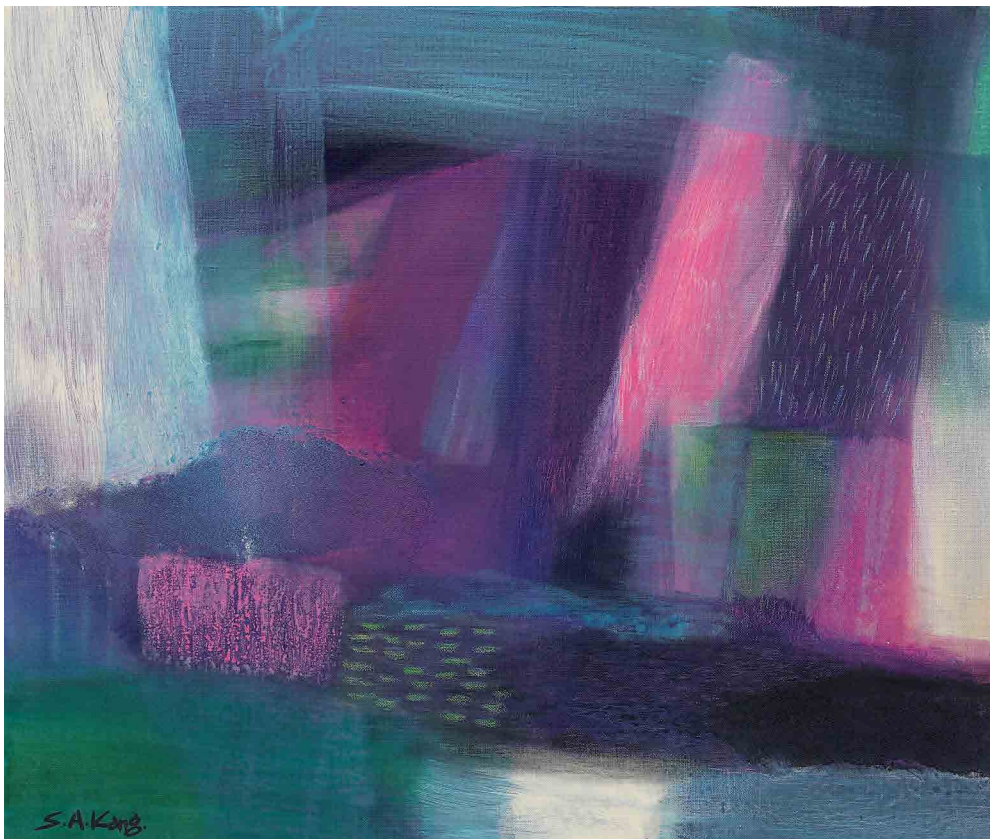
Vanitas Vertigo Venus, LED, 실시간 시계 센서, 아두이노 보드, MDF, 뉴트럴덴시티 필터, 폴리카보네이트, 유리, 자기 공중부양 모듈, 2021

Kang, Seung Ae
강승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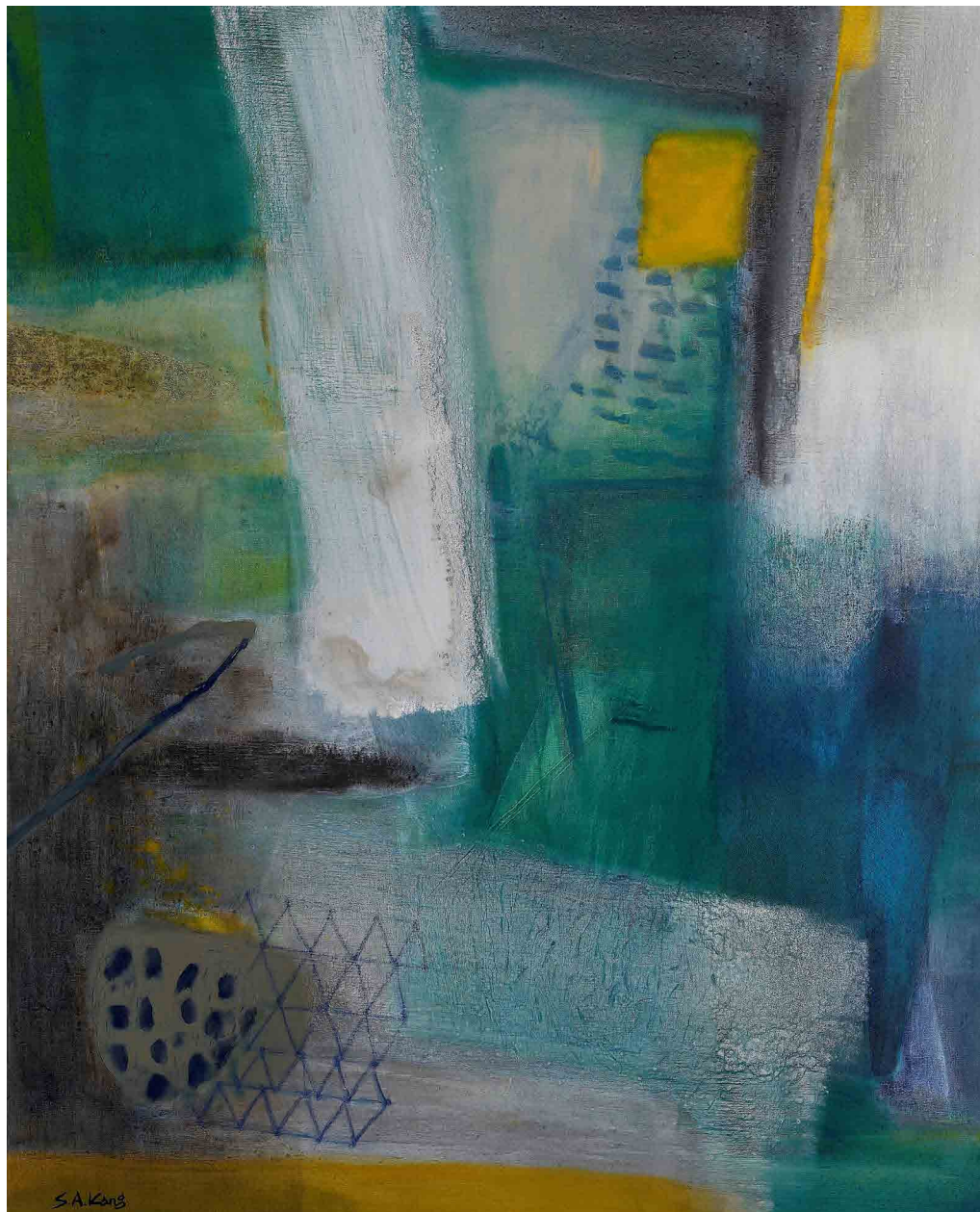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기독교미술대전 심사위원
강남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모란미술대전 서양화 심사위원장
현재, 한국수채화작가회, 상형전 한국여류화가회

graduated from college of fine art.
EWHW WOMANS UNIVERSITY
solo exhibition : 25 times
An Examiner of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he Chairman of the Awarding Committee of
"Gangnam Art Exhibition"
The Chairman of the Awarding committee of "Moran Art Exhibition"
present) korean Woman fine Artist Association



빛(light), 73x61cm, mixed media on canvas, 2015



축복(blessing), 163x130cm, mixed media on canvas, 2014

Kang, Yang Soon
강양순



개인전 29회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 50여회
행주미술대전 대상 및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한국미술협회 이사 및 한국수채화협회 이사 역임
현재, 도시문화공공예술협회 이사, 송파미협 자문

The 29times Solo Exhibition
The 50times Biennials and Art Fair
The 10th Haengju Art Exhibition & Competition Grand Prize
Korea Art Association Art Competition Special Selected
Judge of The Korea Art Association Art Competition
Director of Korea Art Association steering committee
Director of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Director of Urban Culture Public Art Association / Songpa Artist Association Consultant



Healing Forest III, 162.2X 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time and space - in may,
162.2x112.1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Blessing II, 162x112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캔버스를 가만히 마주하다보면 짙은 푸른 숲속을 여행하는 한 마리 새가 되기도 하고 해가 높이 선 맑은 날엔 화병의 꽃이 되어 백색소음을 만끽한다.

어딘가를 달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어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소리를 시간과 공간에 가득 채우기도 한다. 그리고 따뜻한 달이 동실 떠오르면 사랑을 고백하는 생명들의 소리를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채 엿들을 것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리고 그림을 본다는 것. 현실적인 문제들은 항상 내 삶에 회색을 덧칠하려 무던히 애를 쓰지만 최소한 그림을 마주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항상 꿈의 시간과 공간들이 나를 기쁘고 반가이 맞아줄 것을 알고 있다.

Kang, Choul Gee
강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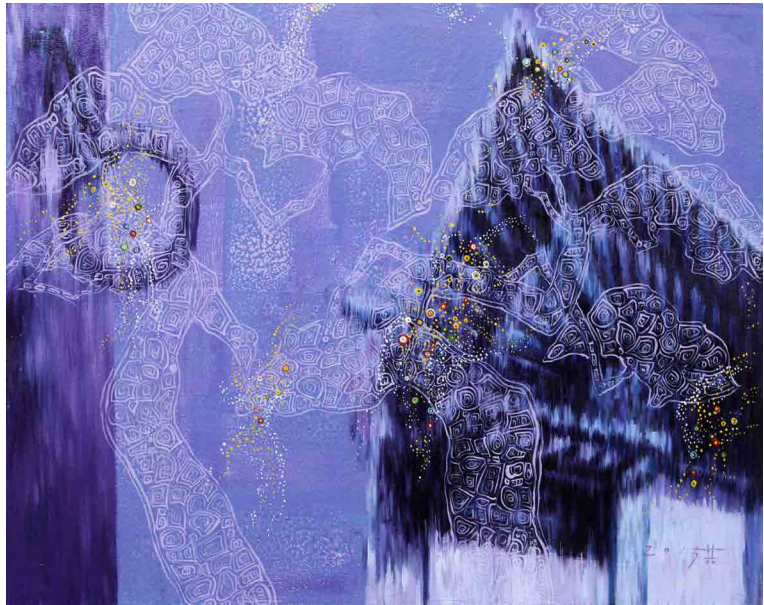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 졸업
중앙대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서양화 졸업
개인전 25회
단체전 및 기획초대전 500여회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광화문아트포럼 운영위원 등

B.F.A. in , Chugye University, Western Painting Department of Art
M.F.A. in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Department of Formative Arts, Western Painting
25 individual exhibitions
More than 500 group exhibitions and planning invitations
Present, he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Chugye Arts University.
Members of the Korean Art Association, Gwanghwamun Art Forum,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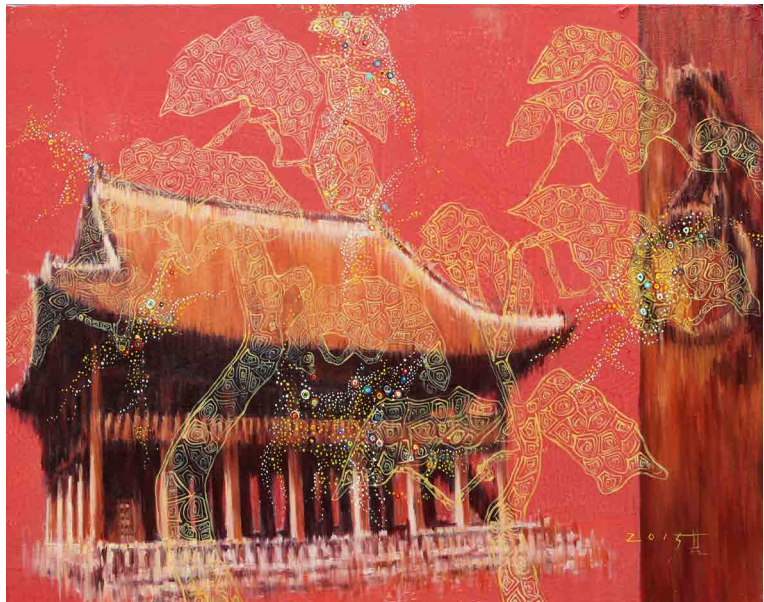
마주보기-광화문, 140.2x86.2cm, oil on canvas, 2017



마주보기-궁, 30호, oil on canvas10, 2015



마주보기-궁, 20호, oil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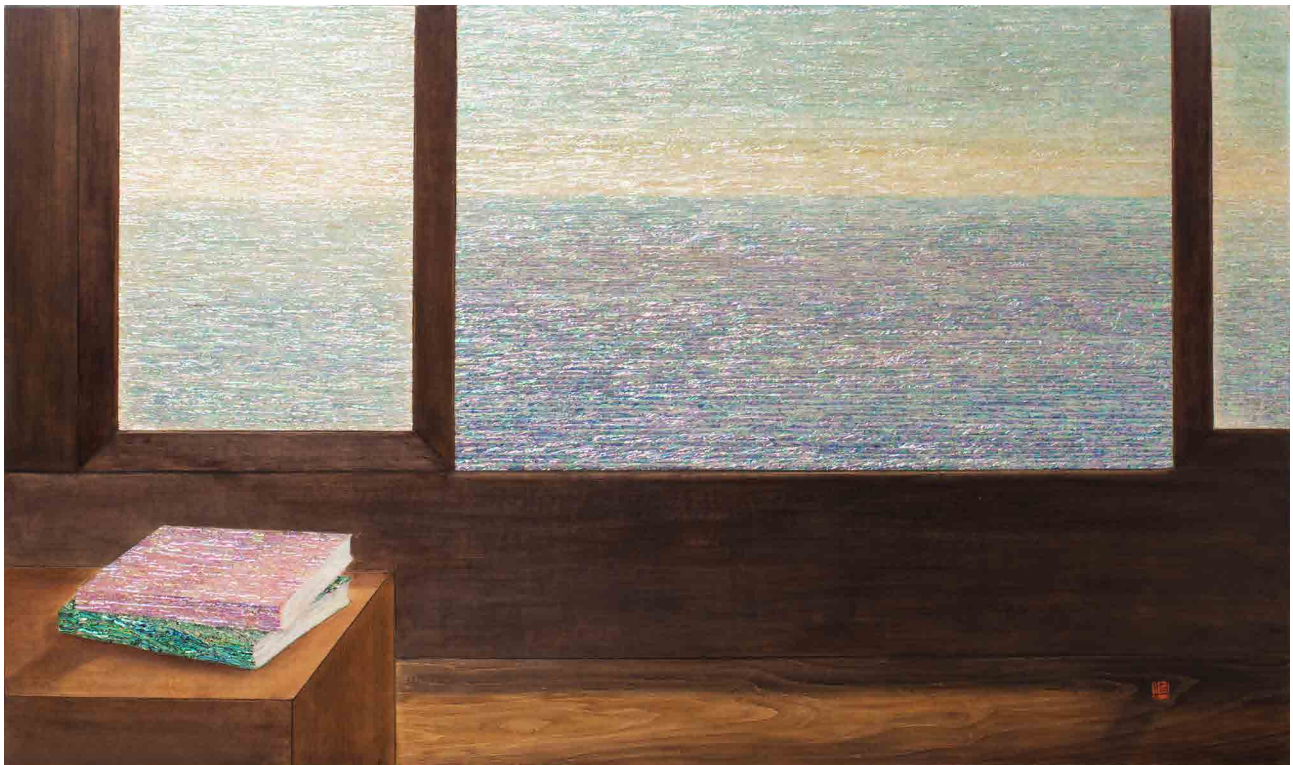
Kim, Duck Yong
김덕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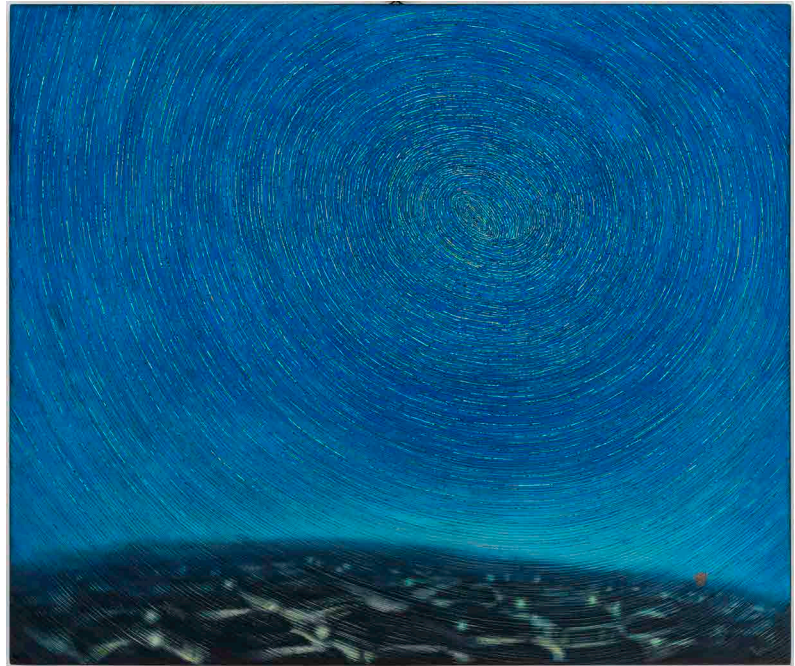
2021 귀소- 빛과 결, 나마갤러리(서울)
2020 오션 랩소디, 솔루나 파인아트(홍콩)
2018 결-사이간, 소울아트스페이스(부산)
2017 오래된 풍경, 이화익갤러리(서울)
2016 코리아아트나우, 수잔일레이파인아트(뉴욕)
2013 김덕용전, 켄지타키갤러리(나고야, 일본)

2021 Homing -The Light and Grain, Lama gallery (seoul, korea)
2020 Ocean Rhapsody, Soluna Fine Art(Hong Cong)
2018 Grain-Between, Soul Art Space (Busan, korea)
2017 An Old Scenery, Leehwaik Gallery, (Seoul Korea)
2016 Korea art Now II, Susan Eley Fine Art (New York, USA)
2013 Kim Duck-Yong, Kenji Taki Gallary (Nagoya,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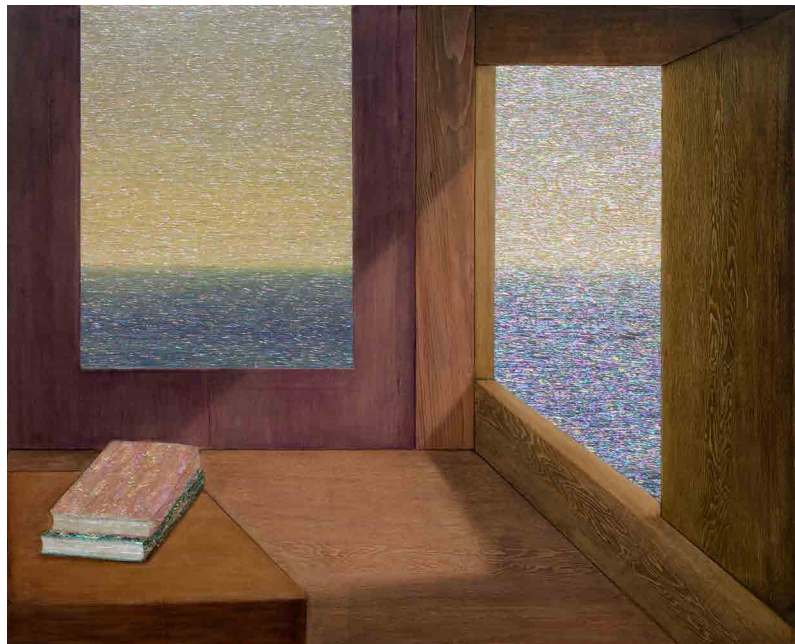
차경-귀소, 100x170cm, 나무에 자개, 혼합기법, 2017



심현의공간, 120x142cm, 나무에 자개, 혼합기, 2021



차경-귀소, 130x160cm, 나무에 자개, 혼합기법, 2020



Kim, Dong Hee
김동희



2018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박사 졸업
개인전 11회
현재, 인천대학교 미술대학 강사

M.F.A. in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 of Oriental Painting
11 Solo exhibitions
Present, Instructor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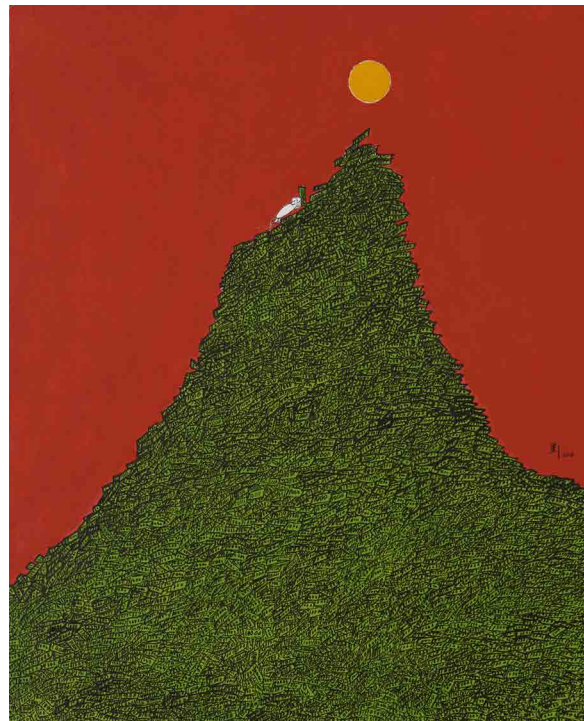
Steal II, 61x72cm, 장지에 채색, 2019



돈의 풍경은 도시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도시는 자본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의 집약이 만들어 낸 곳이 도시이고 사람, 자본, 도시
 세 개의 거대한 덩어리들의 공존으로 우리들의 삶의 풍경이 형성되어진다.
 도시에서 인간들의 풍경을 찾던 작가의 시선이 돈의 풍경으로 옮겨진다.
 인간들은 도시를 이루고,
 도시는 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돈의 풍경은 곧 사람들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보면 돈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보인다.
 쌓는 것에만 의미를 둔 돈의 풍경은 우리들의 삶의 풍경을 나타내 준다.

치즈모으기, 65x53cm, 장지에 채색, 2019



산 IV 장지에 채색 57x130cm 2019

Kim, Sun Joo
김선주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9회, 아트페어 4회
기타 그룹전 60회 이상
서울패션모드 직업학교 외래교수 역임
이서전, 벚전, 가치전 회원

B.F.A. from the College of Fine Art, Ewha Women's University
M.F.A. form Graduate School, Ewha Women's University
9th Invitational Solo Exhibition, 4th Art Fair
Group Exhibition about 60th
Seoulmode vocational school adjunct instructor,
Member of Eseo/ Friends/ The Value



꽃바람,바람, 162.2x130.3cm, Acrylic on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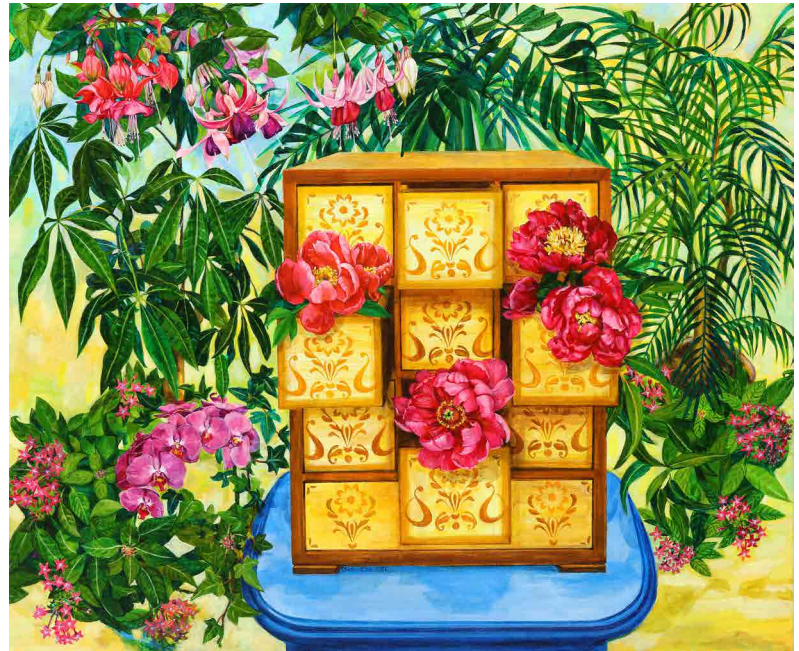


나를 생각해주세요, 60.6X72.7cm, Acrylic on canvas, 2021

나에게 가는 길

나의
봄은 화려하고 · 여름은 눈부시며 · 가을은 아름답고
그리고 겨울은 따뜻하게 오색찬란한 희망으로 빛날 것이다.

오늘도 꽃을 한가득 담아
희망 그 이름으로 한 걸음 다가간다.



기억의 서랍, 60.6X72.7cm, Acrylic on canvas, 2021

김영삼
Kim, Young Sam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17회 (서울, 광주, 뉴욕, 상해, 광저우)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심사위원장역임
동아미술상 수상 (동아일보사)
목우회,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현재, 대전대학교 겸임교수

Graduated from Dong-guk University of Education
17th individual exhibition (Seoul, Gwangju, New York, Shanghai, Gwangzhou)
Korea Art Exhibition Organization. Acting as chairman of the operation
and review committee
Dong-A Art Award
Mokwoohoe,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rt Association
adjunct professor at Daejeon University



기억 저편, 67x68cm, 수묵, 2021

念...1, 69x139cm, 수묵,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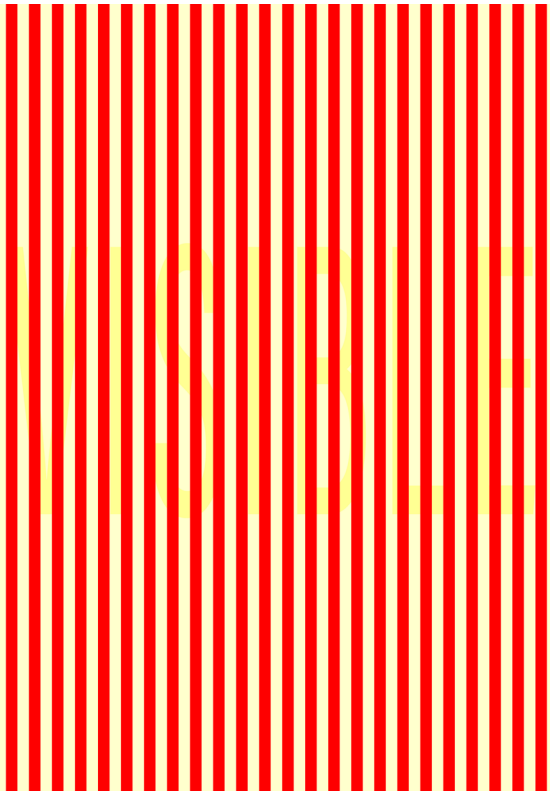
김영훈
Kim, Yong 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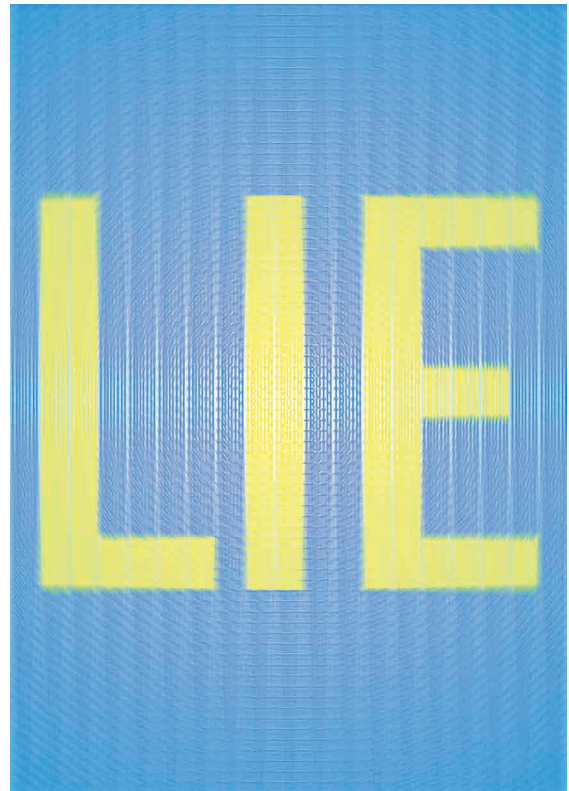
대한민국 미술대전 본상 수상.
샤프(SAFF).미술가상 수상.
국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IDM) 비주얼(visual)부분 금상(Winner) 수상.
부산국제아트페어 초대작가진.
경덕진(景德鎭)국제예술특별전 초대작가진.
국제 디자인 'design & Vision'프로젝트 초대진.

Korea Art Exhibition won the main prize.
Sharp (SAFF).Award for Best Artist Award.
Winner of the International Global Design Awards (IDM) Visual Award.
Busan International Art Fair's first artist exhibition.
Kyung Deok-jin International Exhibition on Arts, the first artist's exhibition.
International design 'design & vision' project invitation.

작품 내용은 사물에 보이는 종종,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시간을 조금 들어보면 내재된 다른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섬세하고 명확하게 그의 작품세계에 표출되어 간결하게 표현한 시리즈 작품들이다.



VISIBLE Yet Invisible, 227.3x181.8, 타이포그래피, 2021



True, Yet Lie, 227.3x181.8, 타이포그래피, 2021



Far, Yet Near, 116.7x91cm, 타이포그래피, 2021

Kim, Won Kyung
김원경



성신여대 미술대학 및 대학원 졸업
개인전 및 부스전(국내외)21회 및 국내외기획초대전 450여회 출품
국내외 공모전 다수회 수상 및 입상
성신여대 명지대 관동대 서일대 강사역임
현재, 한국미협 가톨릭미협 성신동양화회 한국화여성작가회 한국화진흥회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
협회 회원

Graduation from Sungshin Women's University of Fine Arts and Graduate School

21 individual exhibitions and booth exhibitions (domestic and foreign)

More than 450 exhibi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lanning invitations

Multiple awards and prize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s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Kwandong University, Seoil University.

Currently, a membe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merican Catholic Associations

Sungshin Oriental Painting Association Korean Painting Women's Association Korean

Expression and Art Psychology Consultation Association



고향길(자연섬리), 73x91cm, 한지, 혼합수성물감, 2021

< 고향길 (자연섭리) >

전남 화순군 이 고향인 남편의 마을이 중심이 되고 근처에 운주사 천불천탑, 고인돌 유적지와 신석기시대 유물 출토지가 있다. 단색으로 자연풍경과 단순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 모든 것이 자연 섭리로 이루어졌다.

<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다 (자연섭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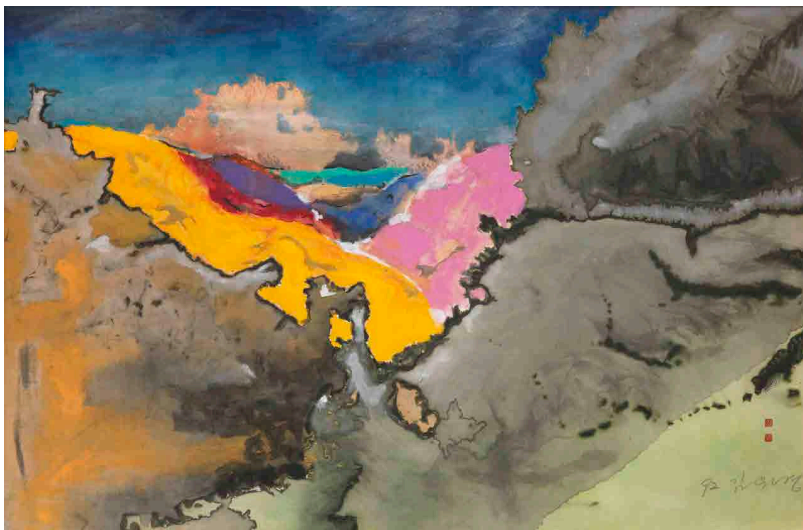
2016년 가을 30일간 800km를 완주하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례길의 한 부분을 선택하여 표현한 것. 마음을 색상으로 표현되었고 물고기는 신앙적인 상징으로 꽃들은 나 자신으로 그리면서 하느님과 함께라는 것을 의미한다.

< 백두산천지(자연섭리) >

천지의 생각은 사진으로 상상했지만 2009년도 백두산천지에 도착해서 천지물 등정 호수물을 손에 적시면서 보고 느낀 것을 미리 그렸다는 것, 상상력이 자연섭리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다(자연섭리), 73x91cm, 한지,혼수성물감, 2021



백두산천지(자연섭리), 100x65cm, 한지,혼합수성물감, 1992

Kim, Yoon Soon
김윤순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7회

국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학미전 출품,
KIAF, 화랑미술제, 부산 아트페어, 경주 아트페어, 시애틀 아트페어, 뉴욕 아트페어, 중국 웨이하이 아트페어 출품

국내외 그룹전 다수회 출품 (서울, LA, 동경, 베를린, 뉴델리, 러시아)

현재: 한국화진흥위원회, 진명미술협회, 성신동양학회, 가톨릭미술가회,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원

B.F.A/ M.F.A Collage of Fine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7 times solo Exhibition

Korean National Exhibition/ Korea Fine Art Exhibition (Seoul, Korea)

A number of Art Fairs (KIAF, Galleries Art Fair, Art Fair in Busan, Kyungju, Seattle, New York and Weih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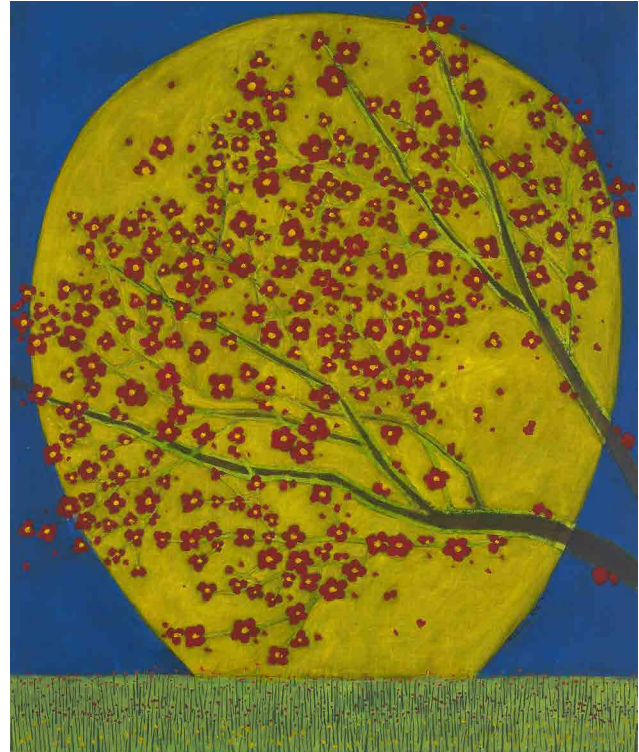
A number of Domestic &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Seoul, LA, Tokyo, Berlin, New Delhi, Moscow)

Multiple participation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Jin Myung/ Sung Shin/ Catholic Exhibition/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The Women`s Association Korean Painting



빛으로 나라 45.5x53cm Acrylic on Canvas 2019



봄의시작 72.7x60.6cm Acrylic on canvas 2019



일일서정 72.7x91cm Acrylic on Canvas 2021

김은정
Kim, Eun Jung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95, 호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조각과 졸업
개인전 : 1996서경갤러리, 2009경희궁미술관, 2011노암갤러리, 2017갤러리이즈,
2018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단체전 다수, 2018년 23회 광주우아트페어, 2019년 광주아트페어, 2019년 조각페스타,
2019년 파리 POUR LUI
홍익대, 성신여대, 한양여대, 여주대 강사 역임

1990 B.F.A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of sculpture

1995 M.F.A Graduate school of Fine Art sculpture

Solo exhibition: 1996 gallery Seokyeong, 2009 Seoul museum of art kyunghee branch,
2011 gallery Noam, 2017 gallery Is, 2018 Seoul Arts Center

Group Exhibition: 1990-2019

2018, 23rd Guangzhou Art Fair, 2019,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Guang gu Art Fair, Paris POUR LUI

Education and Training: Part-time instructor, Hong-ik Univers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Hanyang women's University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개개의 존재이유와 개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이길 바란다.



I AM-1, Fabric, stainless steel wire, 2018



Present, 100x70cm, Fabric, pin, 2019



Urban People, 52x78cm, Fabric, pin, 2021

김은주
Kim, Eun Ju



개인전 10회, 단체전 300회 이상
파리가람아트 초대기획전
제 3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서울국제 미술 대상전 심사
현재, (사)서울미술협회 부이사장

10 individual exhibitions and more than 300 group exhibition s
Paris Art Invitation Exhibition
Review of the 31st Korean Art Exhibition
Seoul International Art Awards Review
Currently, Vice President of the Seoul Art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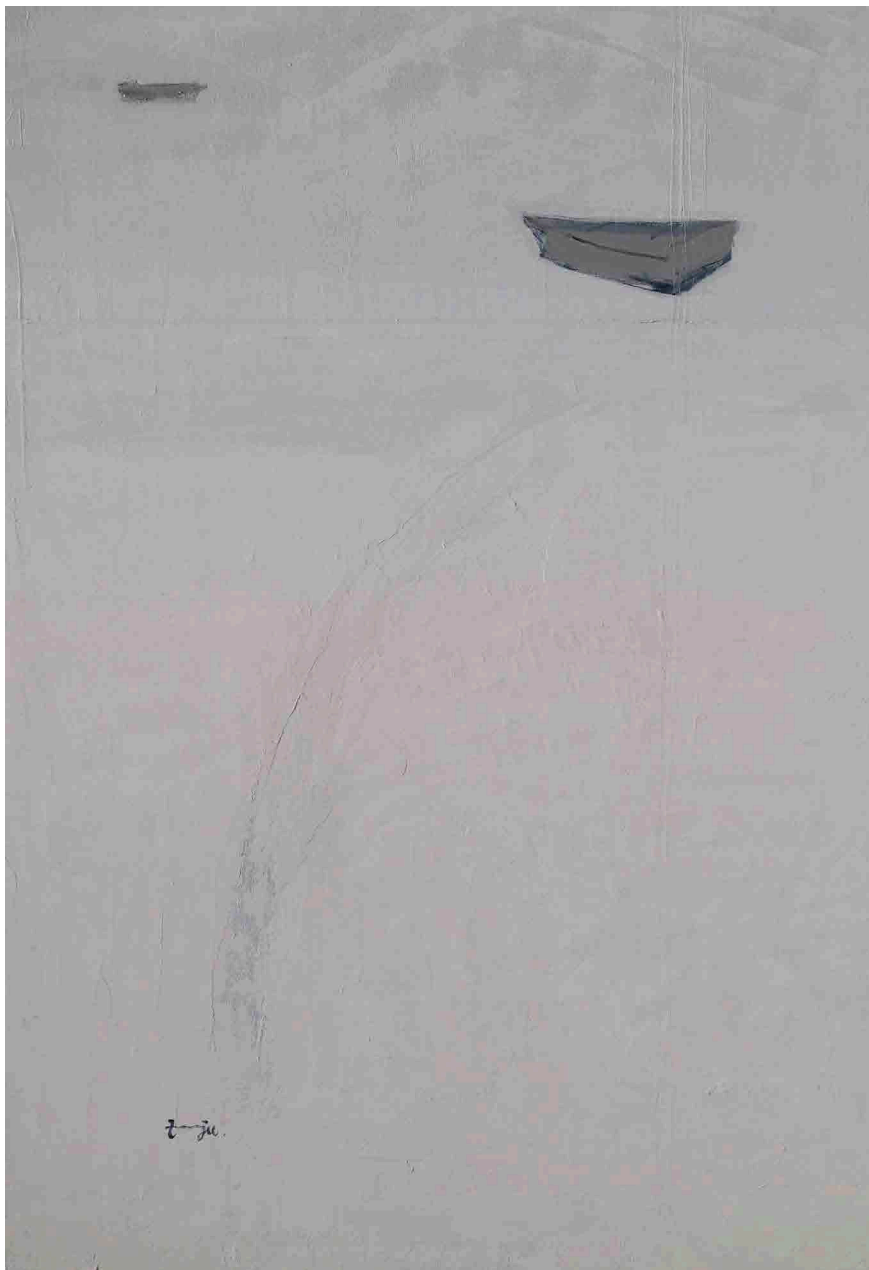
세월- 흐름, 6호, 유화, 2021



오르세 미술관에 걸려있는 마네의 '올랭피아'를 보면서 창녀의 직업을 무표정으로 그려내어 - 음탕하고, 진부해 보일 수 있는 것을 다 물어버리게 표현한 것이 '올랭피아'를 최고의 작품으로, 걸작으로 만들었듯이,

나는 내 그림 속 바탕 속에 커커이 한올 한올 붓질로 색을 여러 번 입혀가며 배가 갖는, 바다가 내포 하고있는, 인간이 갖고있는 삶의 애환들을 하나씩 묻어놓고 그 위에 배를 그려낸다. 인생을 그려내듯이.

단순하게 삶을 바라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림을 보면서 사색을 할 수 있는 깊은 울림도 주고 싶고, 큰 틀에서 서로 작가와 보는 이가 생각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싶은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



세월- 흐름, 100호, 유화,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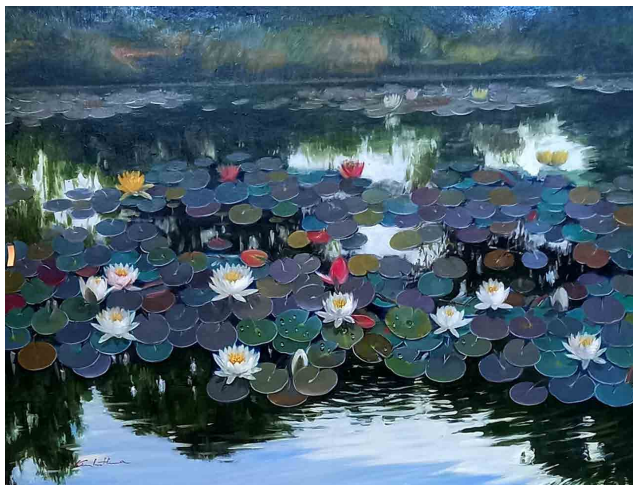
Kim, In Hwa
김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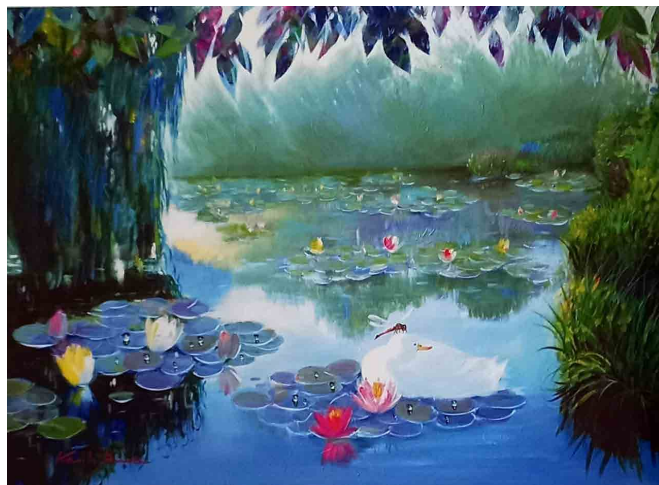
서라벌예대(현, 중앙대 미술대학) 졸업
개인전 15회 (조선일보미술관, 서울갤러리 외)
Art Fair(스페인, 홍콩, 중국상해·북경, 뉴욕, 모스크바, LA Art Fair 외)
1982, 88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2007 한국구상미술대전제전 특별상 수상
대한민국 미술인상 (장리석미술상) 수상

Bachelor's degree - Seorabeol University of the Arts (Present: Chung-Ang University)
Solo Exhibitions (15Times) - Chosun ilbo Museum, Seoul Gallery etc.
Art Fair - Spain, Hong kong, Shanghai, New York, Moscuba, L.A, Beijing Art Fai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Spcial Prize 1982, 1988
2007 Art Figuratif Spcial Award.
Korean Artist Awards. (Chang Ree-Suck Fine Art prize)

연꽃은 진흙 수렁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청정하게 피어나는 꽃이다.
내가 연꽃을 친근하게 여기고 자주 그리는 까닭은
연꽃의 고운 꽃잎에 눈길을 모아 오묘한 빛깔과 자태를 느끼게하며,
끝없는 생명에 빛을 발하고 있는 물방울과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잠자리들로
하여금 마음에 평온을 가져오게 한다.



수련, 145x97cm, Oil on canvas, 2020



수련(모네의 정원), 90.9x65cm, Oil on canvas, 2015



설악산, 162x112cm, Oil on canvas, 2021

김정혜
Kim, Jung Hae



200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개인전 6회
2016 PLAYCE Art236 은상 수상
2017 제3회 사랑아트기독미술공모전 대상 수상

B.F.A.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Western Painting
6 individual exhibitions
2016 PLAYCE Art236 Silver Award winner
Grand Prize at the 3rd Love Art Christian Art Contest 2017

'타오르다' 시리즈는 열정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열정은 정말 필요한 것이면서도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또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자칫 광기가 되어 점점 자신을 소멸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다.
뜨겁게 타오르지만 자신을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건강한 열정, 뜨거우면서도 동시에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열정을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 시리즈에서는 털 또는 갈기가 꿈꾸다 시리즈에서의 풀 대신 불꽃처럼 표현되고 있고 강렬함과 동시에 평온한 모습을 담았다.



타오르다(올빼미), 65.1x50cm, oil on canvas, 2021



타오르다(독수리), 65.1x50cm, oil on canvas, 2021

타오르다(여우),
162.2x130.3cm, oil on canvas, 2021



김제민
Kim, Jei Min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

개인전 2016 <Into Drawing: 원더 풀 라이프>(소마 드로잉센터, 서울) 등 12회

단체전 60여 회

2010 오스트리아 그라츠 론도 레지던시 참가

작품소장: 진천군립 생거관화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등

현재,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ine Ar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FA, Painting and Printmak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2 solo exhibitions including Into Drawing: Wonder-pul Life, 2016

60+ group exhibitions

Rondo Artist-in-Residence program, 2010, Graz, Austria

Collection: Jincheon Printmaking Museum, Art Bank, Park Soo Keun Museum



무심한 풍경, 90.9x72.7cm, acrylic on linen, 2021

풀이야말로 자연의 완벽한 드로잉이고, 나는 그저 그것을 따라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콘크리트 벽과 아스팔트, 다양한 소재의 인공물을 배경으로 유기적인 선을 그리며 뻗어나가는 풀은 마치 종이 위에 자유롭게 그려지는 드로잉의 필선을 닮았다. 인공과 자연은 그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함께 공존한다.

그 생생한 ‘드로잉’의 현장을 내가 다시 드로잉한다.

식물이 고정되어 있는 듯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드로잉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 속에 자리잡은 풀이 끊임없이 영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것처럼, 나의 드로잉도 영역과 경계의 초월을 지향한다.



무심한 풍경, 65x90.6cm, acrylic and Korean ink on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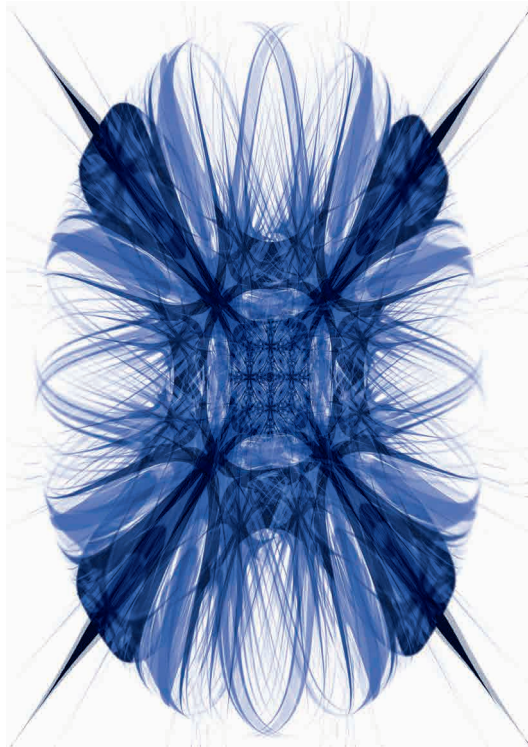
무심한 풍경, 65x90.6cm, acrylic and Korean ink on canvas, 2021

김지현
Kim, Jee 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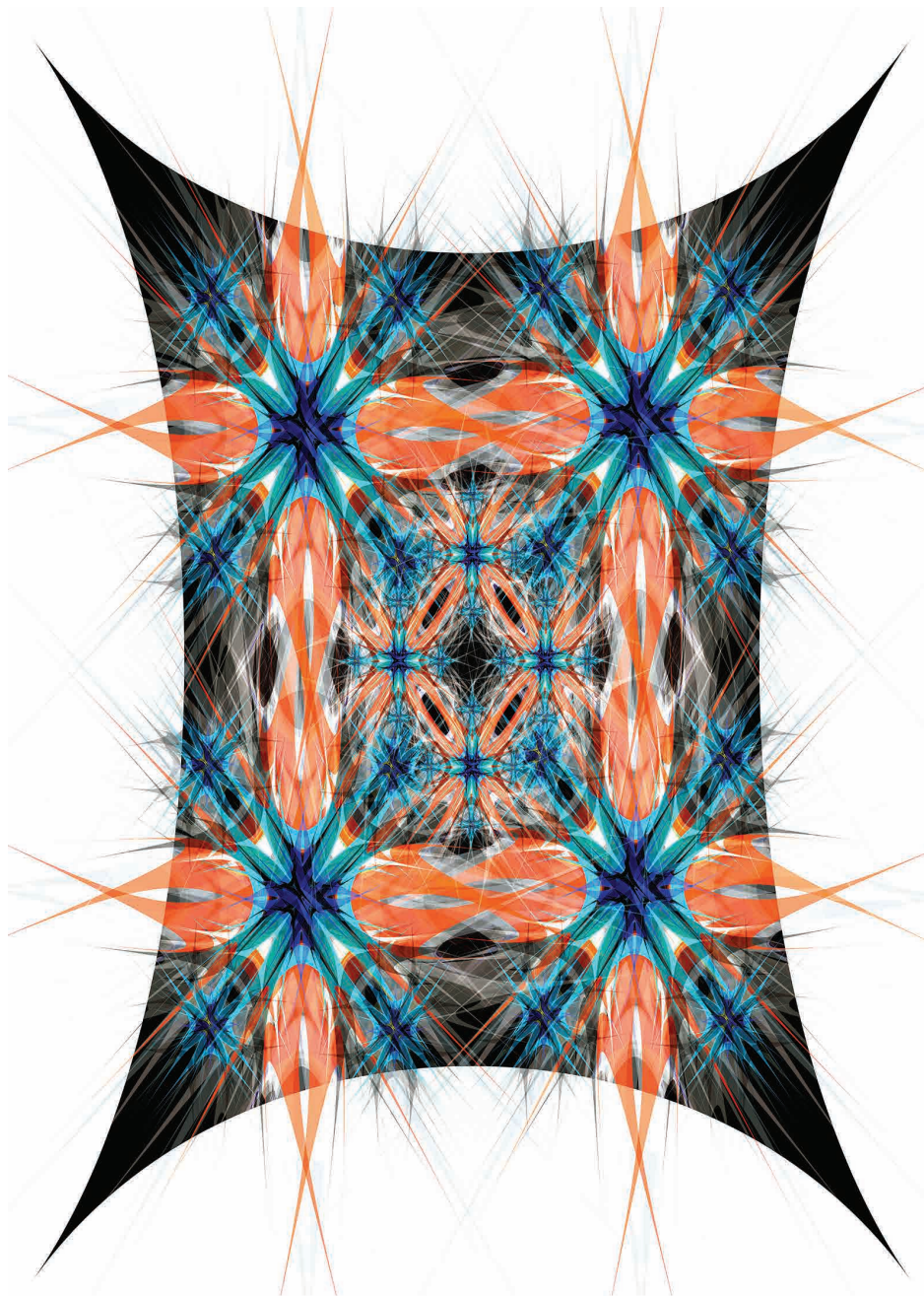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미국 이스턴미시간대 미술학과 MFA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연구교수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회장
한국기조조형학회 회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장, 디자인대학장

BFA, College of Finr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MFA, Eastern Michigan University, USA
Research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USA
President,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President,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Dean, College of Art, College of Design



Transformation of Alphabet 3, 59.4x84.1cm, Computer Graphic



Transformation of Alphabet 1, 59.4x84.1cm, Computer Graphic

김지현
Kim, Jee Hyun



성신여자대학교 미술학 박사

개인전 19회

(갤러리오나루키, 가모갤러리, 갤러리한옥, SIA NY, 안상철미술관, 갤러리 그림손, Galerie Pont des Arts 등)

MANIF, KIAF, 화랑미술제, Seattle Art Fair, ART ASIA, 대구아트페어, 상하이아트페어 등 다수 아트페어 및 단체전 참여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Ph.D i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 Korea

Solo Exhibition 19th times

(Gamo gallery, Hanok gallery, SIA NY, Museum of Ahn Sang Chul , Galerie Pont des Arts, Cultural Center Embassy of Korea in Shanghai etc)

MANIF, KIAF, Galleries Artfair, Seattle Art Fair, ART ASIA, Shanghai Art Fair etc.

Present Adjunct professo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Lecture at Sungshin woman's University, Director Of FINE Arts Labora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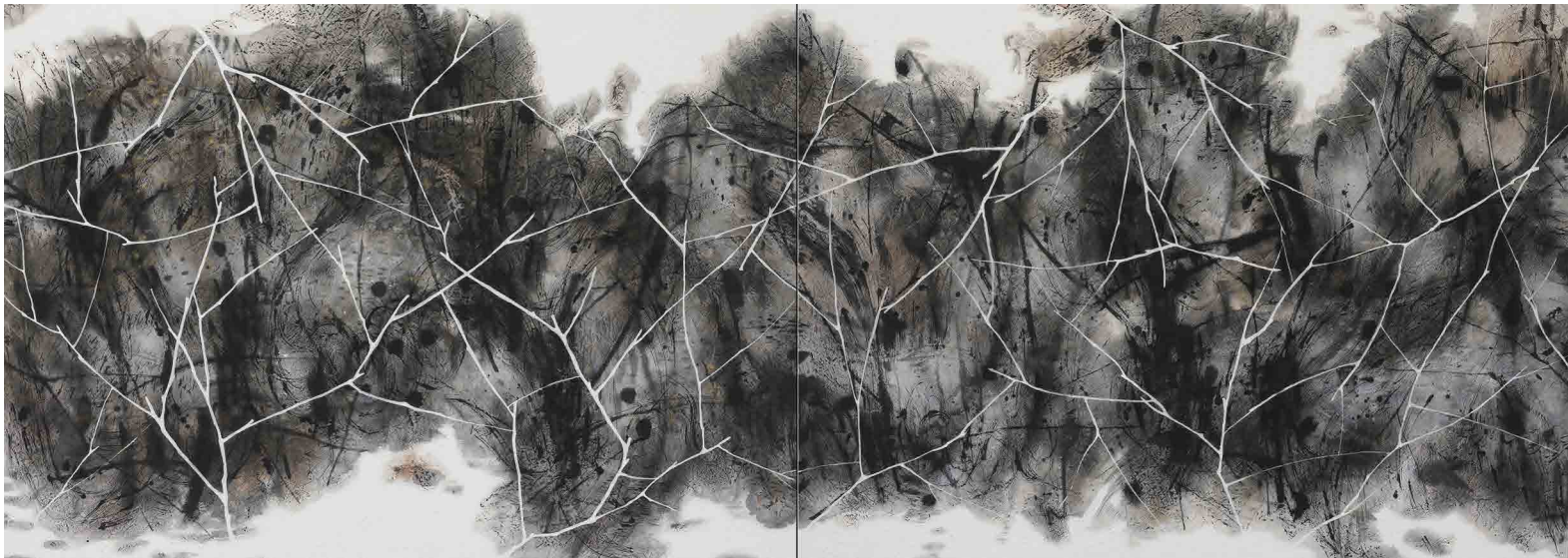
Traces (좌)

120x170cm, 천에 수묵 채색, 금분, 메탈리프, 목탄, 혼합재료, 2020



Traces (우)

120x170cm, 천에 수묵 채색, 금분, 메탈리프, 목탄, 혼합재료, 2020



Traces, 120x340cm, 천에 수묵 채색 금분 혼합재료, 2019

김지현은 천을 주된 화면으로 삼아 그 표면 위에 자연에 대한 자신의 내밀한 기억을 이미지화 했다.

눈이 아니라 뇌와 마음이 간직한 자연의 표상인 셈이다. 자기 몸 속에 저장된 자연의 이미지를 하나씩 길어 올려 풀어놓은 형국이다.

그러니까 시각에 의한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몸과 의식이 기억한 자연의 총체적인 느낌을 질감과 자취로 각인한 그림인 셈이다. 부드럽고 깊이를 간직하며 수축과 팽창의 효과를 지닌 천의 질감과 느낌이 한 축에 서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먹과 색채의 흔적이 마구 얼룩져있다.

그녀는 깊은 숲의 내부로 걸어가 올라다 본 자연의 모습을 그렸다. 자신의 몸이 원형으로 회전하면서 더듬고 걷고 스치고 받아들이고 이내 기억이 되고 양금이 된 것들을 천에 적셔서 건져 올렸다. 마치 광목천의 피부에 자연에서 받은 느낌을 염직한 동양화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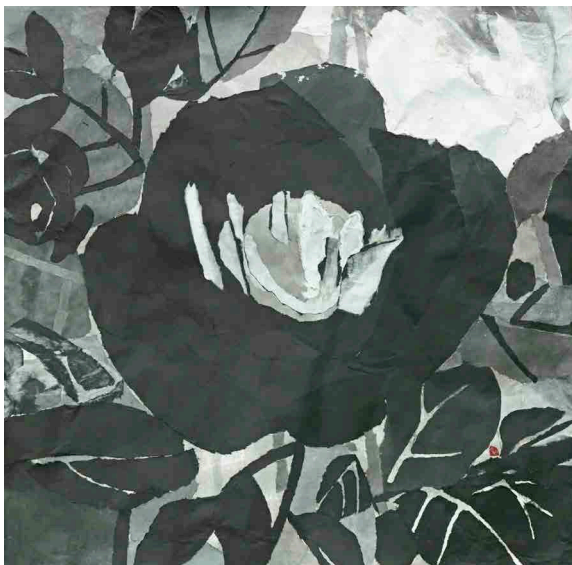
(박영택, 미술평론, 경기대학교수)

김춘옥
Kim, Chun O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개인전 63회
옥관문화훈장 수훈 / 대한민국 대통령
예총문화예술 미술부문 대상 수상
현재, 사)한국화진흥회 이사장

B.F.A. Seoul National Univ.
M.F.A. Sejong Univ.
63 times of Solo Exhibitions.
Ockwan Cultural Medal Awarded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echong Cultural Award for Fine Art,'Grand Prix
The President of Korean Painting Association



무위자연, 146x143cm, 한지,채색한지,먹, 2020



무위자연, 162x130cm, 한지,채색한지,먹, 2021



무위자연, 61x70cm, 한지,채색한지,먹 2020

자연도 우리의 삶도 관계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나와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 친구와의 관계, 소속된 공동체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 즉 자연으로 일컬어지는 하늘과 땅과 물, 비, 바람 등 모든 것과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의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인연, 이모든 것의 관계가 세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함으로 나의 미적 감각은 형성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과 “관계성”이 우리들 한국인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미감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인들만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움, 즉 외국인들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미적 감흥을 나는 “한국의 미”라고 여기며 이를 화면에 구현하고자 한다.

Kim, Hyun Sook
김현숙



개인전 15회
아트페어 (취리히 아트타이페어 상하이 베를리너리스트 시애틀 KIAF MANIF)와 국내외 초대,
단체전 460여회 (1980~2021)
제주도립미술관장
한국미협제주도지회장
제주대, 성신여대 강사 역임

15times Solo Exhibitions
Art Fairs (Zurich, Art Taipei, Shanghai, Berliner Liste, Seattle, KIAF, MANIF)
Exhibited in more than 450times special and invited exhibitions in Korea and overseas
from 1980 to 2021
Served as the Director of Jeju Museum of Art,
Chairperson of Korea Fine Arts Association Jeju



화란춘성-침묵하는봄, 68x68cm, 한지에 채색,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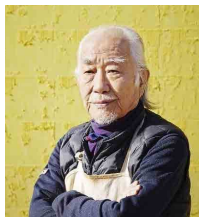


그 꽃, 75x90cm, 한지에 채색,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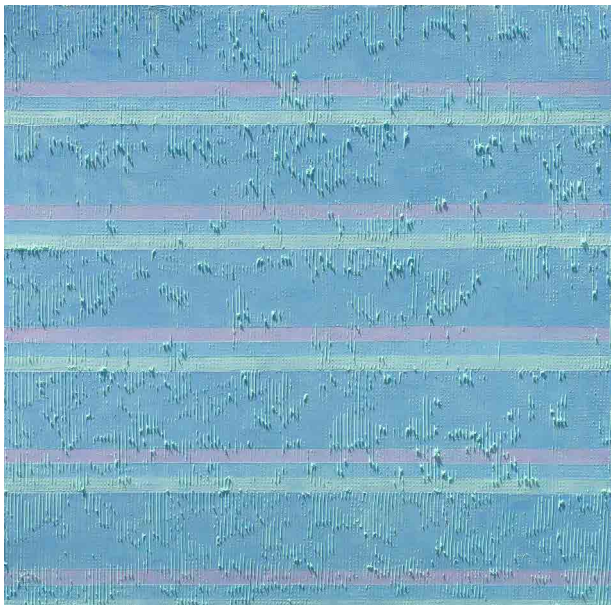
초록 , 46x54cm, 한지에 채색, 2021

김형대
Kim, Hyung 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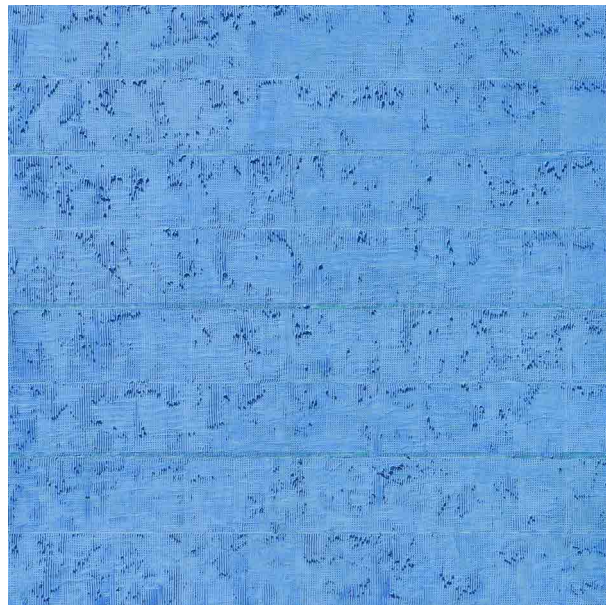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21 전남수목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2018 'KIAF 아트페어', 코엑스
2017 '한국정신전', Art Veras Gallery, 스위스
2016 '한국현대미술 작가 시리즈, 김형대 회고전',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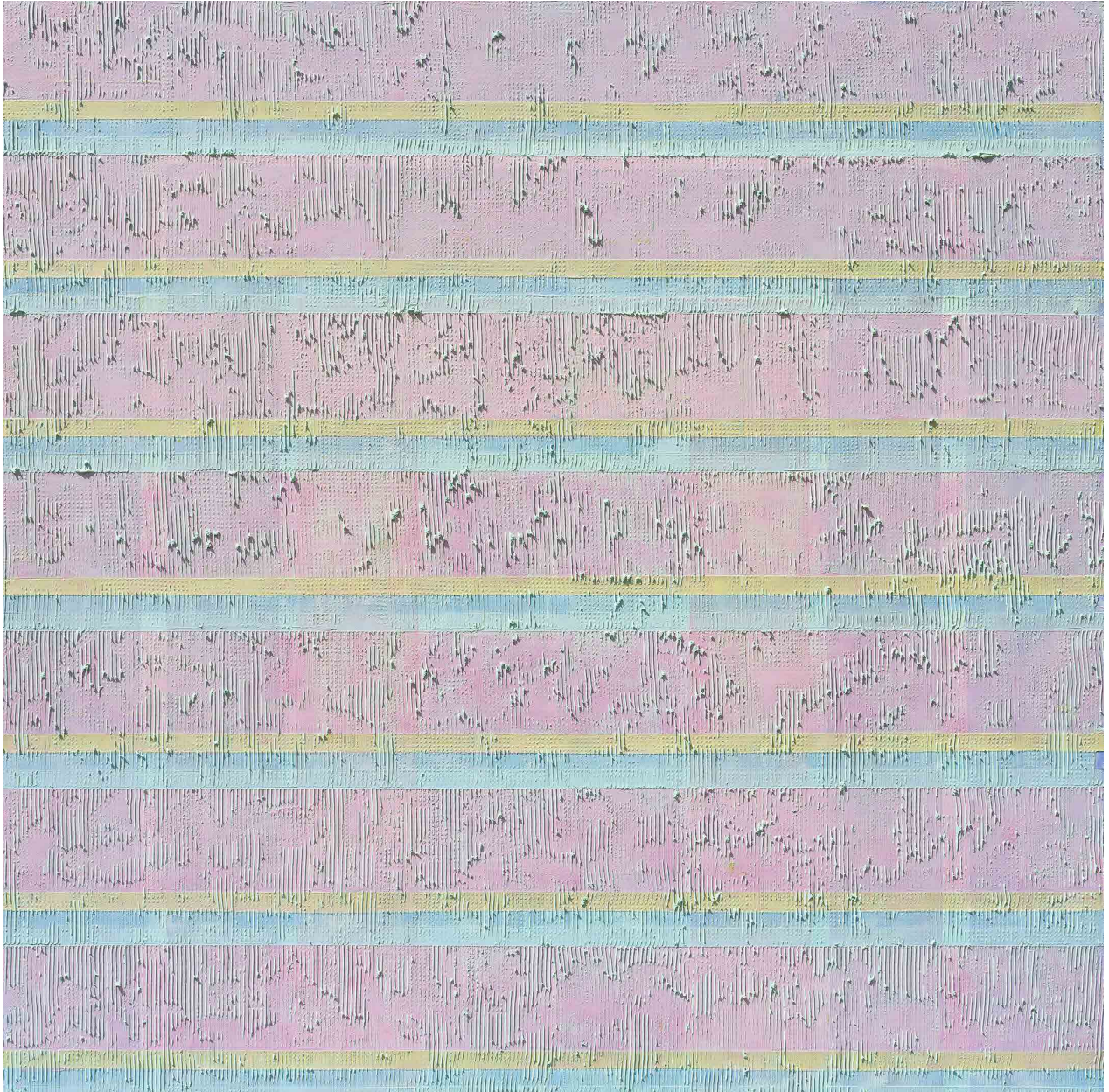
B.F.A in Painting, Seoul National Univ.
2021 2021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Mokpo
2018 'KIAF Art Fair', COEX
2017 'The Spirit of Korean Painting', Art Veras Gallery, Switzerland
2016 'Korea Modern Artist, Retrospective Exhibition of Kim Hyung Dae', MMCA Gwacheon
Served as Judge of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The emeritus professor of Ewha Women's Univ.



HALO, 100x100cm, Acrylic, 2021



HALO 21-0705, 150x150cm, Acrylic, 2021



HALO 21-0508, 150x150cm, Acrylic, 2021

김홍대
Kim, Hong Dae



개인전:2020, 은기(銀器)전, 갤러리 아원
2017, 形과色, 사이아트스페이스
2014, 김홍대작품전, 아트스페이스 너트
단체전:2018, 이음진, 서울문화재단 전시장
2018, SNU빌라다르2018, 한가람미술관
2017Koreanisch, 뮌헨, 독일
현재,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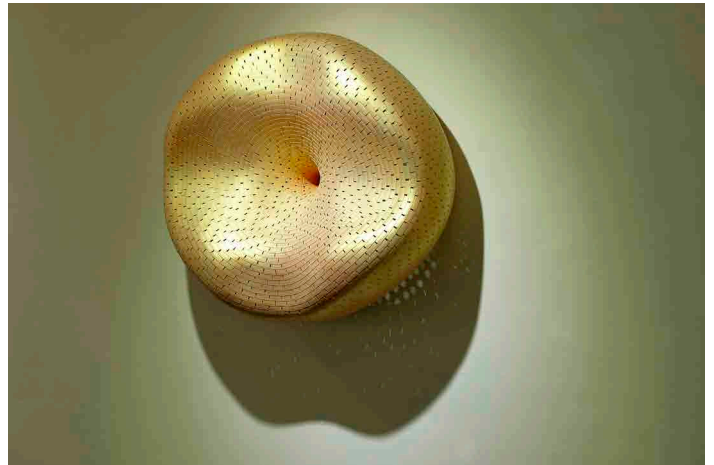
Solo Exhibition:2020,Silver Ware, Gallery Ahwon
2017,Natural Form&Color, Sayi Art Space
2014.Metalwork Exhibition, Art Space Nut
GroupExhibition:2018,Connection,Cultural Heritage Foundation Gallery
2018,SNU VILLAD'ART2018, Hangaram Art Museum
2017,Koreanisch,Munchen,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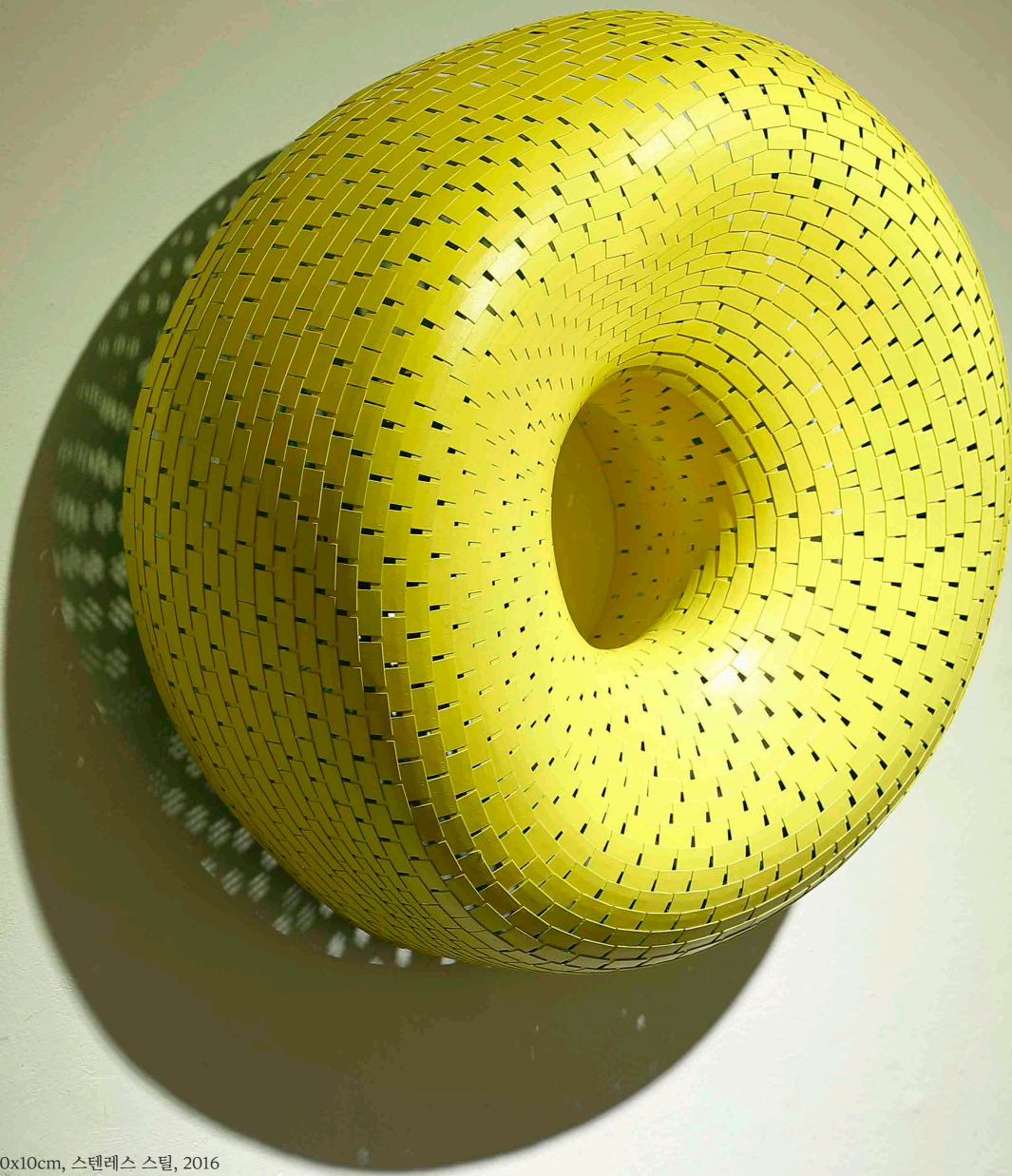
작은 금속조각을 연결하여 새로운 질서와 부드러운 곡면의 형태를 연출하고 있다.
밝은 자연의 색을 표현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분위기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形과色2, 77x15cm, 스텐레스 스틸, 2017



形과色3, 65x25cm, 스텐레스 스틸, 2017





形과色1, 60x10cm, 스텐레스 스틸, 2016

김효선
Kim, Hyo Seon



1992.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200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개인전 12회, 2인전 1회
그 외 다수의 단체전

B.F.A. in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M.F.A. in Ewha Womans University Art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12 individual exhibition, 1 double exhibition.
A number of other team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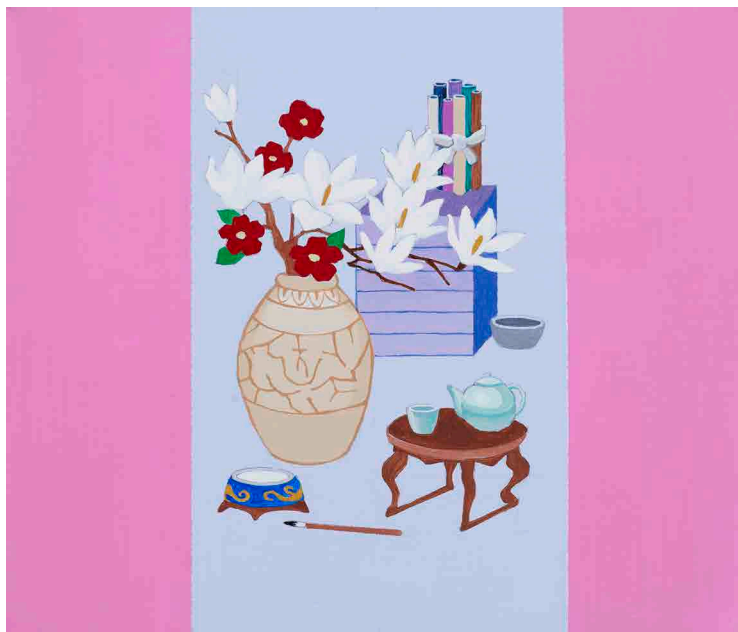
책가도는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화훼 등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각종 기물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표현 형식은 역원근법이 사용되고, 다시점 구도와 평면화법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책가도 12, 116.8x91.0cm, Acrylic on canvas, 2021



책가도 14, 53.0x45.5cm, Acrylic on canvas, 2021



책가도 15, 116.8x91.0cm, Acrylic on canvas, 2021

류경원
Lyu, Kyung Won



개인전 (29회)

2018. ANBD 국제 뮌헨 특별 초대전 / Jenseits von Asien – Museum Fünf Kontinente
- 독일, 뮌헨

2017. 제28회 국제 초대 개인전 / '염원' 展 - 한가람 미술관 - 서울 예술의 전당

2017. 제27회 국제 초대 개인전 / 'MEMORY' 展 멕시코 시티 대사관 - 멕시코 시티

2017. 제26회 삿포로 아시안 윈터게임 기념 국제 초대 개인전 - 삿포로 시티즌 갤러리 - 삿포로

2016. 제25회 서울 국제기획초대 개인전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Solo Exhibition (29th)

2018. 29th 2018 ANBD München INTER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 - München Museum Fünf Kontinente

2017. 28th 2017 Seoul International Plan Invitation Solo Exhibition

-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2017. 27th 2017 KSBDA MEXICO CITY INTERNATIONAL INVITATIONAL EXHIBITION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exico

2017. 26th 2017 SAPPORO ASIAN WINTER GAMES collaboration project

- Sapporo Citizen Gallery

2016. 25th Seoul International Plan Invitation Solo Exhibition -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춤사위 - 열정 (Dance-Passion)
28x22x60cm, 브론즈, 우레탄 도색, 화강석

작품 '춤사위'는 한복 곡선의미를 나타내는 사람이 기쁨과 행복에 춤을 추는 형태가 이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
즐거운 순간 '어깨춤이 절로 난다'는 말처럼 춤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춤사위 - 열정 (Dance-Passion)
38x24x50cm, 브론즈, 우레탄 도색, 화강석, 2021



춤사위 - 열정 (Dance-Passion)
28x22x60cm, 브론즈, 우레탄 도색, 화강석, 2021

림만선
Lim, Man Sun



국내외 초대,개인전 11회
'KBS 림만선초대전', 롯데미술관본점
'EBS 림만선초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현재,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장

11 times of Internal and External Invitation Exhibitions
'KBS Lim Man Sun', Invitation Exhibition, Lotte Museum
'EBS Lim Man Sun', Invitation Exhibition
Served as Chairman of the Screening Committee of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Present, Operation Director of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조원의 아침, 63x64x3.5cm, 벽조목



동행, 63×42×7.5cm, 벽조목

Moon, Hong Kyu
문홍규



한려대학 미술학과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대한민국한국화대전 대상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루브르특별전 최우수작가상
프랑스 ADADP 종신회원

B.F.A. in Hallyo University with a degree in art
Award for Excellence at the Korean Art Exhibition
Grand Prize winner of the Korean Painting Awards
First Artist of the Korean Art Exhibition
Best Artist at the Louvre
French ADADP lifetime member

화업 40년 동안 몇 번의 화풍을 거치는 동안 나만의 특수한 기법을 찾아서 다양한 구상을 해 오던 중 이번 전시작품은 너무도 복잡한 과정이 있어 잠시 중단하였으나 이번 전시를 기회로 완성하였다.



새벽기도 가는길, 112.1x145.5cm, 한지죽, 2021



무제, 112.1x145.5cm, 한지죽, 2021



사랑의 계절, 112.1x145.5cm, 한지죽, 2021

박가나
Park, Gana



1989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개인전 10회

문화공간 김담/서울, 느루갤러리/강진, 이화아트갤러리/서울, 한옥갤러리
서울, 로스토프-온-돈/러시아

그룹전 40회 이상

서울아트쇼, 싱가포르 아트페어, 안산국제 아트페어

현재, 이사회, 벗전, 가치전, WE8285, 이화 기록미술인회원

1989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 (B.F.A) Seoul, South Korea
SOLO EXHIBITIONS

Gildamspace gallery, Seoul, Korea / N:Ru gallery. Gangjin-gun, Korea

Ewha art gallery. Seoul, Korea / Art gallery Hanok, Seoul, Korea

Don State Public Library, Rostow-on-Don. Russia

GROUP EXHIBITIONS

Art Fair. Seoul art show. coex. Seoul, Korea / Singapore Art Fair, F1 PIT Building,

Singapore / ANSAN INTERNATIONAL ART FAIR Ansan Arts Center Ans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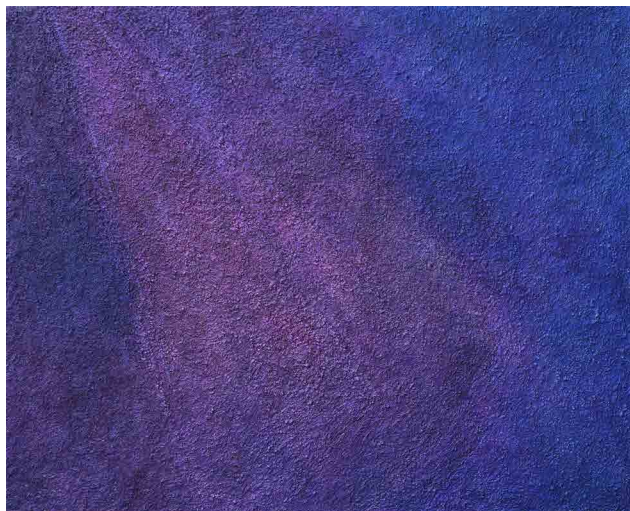
Members of EWha FINE ART Association, 'Friends' Exhibition, The 'Value' Exhibition,

WE9295, EWha Christion Artist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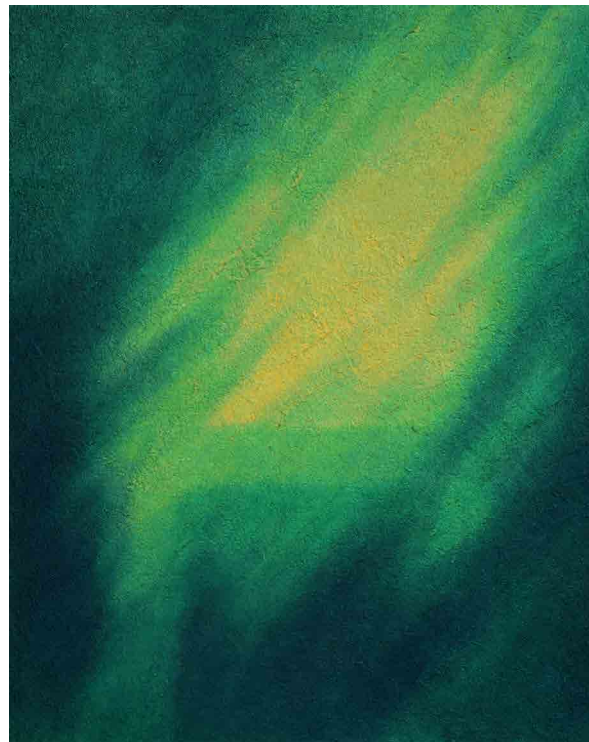
우리의 삶이 늘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의 하늘빛 작업은 새로운
내일에 대한 바람이며 그 어딘가로 나를 인도하는 여정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하늘빛 작업 The colour of the sky 는 행복여행 시리즈 중 하나이며 눈을 들어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 빛을 마음에 담고 눈에 담아 작업으로 풀어지니
이 또한 큰 감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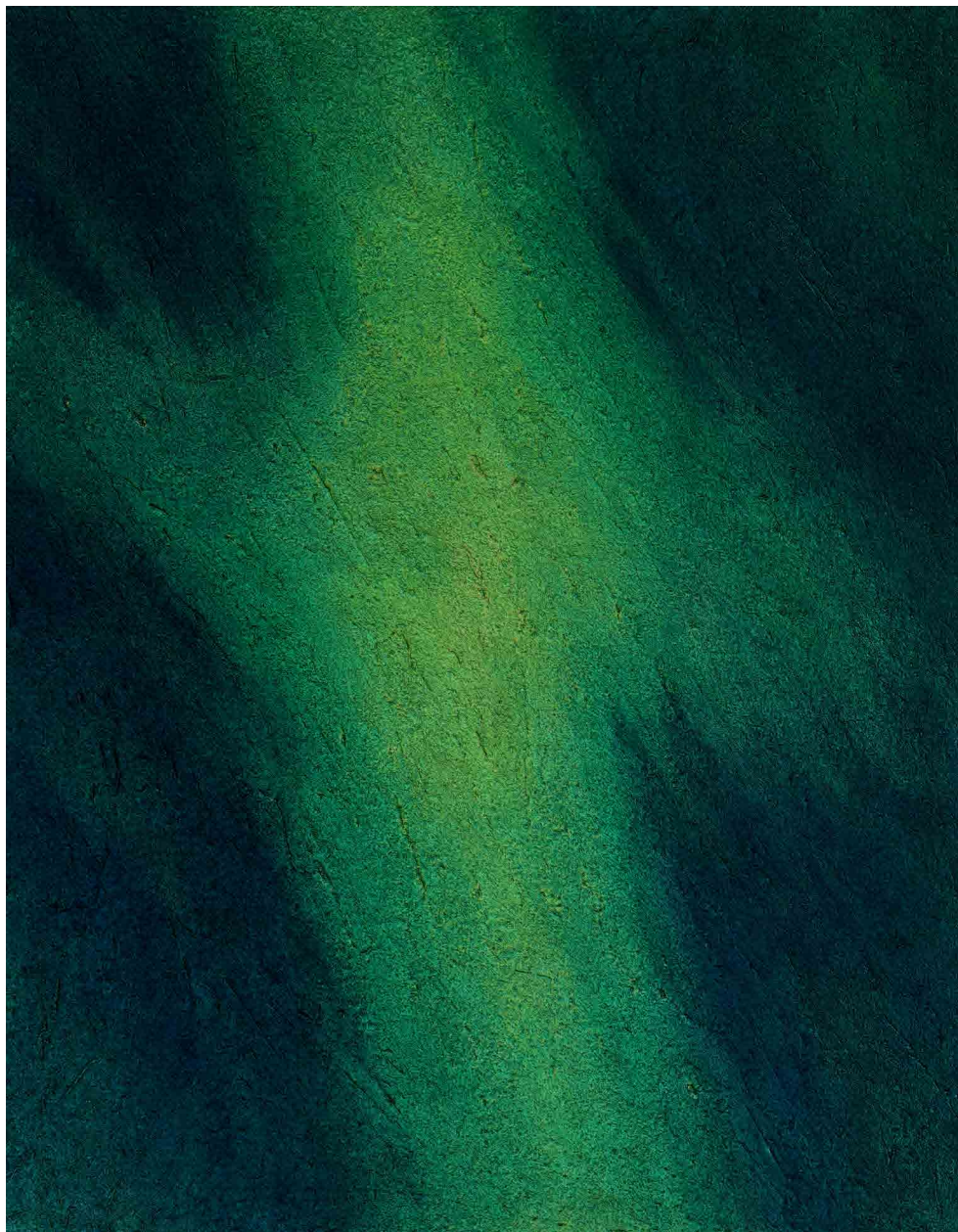
참 아름다워라 주님 지으신 세상...



빛으로 오신 성령님(The colour of the sky)
130.3cm x 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울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The colour of the sky)
162.2x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1



고난의 십자가(The colour of the sky)
162.2×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박경희
Park, Kyung Hee



개인전 및 부스전 20회

28회대한민국미술대전특선,목우회전,남농미술대전등11회 수상

키아프,화랑미술제,부산아트페어,대구아트페어,광주아트페어,베이징아트페어,GIAF광화문아트페스티벌,여의도광장아트페스티벌,롯데호텔페어,A&C아트페어,안산아트페어등과 여러 단체전,초대전,협회전200여회참여.

현재, 광화문아트포럼,신작전,예문회,강서미협,전업미술가협회,버질아메리카협회 등

20 individual exhibitions and booth exhibitions

28th Korea Art Exhibition Special, Throat Right, Namnong Art Exhibition, etc. 11 awards Participa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such as Kief, Hwarang Art Festival, Busan Art Fair, Daegu Art Fair, Gwangju Art Fair, Beijing Art Fair, GIAF Gwanghwamun Art Festival, Yeouido Square Art Festival, Lotte Hotel Fair, A&C Art Fair, Ansan Art Fair.

Currently, Gwanghwamun Art Forum, New Operations, Examples Meeting, Kangseo American Association, Full-time Artists Association, Virgil American Association, etc.



나비야 놀자-아가페사랑, 65.1x90.9, oil on canvas, 2020

우리가 사람과의 교감을 넘어 다른 동물과 소통한다면 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인간친구만이 아닌 동물친구가 있어 마음을 나누고 인간의 이기심이 누그러진 그 자리에 동물과 자연과의 공존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아름답아질 것 같아요.

이 세 작품은 마네,마티스,피카소작품을 오마주 작업한 것입니다.



나비야 놀자-식사시간, 80.3x80.3, oil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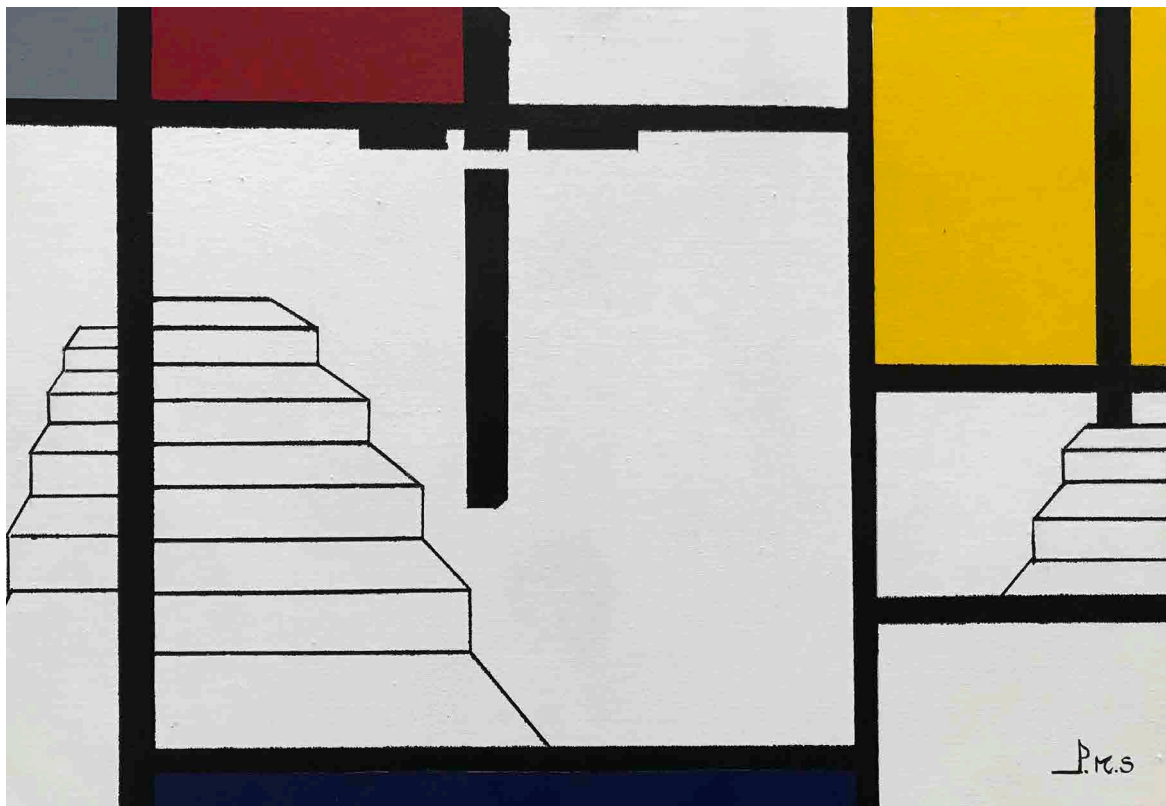
피리부는 소년과 고양이, 65.1x90.9, oil on canvas, 2020

박미숙
Park, Mi Sook



성신여자대학교미술대학 서양화과졸업, 홍익대학교미술대학원 회화과졸업,
성신여자대학원 미술학 박사수료.
개인전 9회. 400여회단체전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업(서울,안산,능곡,부산,제주 등)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회화과 겸임교수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in Western Painting,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 and Painting,
Ph.D. in Fine Arts from Sungshin Women's Graduate School.
9 individual exhibitions. 400 group exhibitions and works on public art projects
(Seoul, Ansan, Neunggok, Busan, Jeju, etc.)
Present, an adjunct professor of painting at Baekseok University of the Arts.



Jesus appearing in the masterpiece, 90x73cm, acrylic on canvas, 2021



Jesus appearing in the masterpiece, 56x120cm, acrylic on canvas, 2021



가천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2001~2010)
르살롱/살롱땃상(그랑팔레, 파리)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COEX, 서울),
화랑미술제(COEX, 서울)
마이에미 외 해외 전시 다수
현재,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광화문 아트포럼 회원

Gachon University Adjunct Professor(2001~2010)
Art en Capital (Le Salon, Salon du Dessin). Grand Palais / Paris
KIAF(Coex, Seoul), Korea Galleries Art Fair(Coex, Seoul)
Scope Miami Beach 2018. Miami / US
GIAF Organizing Committee, Gwanghwamun Art Forum Membership



C 10.0-209, 60.6x60.6cm. Mixed media. 2020



C7.0-505, 45.4x53.0cm, Mixed media,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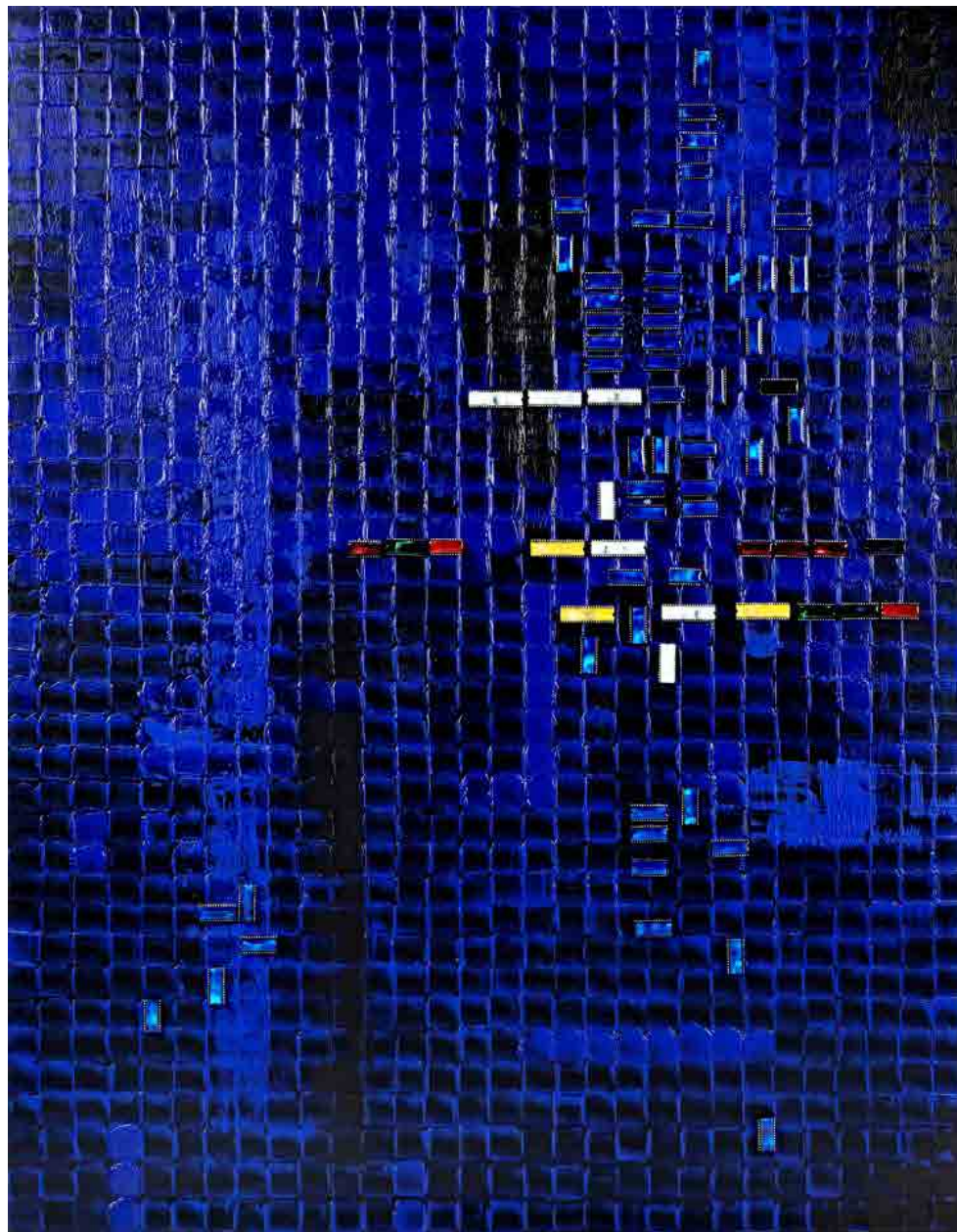
나는 작품을 할 때 자연의 형태를 거부하거나 비대상의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남들은 나를 추상화 작가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추상화 작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에 대한 애정과 전통에 대한 관심, 특히 기독교 신앙관이 나의 조형적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고유한 작품 세계가 내가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이다.

나의 작품은 모노크롬 회화를 보는 것 같지만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이 달라지고 색감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은 홀로그램과 반도체 소재 때문이다.



C8.0-216, 116.7x91.0cm, Mixed media, 2021

박성기
Park, Sung Ki



1994 건국대학교 졸업
1995-1999 4년간 인테리어학원강사역임
1999년 6개월간 유럽 배낭여행
2000-2002 “나무를깎는사람들”공방운영
19-20 광화문포럼에서 실시한 전시참가

Konkuk University Graduated in 1994.
Iwas an instructor at an interior academy from 1995 to 1999.
Backpacking Europe for 6 months in 1999.
2000-2002 workshop operation.
Participation in the exhibition held at the Gwanghwamun Forum in 19-20.



전체적인 형태는 독립된 점/선/면으로 공간을 형성하고 그 공간의 한 면이 테이블의 상판을 받치는 형태이다. 여기서 최소한의 장식으로 형성된 점과 다른 점을 잇는 선은 가장 단순한 직선을 사용하고, 직선 3개로 허공에 형성된 최소한의 지지점을 가진 삼각으로 무한의 면을 가진 원이라는 형태의 가장 단순한 도형을 받치는 형태로 마감을 하였음.
단순한 직선이 가진 방향성과 기능 이외의 유일한 형태를 가진 중간의 느티나무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회전이라는 성향을 연출하고자함.





회(回), 60 X 60 X 80cm 2개1set, 느티나무, 적동, 강화유리, 2019시작-2021제작완료

박소영
Park, So Young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및 同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미술교육전공 박사졸업
개인전 15회

2021 유어산수(遊於山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초대전, 서울
2020 Strolling in Nature: 山水를 노닐다, 아트스페이스퀼리아 초대전, 서울 外
국내외 아트 페어 및 단체전 다수
현재, 고려대, 국민대, 서울교대에서 강의

B.F.A. & M.F.A. in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Ph. D in Art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s 15times

2021 'Relaxing and Strolling within Nature', Hoam Faculty House, Seoul

2020 Strolling in Nature, Art Space Qualia, Seoul

Group Exhibitions many times

Present: Lecturer, Korea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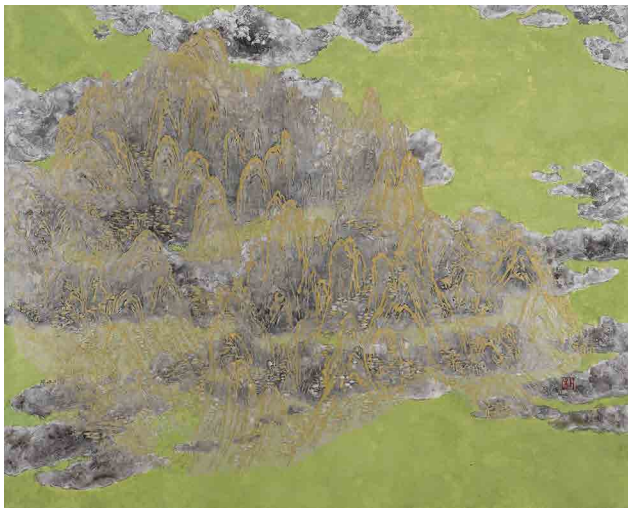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나의 작업은 야외를 거닐면서 영감을 받아 자연과 우주에 대한 명상과 사색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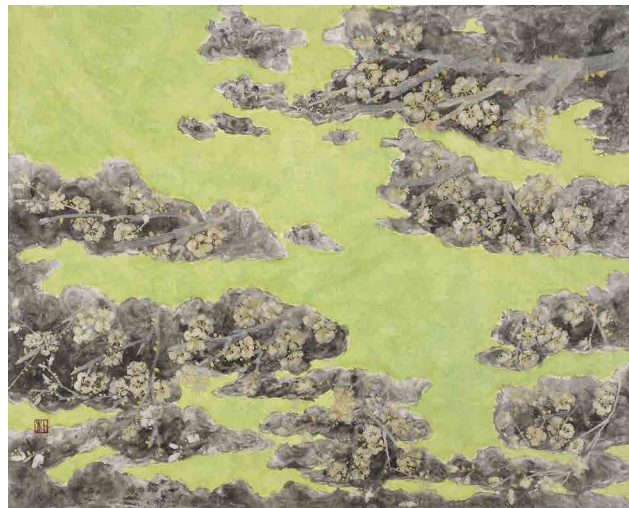
자연 안에서의 사색과 명상을 통해 소요유(逍遙遊)하고자 하는 그간의 작품 연계선상에서 전통적인 산수화를 재해석한다.

정선의 금강산에서 전통적인 산수화의 전형을 찾아내고 이 과정에서 나의 느낌과 감각으로 이를 다시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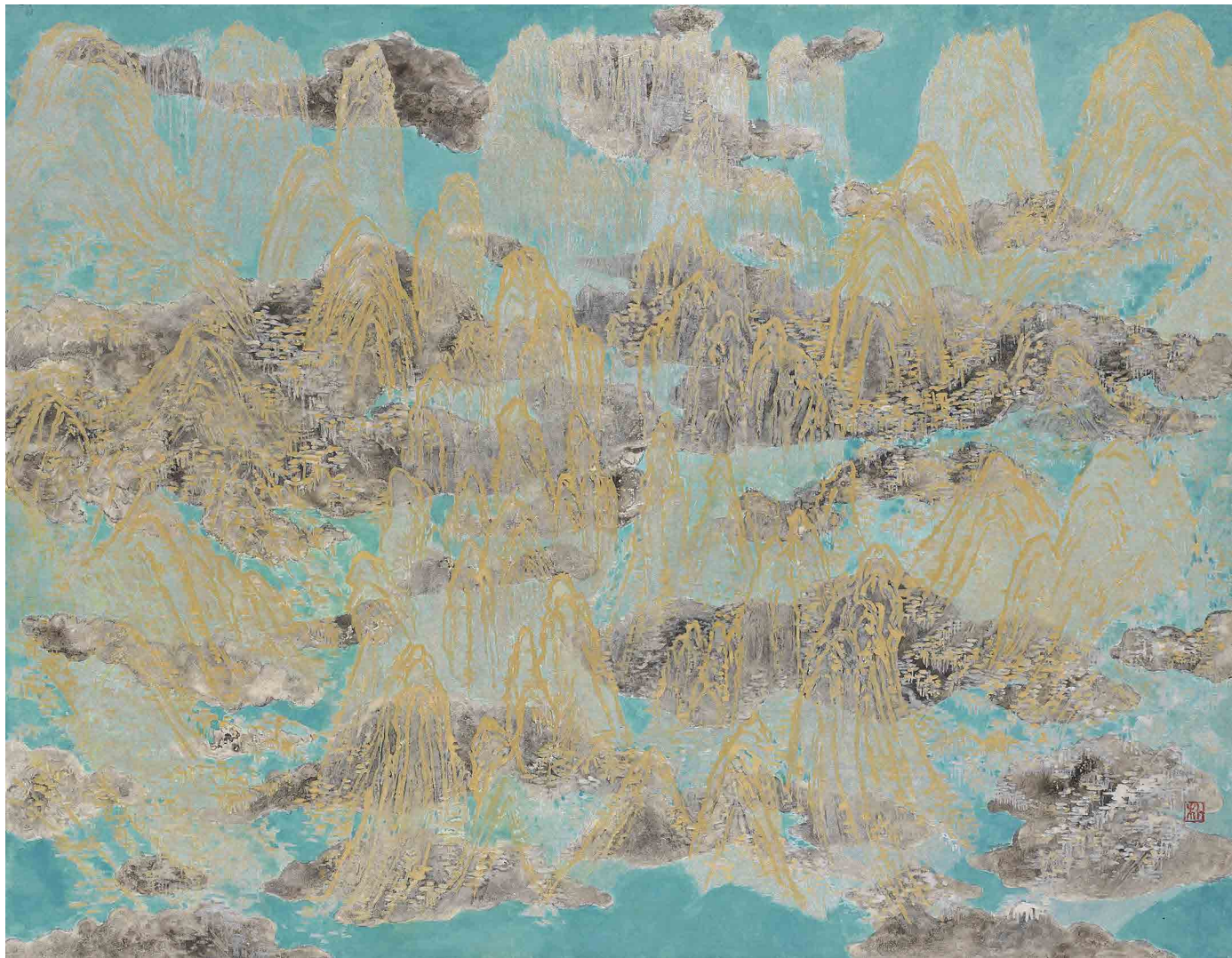
더불어 구름에 흘러가듯 꽃 핀 매화를 하늘에 드리운 작품은 자연 안에서 거닐고 노닐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



유어산수(遊於山水), 80.3×100cm, 장지에 수묵, 안료, 2021



梅花-구름에 흘러가듯, 72.7×91cm, 장지에 수묵, 안료, 2021



유어산수(遊於山水), 91x116.7cm, 장지에 수묵, 안료, 2021

박영인
Park, Yong In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Academie de la Grand Chaumiere, Paris
개인초대전 45회
현대미술초대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국제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제9회 대한민국 미술인의날 미술인상, 서양화본상 수상

B.F.A. in Western Painting, Hong-ik Univ.
Academie de la Grand Chaumiere, Paris
45 times of Solo Exhibitions
Contemporary Art Invited Artist Exhibition, MMCA
Seoul International Contemporary Exhibition, MMCA



백조의 성, 10F, 2021



세느강변, 10F



암스테르담-2, 50P

박지오
Park, Gio



2010 한국미술 작가상 대상수상
2012 한국구상대제전 특별상 수상
2017 한국예술상(미술부분)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 이사, 전문위원

2010 Korean Artists Grand Prize Award Commemorative
2012 Art Figuratif & Seoul-Korea Grand Special Prize
2017 Awarded Korea Art Award(promotion·Association)
Chairman of The Awarding Committiee for Korean Contest for Fine Art
Member of Korea Art Association
Korea Art PRICE Appraise Association Expert Advisor



모란 I (In the name of Love),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5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언어를 보여주는 작가

박지오의 풍경은 정경에 대한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풍경들이 지닌 내면적 함의, 즉 눈으로 읽을 수 없는 행간(行間)의 모습과 뜻을 담아내고 있다.

그 풍경들은 무척 인간적이고 인생적이다. 수려한 자연 풍광이나 화려한 도시풍경이 아닌, 서민적인 거리풍경, 즉 인간의 삶이 서로 섞이고 녹아드는 애환의 정경을 담아 내고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화면은 낮익고, 마치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다. 작가적 정신과 테크닉이 간잔하면서도 탄탄하게 조율되고 있는 것이 박지오 조형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서민의 낮은 풍경들이지만 거기엔 생에 대한 따뜻한 포용과 시선이 면면히 배어있다. 생에 대한 긍정적인 바라봄,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언어가 밀도 있게 엮여져 있는 것이다.

사실적인 색감보다는 자신의 심상에서 우러나는 색깔로 풍경과 사물에 옷을 입히는 그의 작업은 새로운 구상주의, 새로운 자연주의 작가로서 그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작품 평론 중에서..



한낮의 인사동, 112.1x112.1cm, Oil on canvas, 2019

박진희
Park, Jin Hee



국내의 개인전 7회, 단체전 50여회
영국 레딩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PhD)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원 순수미술 졸업 (MFA)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조교수

7 Solo Shows, over 50 Group Shows.

PhD in Fine Art,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MFA in Fine Art, Goldsmiths University, London, UK

BFA and MFA in Sculp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 Lecturer, Dept. of Fine Art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셋길, 48x7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6

시간이 재현될 때 발생하는 문제들

시간의 본질에 대한 논리적 접근은 언제나 모순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로고스의 전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난관이다.

이 이성적 사고의 틀에서는 시간의 아포리아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대신에 시각 언어를 통하여 시간의 모순성을 대립시키고자 한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영원과 무시간, 시간과 시각, 지속과 순간 등 시간의 다양한 역설적 속성들이 대립하며 도출되는 이미지는 보다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반문할 수 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재현되거나 육화될 때 야기되는 문제들을 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부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설명할 수 없고, 다같이 느끼지만 공유할 수 없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이다.



무제, 30x4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4



시간의 넓이, 30x4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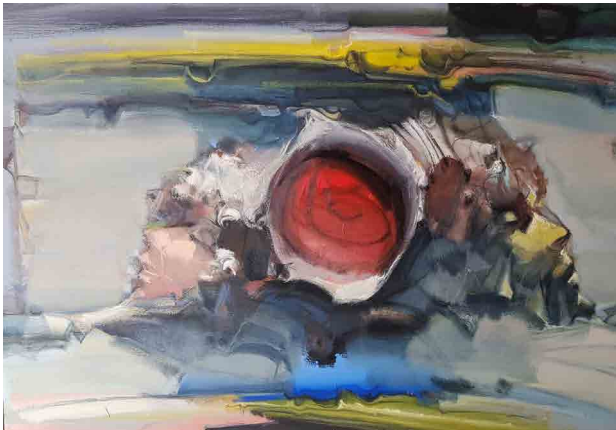
박태병
Park, Tae Byung



한국-일본 작가전, 선화랑
제41회 중부미술문화전 미술문화상, 일본
반각수 장려상 수상자전, 반각구 갤러리, 일본
일본미술문화전 장려상 수상, 동경도 미술관
현재, 일본 미술문화전 회원

Korean-japanese Artists Exhibition, Sun Gallery
Jungbu Art and Culture Exhibition, Japan
Bangakgu Encouragement Award Winners' Exhibition, Bangakgu Gallery
Japan Art and Culture Exhibition.
Won Encouragement Award, Tokyo art Museum
Present, Member of Japan Art and Culture Exhibition

자연과 바다
인간은 자연을 분해해서 파괴하려한다.
비정한 탐색가도 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을 향하여 있다.
이 장의 전부의 상태로
혼돈으로 토막토막 해부된 자연 속 바다의 세계는 인간을 만들어 냈다.
파기, 소멸, 절규라고 한다.
우리들의 미래는...



섬에서, 90.9x65.1cm, 유화에 아크릴 혼합, 2021



자연 + 위협한 유희, 193.9x130.3cm, 유화,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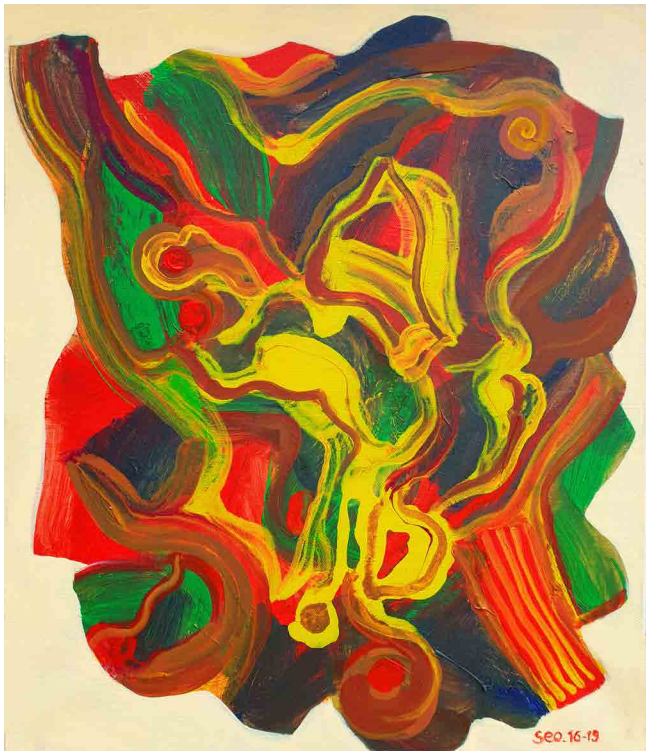
검에서, 90.9x65.1cm, 유화 아크릴 혼합, 2021

서길현
Seo, Guil Heo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파리1대학 조형예술학 박사
2021 갤러리 내일-큐브 루시다_2
2020 갤러리 담 초대전-그래도 한없이 너그러운 숨결
2020 한국경제신문 갤러리 초대전-세상의 모든 숨결
2019 금오공과대학교 갤러리 초대전-한없이 너른 숨결
2017 김세중 미술관(예술의 기쁨)-"Sacred Breath"

Seoul National University(Sculpture), Universite Paris1(Ph.D. in Plastic Arts)
2021 Gallery Naeil-Cube Lucida_2
2020 Gallery Dam-Solo Exhibition
2020 Gallery Hankyung-Solo Exhibition
2019 Gallery of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Solo Exhibition
2017 Gallery of Kimsejung-Solo Exhibition



그러나 너그러운 숨결, 53x45.5cm, acrylic on canvas, 2016-2019

살은 매 순간 경이로운 색깔로 이루어진다.
그런 순간들이 문득 형태를 얻어 되살아난다.
색은 모든 형태를 수정처럼 응결시킨다.
삶의 여러 순간을 스쳐 지나간 특이한 감각의 열기들.
기억 속으로 불러오는 세찬 바람.

모든 시간을 어루만지는 한없이 너그러운 숨결.
허기로 채운 다채로운 무늬들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마음속에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나간다.
그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 쉽 없이 넘실대는
너그럽고 신성한 세계의 숨결이다.



신성한 숨결21-2, 116.8x91.0cm, Acrylic on canvas, 2021



신성한 숨결20-3, 65.1x53cm, Acrylic on canvas, 2020

Seo, Sung Ken
서성근



개인전 13회 국내외단체전 510여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세종미술관)
일한회화교류전(일본 고베 기타노자)
상해 아트페어, 어퍼더블 아트페어, 심천아트페어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 3회 Gabala 국제아트전-아제르바이젠
현재, 분당작가협회장, 한국미술협회 이사, KAMA운영위원, 아시아미술가협회 부회장

Solo exhibition 14 times About 510 times Domestic and foreign Group Exhibition
GwangHwa mun Art Festival-Korea
J-K intemational Contemporary Fine Art Festival-JAPAN
Shanghai Art Fair-China/Affordable Art Fair Seoul
ASA ART NETWORK-Korea/Gabala 3 intemational Art Exhibition - Azerbaijan
vice-president at Asia Artists Association Executive committee of GIAF steering
Committee of KAMA / instagram-seos4108



생명의 유희...카오스, joy of life...chaos,
90.9x65.1cm, mineral color, Linen on Korean paper, 2021

생명의 유희(生命의 遊戯)

나는 오랜 기간 꽃, 새, 과일 개구리그림을 그려오면서 사물의 다양한 형태에 상징성을 구상적과 추상성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화폭에 드러나는 꽃, 새 과일 등이 단순한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면의 은유, 외면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구현하려고 노력해 왔다. 자연의 영원함은 순환에서 나온다. 끊임없는 생성 소멸하는 반복적인 순환에서 지금의 것은 과거의 것이 아니지만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체가 연속적인 순환에 의한 영원성을 담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의 마음을 은유적이고 직접적인 이미지로 추상적, 구상적 표현 하고 싶었다. 본인의 작품은 구상과 추상이 융합함 으으로써 영원한 자연의 삶 속에서 생명체들이 혼돈과 질서 을 찾아 가는 한 순간을 태양계 소우주로 묘사 하였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간의 흐름은 순간순간이며 그러한 순간은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며 삶도 죽음도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은 생명체가 서로 조화롭게 융합해 '생명의 유희, 생명의 노래'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내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인 생명의 영원함 이 있는 그것이 나의 소우주다.



생명의 유희...카오스, Joy of life...chaos
53.0x53.0cm, mineral color, linen on Korean paper, 2021



생명의 유희...카오스, joy of life...chaos, 73x73cm, mineral color, Linen on Korean paper, 2021

서홍석
Seo, Hong Seok



원광대학교 및 동대학원 회화와 졸업
개인전 10회 국내외 아트페어9회, 단체전100여회
2021.05. 시간을 담다(containing the Time), 갤러리 내일, 서울
2020.04. 시간을 품다(Embracing Time),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9.12. 체화(體化)된 시간(Embodied Time),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7.03. 불이(不二)-招魂(Non-Difference- Invocation Song), 인사아트센터, 서울

Graduated in paintings Wonkwang Graduate school
Solo Exhibition 10, International Art Show 9, Group Exhibition, Invitation Exhibition 100
2021 containing the Time, gallery Naeil, Seoul Korea
2020 Embracing Time, Insa Artcenter, Seoul Korea
2019 Embodied Time, Insa Artcenter, Seoul Korea
2017 Non-Difference, Insa Artcenter, Seoul Korea



초혼(招魂), 50x70cm, acrylic, paper, mixed media on canvas, 2020



초혼(招魂), 50x70cm, acrylic, paper, mixed media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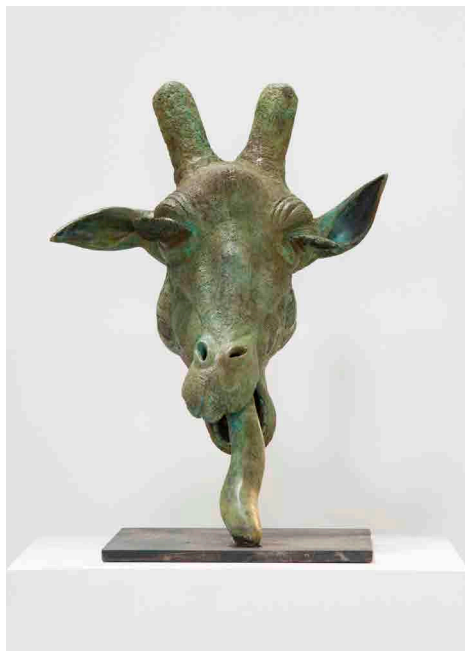
초혼(招魂), 50x70cm, acrylic, paper, mixed media on canvas, 2020

손상원
Son, Sang 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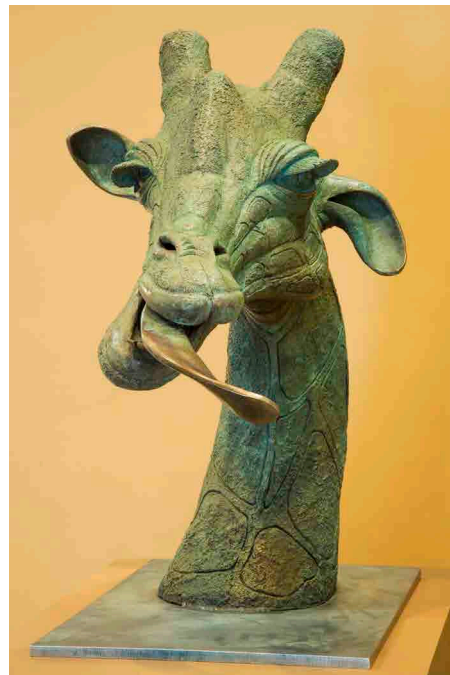


2017, Academy of Art University 순수미술 조각 학사 졸업,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8, (개인전) The Bronze Show, Cannery Gallery, 미국 샌프란시스코
2020, (단체전) Artist Statement #5, CICA 미술관
2020, (단체전) 한국구상조각회 선정작가공모전, 한전아트센터
2019, (단체전)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청년작가공모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2020-current, MFA Environmental Sculp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2017, BFA Fine Art Sculpture, Academy of Art University, San Francisco, CA, USA
2018, The Bronze Show (solo exhibition), Cannery Gallery, San Francisco, CA, USA
2020, Artist Statement #5, CICA Museum, Gimpo, Korea
2020, The Korean Figurative Sculpture Association's Sculptors Competition, KEPSCO Art Center
2019,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s Young Artists Competition, Sejong Museum of Art, Seoul, Korea



기린대가리, 57x41x61cm, 청동, 스테인레스스틸, 2016



두 번째 기린, 76x46x89cm, 청동, 스테인레스스틸, 2017



말발 샌드위치, 75x79x50cm, 청동, 2019

직접 손으로 도구를 만지며 무엇인가를 만들기 좋아 하는 손상원은 조각의 세계에서 큰 열정을 발견했다.

조각을 만드는 과정은 “왜” 또는 “어떻게” 등과 같은 여러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그때그때 작가의 결단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노동 및 정신 집약적 행위이다. 손상원은 점토로 모형을 만들고, 실리콘과 석고로 주형을 제작하여 원본과 똑같은 왁스 주형을 만든다. 쇳물이 흘러 들어갈 세라믹 쉘을 만들고, 완성된 쉘을 가마에 소성하여 왁스를 흘러버린 후, 그 안에 섞여 950도의 용해된 청동 쇳물을 부어 주조한다. 주물이 식으면 용접, 표면 정리 등의 금속 후가공을 한다. 조각가는 청동의 표면에 불과 물을 이용한 산화적 착색을 하여 완성한다.

손상원은 기린과 말의 과장적이고 희극적인 표정의 매력에 빠졌다. 해학적인 얼굴은 보는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면 근육들의 수축과 팽창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청동의 강성과 불멸성은 살아있지만 일시적인 생명체의 존재를 영원하게 포착한다.

Song, Keun Young
송근영



서울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18회
현대미술 100인 초대전, International Arts Promotion Association Exhibition,
G20 정상회의기념 월드아티스트 페스티벌
대한민국 선정작가전 등 다수의 기획전과 국제전 참여
현재, 한국화여성작가회 회장

B.F.A & M.F.A oriental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 18 Times
President of Woman's Association For Korean Painting



푸른 바람, 캔버스에 시아노타입, 50x60.5cm, 2021



푸른바람, 한지에 cyanotype, 60x90cm, 2018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미학적 가치를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사군자는 사의(寫意)화의 대표적인 그림이며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문인 정신을 나타내는 그림의 소재이다.

선인(先人)들은 서화(書畵)를 통해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깨달았다.
나에게 대나무는 바람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푸르게 위엄있게 곁을 지키다가도 바람과 만나 흐느끼는 소리,
달빛에 비쳐 창에 스며든 대나무의 그림자는
살을 사색하게 만든다.
사군자 속에는 현대사회의 모순(온갖 병폐)들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시아노타입(cyanotype)으로 화면으로 옮겨진 대나무는 어스
러운 푸른 새벽 대숲을 떠올리게 한다.

푸른바람, 한지에 cyanotype, 91x117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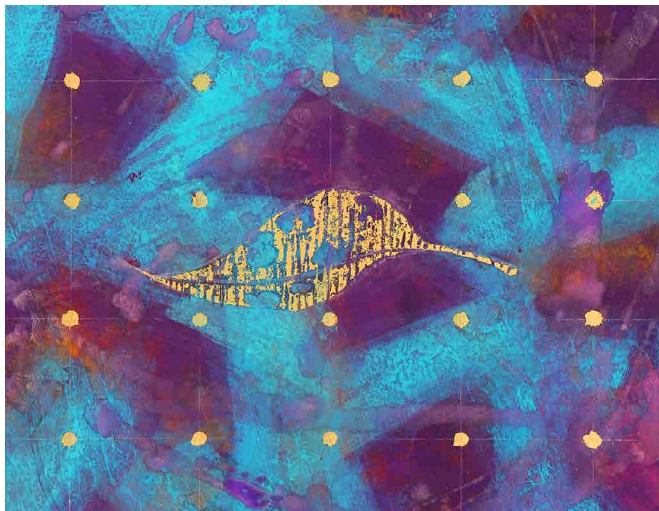


Song, Hwan Ah
송환아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및 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동양미학) 박사과정 졸업
국내외 개인전 23회
'한국현대작가 24인 동경전', Gallery GINZA A's, 일본
'Beijing Olympic Art Festival', 베이징올림픽경기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 국회의장상(GIAF) 수상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

M.F.A. & B.F.A. in DongDuk Woman Univ.
Ph.D in Sungkyunkwan Univ.
21 Times of Solo Exhibition
18th KFAA Award, etc..
Present, Professor of Andong National Univ.



밝달(倍達, The Bright Land), 73x53cm, 장지에 수간안료, 금박



밝달(倍達, The Bright Land), 73x61cm, 장지에 수간안료, 금박



밝달(倍達, The Bright Land), 63x53 cm, 장지에 수간안료, 금박

Shin, Jong Sup
신종섭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6회
2017 '대한민국미술인상', 대상
'현대미술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현재,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상형전, 광화문아트포럼 고문

B.F.A. in Painting, Hongik Univ.
26 times of Solo Exhibitions
2018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Sejong Center
Present, Advisor of Korean Arts Association, Sanghyung Exhibition,
Gwanghwamun Art Forum



동행, 53.0x72.7cm, oil on canvas, 2020



즐거운 날 - 동행, 91.0x60.6cm, oil on canvas, 2020

신주호
Shin, Ju Ho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대학 문화예술대학원 졸업

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박사수료

개인전 1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3회, 경향하우징페어 아트페스티벌 종합대상(국회의장상)

각종 공모전 수상다수

한국-터키수교 50주년 기념전, 국제 선면전 및 국내외 그룹전 400여회

각종 공모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교수

Graduate from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and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Doctorate of Formative Arts, Dankook University

18 individual exhibitions

Korea Art Exhibition Special 3 times, Total Grand Prize of the Kyunghyang Housing Fair Art Festival, and many other contest winners

More than 400 exhibitions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urkey, international face-to-face exhibition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Committee members and judges of various contests.

Professor of Oriental Painting, Department of Arts, Dankook University



심연(心淵), 53x45.5cm, 마천, 혼합재료, 2021



심연(心淵), 91x117.5cm, 마천, 혼합재료, 2021



심연(心淵) -신주호 45.5X45.5cm, 마천, 혼합재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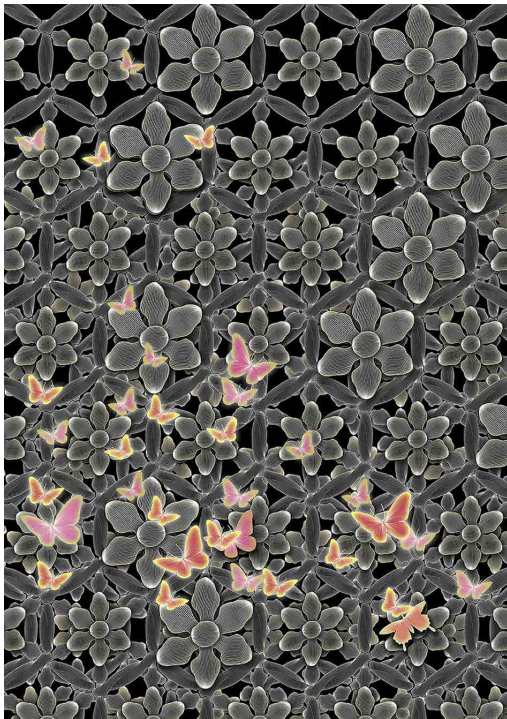
Shin, Hee Kyoung
신희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일본 무사시노미술대학 석사
일본 일본대학 예술학 박사
shin heekyoung 개인전 -벽사 (2018. 4.23-5.12.동경A&D갤러리)
개인전-Moon Light (2018.8.3.-15, 돈의문박물관마을)
현재, 세명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교수

Seoul National University. (BFA)
Musashino Art University. (MFA)
Nihon University. (Doctor of Arts)
Semyung University. Professor
shin heekyoung Solo Exhibition – (2018. 4.23-5.12.Tokyo A&DGallery)
Solo Exhibition-Moon Light (2018.8.3.-15, donuimun museum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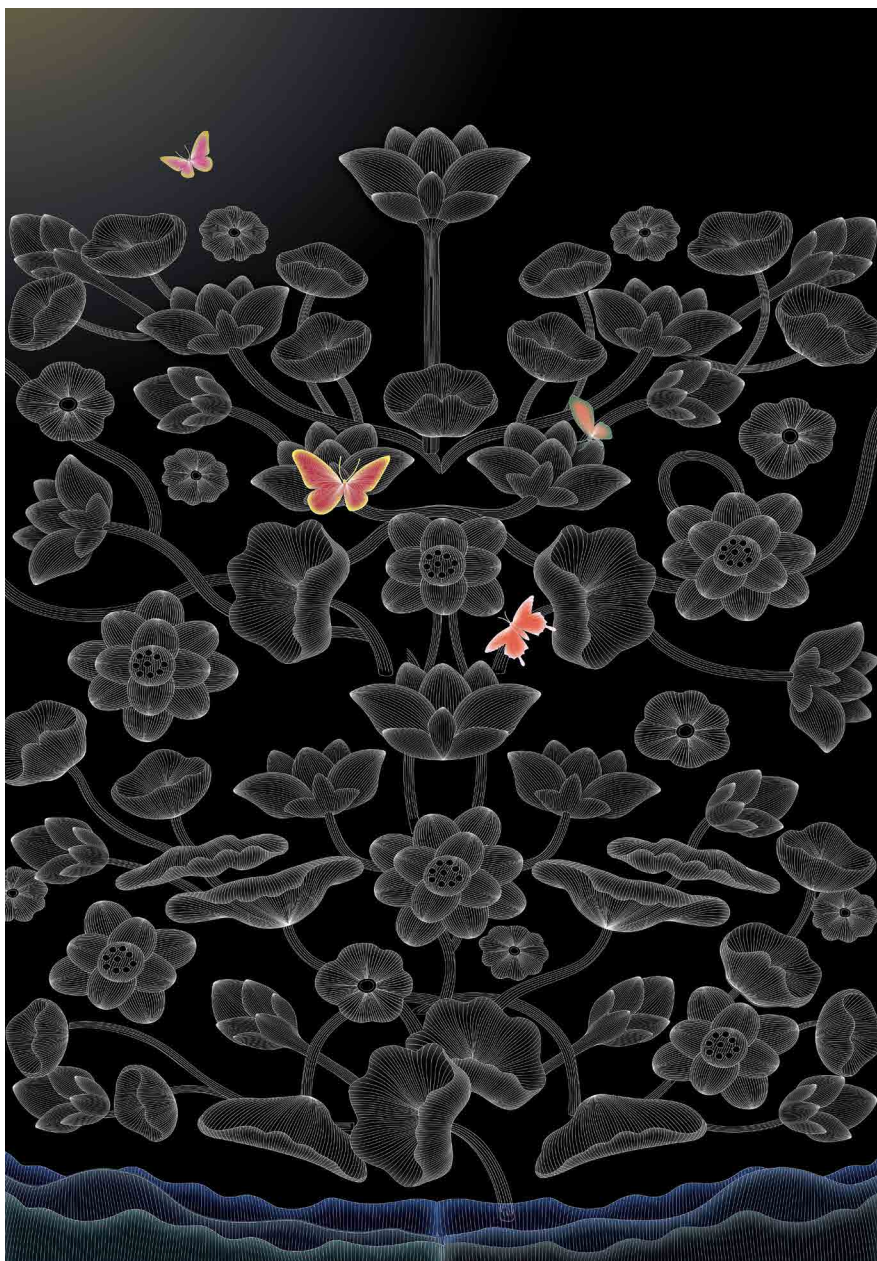
조형탄생의 원류인,
사람의 마음에 안심감을 주는 길상과 벽사의 개념을 현대적 매체와 표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Full Bloom, Pigment Print, 103x145.6cm, 2018



lotus-pond 2, Pigment Print, 81.5x102.8cm, 2016



lotus, Pigment Print, 81.5x102.8cm, 2021

안재영
An, Jae Young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6회 및 서울특별시시장상 수상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상 수상 (서울시립미술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초대작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조선일보사)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개막작 선정(감독)
(CGV 영등포 타임스퀘어 영화관)
현재,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The art of the Republic of Korea war's sixth and the Seoul mayor award.

The Prime Minister (Seoul Museum of Art) subject to an art exhib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 contest judge and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chodae (Chosun Ilbo Co., Ltd) election, the Chosun Ilbo New Spring Literary Contest.

Selection of Seoul Yeongdeungpo International's Short Film Festival opening film (director).

(Yeongdeungpo Times Square movie theater cgv).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누구인가가 지나간 뒤에 남은 흔적을 있는 듯 없는 듯, 스쳐나가 듯 표현함.



라인(line)흔적, 40x30cm, clay, 2020



흔적, 116.7x91cm, acrylic, 2020



혼적, 116.7x91cm, acrylic, 2021

Um, Hyuk Yong
엄현영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원광대학교 박사. 국민대학교 박사수료
중앙미술대전 종합대상
개인전 32회
초대전 및 단체전 300여회
현재,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장

Graduation from Hongik University and Dong graduate school
Doctor Wonkwang University. Doctorate at Kookmin University
Central Art Exhibition Grand Prize
32 individual exhibitions
300 invitations and group competition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나무, 자연은 사람에게 문명의 재료가 되어주었다.
나무로 종이를 만들고 종이가 모여 책이 되었다.
사람들은 책을 보지만 그것은 나무이다.
나의 작품의 시작은 어릴 적 매일 바라보았던 마당의
느티나무였다.
나무는 나에게 책을 선물했고 나는 나무를 사랑했다.
새로운 집을 만들며 없어진 느티나무를 그리워했던 나는 영원히 존재
하는 나무를 만드는 조각가가 될 것을 꿈꾸었다.
나는 지금 나무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꿈을 만든다.
세상의 그늘이 되어 줄 절대 죽지 않을 마음속의 나무를 만들고 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나무가 그것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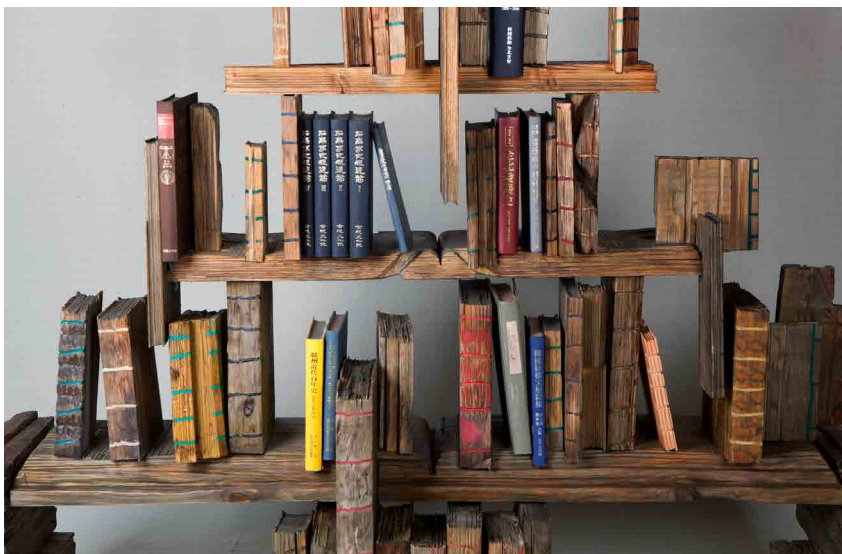
나무는 책이 되었고 미래가 되고 꿈이 될 것 이다...

책으로 부터, 150x150cm, 나무, 한지, 2017





책-아무-종이-자연-사람, 500x500cm, 나무, 한지, 2017



'책' 이야기, 200x160cm, 나무, 책, 2015

우재연
Woo, Jae 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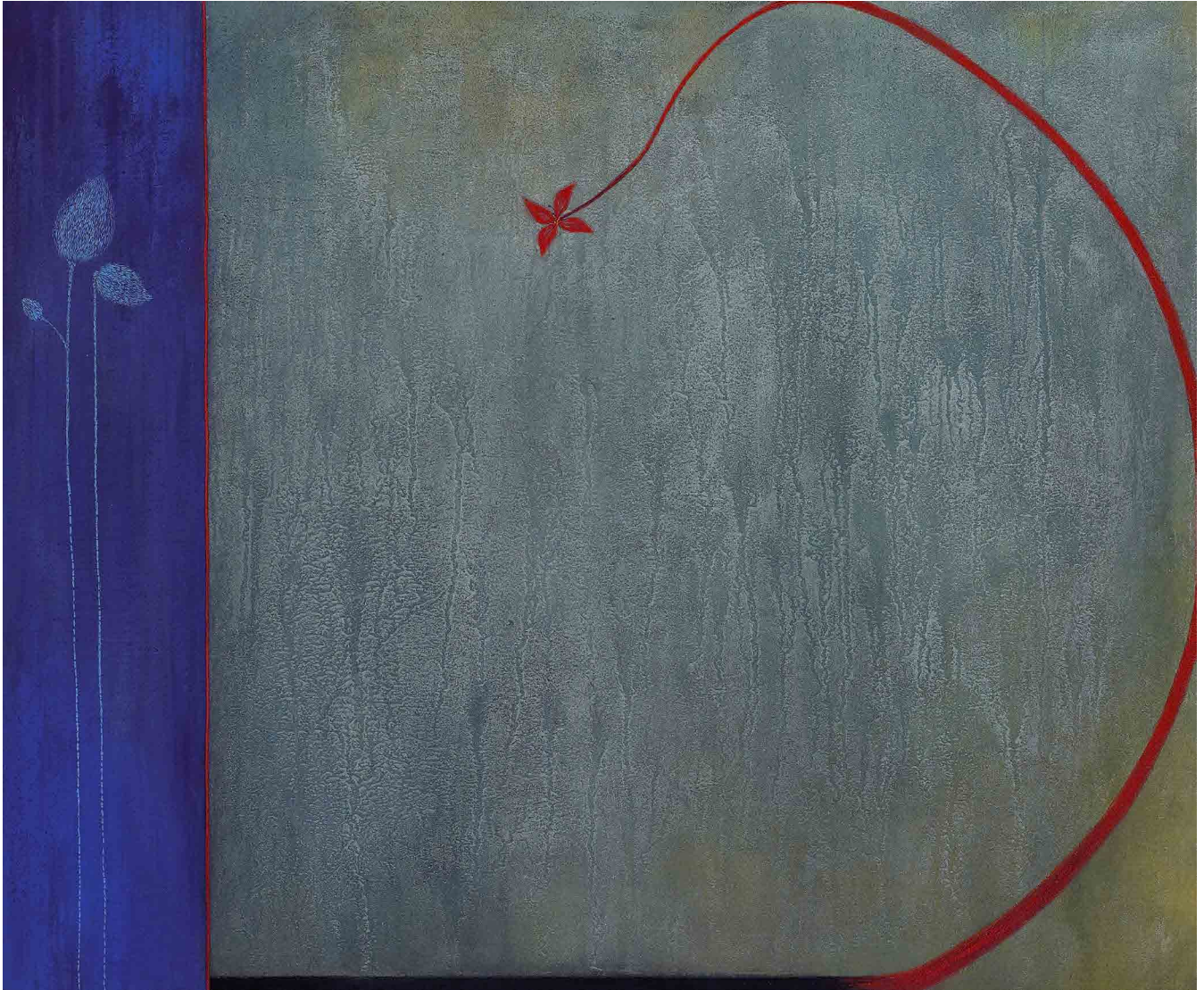


한성대학교 회화과 및 동 예술대학원 졸업
개인전 8회
스트라스부르크 아트페어 , 프랑스
칭다오 현대미술 아트 페어
단국대, 한성대, 강릉원주대 강사역임
현재, 춘추회, 한국화여성작가회, 광화문아트포럼회원

B.F.A. & M.F.A. in Hansung University
8 times of Solo Exhibitions
Strasbourg Art Fair , France
Qingdao Contemporary Modern Art Fair
Former Instructor of Dankook Univ. Hansung Univ. Gangneung Wonju Univ.
Present, Members of Koean Women's Artists Association, Choonchoo Association



윤희 transmigration, 45.5x53cm, 한지, 석채, 분채, 2020



윤희 transmigration, 72.7x60.6 cm, 한지, 석채, 분채, 2020

유인수
Yoo, In So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프랑스 디종 국립미술학교 수학
상 파울로 비엔날레
까뉴국제 회화제
서울시 미술대전
미술대전 심사위원
오지호 미술상 심사위원
현재,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athematics at the National School of Art in Dijon, France
Saint Paulo Biennale
Canoe International Painting Festival
Seoul Art Exhibition
an art judge
Oh Ji-ho, an art judge
Currently, an honorary professor at Sangmyung University



파괴한 우상 3, 120호, acrylic, 2021



파괴한 우상 2, 120호, acrylic, 2021



파괴한 우상 1, 120호, acrylic,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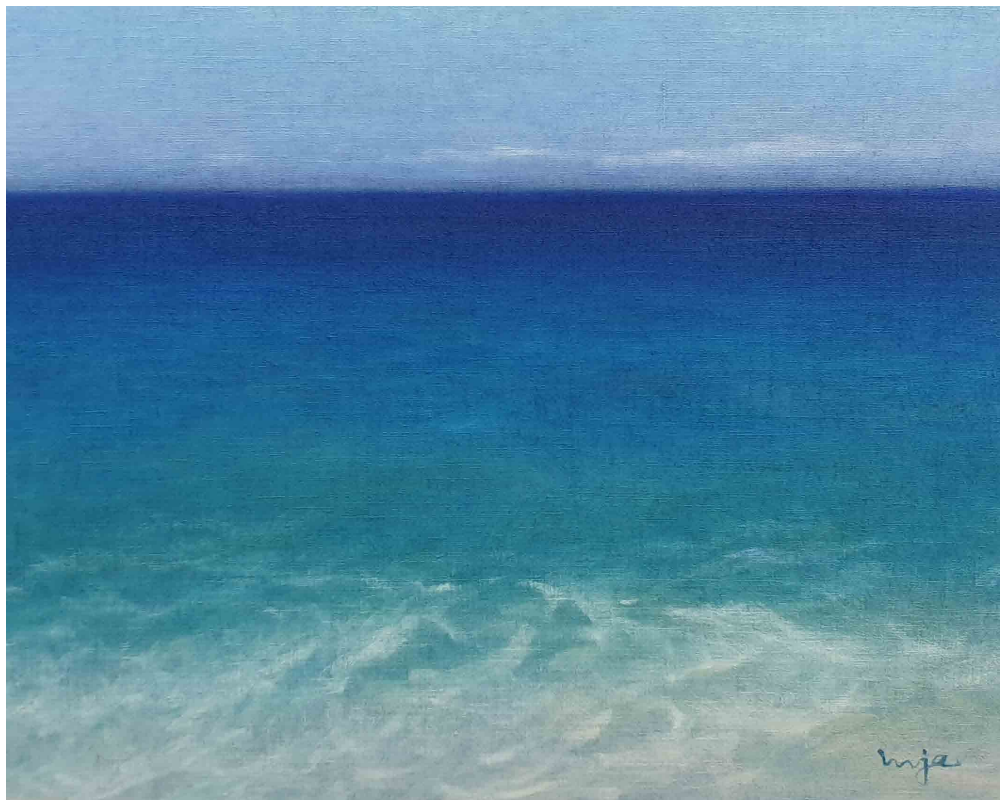
파괴된 우상 4, 30호, acrylic, 2021

윤
인
자
Yun, In Ja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양화)
개인전13회(인사아트프라자 이즈갤러리 장은선갤러리 순천문화예술회관
현인갤러리 별갤러리수갤러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벅스코등)
아트페어및단체전200여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현재, 한국미술협회, 상형전, 광화문아트포럼, 한국수채화협회회원

Department of Fine Arts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Western Painting)
13th Individual Exhibition (Insa Art Plaza Izu Gallery Jangin Sun Gallery Suncheon
Culture and Arts Center)
Hyunin Gallery Star Gallery,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Bexco, etc.)
More than 200 art fair and group exhibitions
He is a judge of the Korean Art Exhibition.
A member of the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at the Gwanghwamun Art Forum of the
Korean Art Association



정령-serenity, 116.8x91.0cm, oil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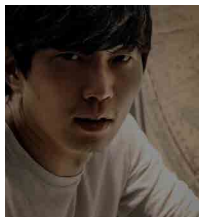


정령-serenity, 161.2x72.7cm, oil on canvas, 2021



정령-serenity, 161.2x72.7cm, oil on canvas, 2021

이규혁
Lee, Kyu Hyuk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박사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동 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강원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과 강사
문화유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현대도예교육원 대표
단국대학교, 공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동서울대학교, 검임 역임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Ph.D. in Pottery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Graduate School of Potte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Life Formative Design Department Lecturer
Senior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echnology
Representative of Modern Pottery Education Center
Instructors at Dankook University, Gongju University, Gangneung Wonju University, and Dong Seoul University in the past

In honor of the souls of those who sacrificed.

Sacrifice series work I, 500x700cm, ceramic, 2021



Sacrifice series work VII, 480x450cm, ceramic, 2021





Series work VI, 580x650cm, ceramic, 2021

이
남
찬
Lee, Nam Chan



개인전 및 개인초대전 27회
2015 한국미술협회 미술인 공로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부이사장 및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장 역임
현재, 예문회 회장, 광화문아트포럼 자문위원

27 times of Solo Exhibitions
Present, Chairman of Yemoon Association, Consultant of Gwanghwamun Art Forum
Vice President of Korea Fine Arts Association Successive,
Served as Korea Art Competition Exhibition Chief Examiner Successive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116.7x91.0cm, oil on canvas, 2020



프라하 천문시계, 91x73cm, oil on canvas, 2020



프라하 구시청광장의 인상_116.7x80.3cm(50호P)_oil on canvas

이
도
선
Lee, Do Sun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황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개인전, 부스 및 온라인 개인전 18회
창작미술협회 우수상, 특선3회 등 다수 수상
그룹전 및 기획전 200여회 출품
현재, 광화문아트포럼, KAMA, 분당작가회

M.F.A. Hong-Ik Univ.
Honors of the HWANGJOGEUNGEONG medal, Presidential Commendation
18 Times of Solo Exhibitions
Golden Prize, 3th Special Selections,
The Chang-Jark Fine Art Association
About 200 Times of Group and
Invitational Exhibitions
Present: A Member of the GIAF,
KAMA, Vasil, Bundang Fine Art Group



Landscape in the Bible-Capernaum II
100x50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Landscape in the Bible-Capernaum I
100x50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Landscape in the Bible-Capernaum III
100x50cm, Mixed media on canvas, 2021

성경 속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온다. 그 중 가버나움은 갈릴리바다에 근접해 있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 1년을 보냈던 곳이다. 베드로 등 12제자를 만난 곳이며, 회당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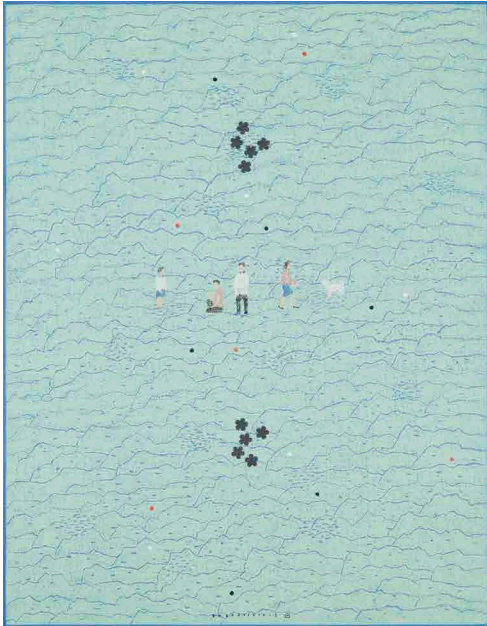
특히 귀신 들려서, 병으로, 선천적인 장애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곳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 율법에 젖은 학자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서 실망하시고 탄식하셨던 곳이기도 하다. 작품을 하면서 당시 로마의 풍물을 받아 세속화된 도시였던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의 모습을 갈릴리 바다의 풍광과 함께 생각하며 기도로 아름답게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만수
Lee, Man 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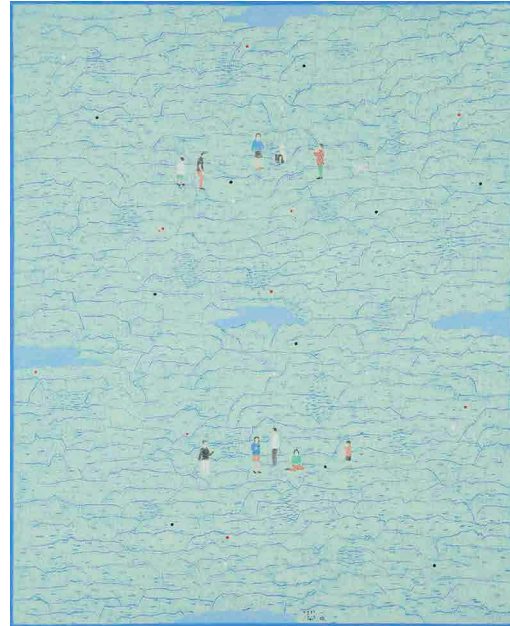


2020개인전(동덕아트갤러리)
2019개인전(L.A 아트코아갤러리)
2019개인전(University of Wisconsin museum)
초대전 다수
현재,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2020 solo exhibition(Dongduk gallery)
2019 solo exhibition(L.A Artcore)
2019 solo exhibition(Wisconsin Univ.)
Professor of sungshin Women's Univ.)



산조2014, 118x91cm, 캔버스에 채색, 2020



산조2017, 162x131cm, 캔버스에 채색, 2020



새벽2105, 71x119cm, 캔버스에 채색, 2021

이
문
배
Lee, Mun Bae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관화과 졸업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16회
타이페이비엔날레등 국내외 전시 200여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의 다수
국립현대미술관, MBC등 다수 작품소장

Graduated from Chugye University of Arts, College of Arts,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d from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6th solo exhibition
200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Taipei Biennale
Majority of judges at the Korean Art Exhibition
Head of many work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BC,



'sound of silence'

소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자기표현의 가장 근본적 본능이다.
작가가 추구하는 화면은 보여 지는 이미지보다
그 안에 내포되어있는 여러 가지현상들 다시 말해 기억, 추억, 바램과 같이
시각적 감수성을 청각적인 소리에 비유한다.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의 기계화된 생활과 매마르고 억압되어진
생각과 감정들에 대한 강한 울림이며 함축적인 소리의 메시지이다.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우리는 갈망하며 살고 있진 않을까?

sound of silence 190924, 90.9x72.7cm, Acrylic on Canvas, 2019

sound of silence191009, 90x72, 7cm, Acrylic on Canvas, 2019



이
미
숙
Lee, Mi Sook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4회(2019.전래동화조각전(KBS시청자갤러리)2017,H갤러리.
2005:공화랑. 1994: 바탕골미술관)
부스개인전4회(2018 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 2009:서울시립미술관,
2007:광화문 아트페어, 2005:상해조각비엔날레)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Sculpture and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4th Solo Exhibition (2019. Traditional Fairy Tale Sculpture Exhibition (KBS Viewer Gallery) 2017, H Gallery. 2005: Gonghwarang. 1994: Batangol Museum of Art)
4th booth solo exhibition (2018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Seoul Arts Center) 2009: Seoul Museum of Art 2007: Gwanghwamun Art Fair, 2005: Shanghai Sculpture Biennale)



호랑이 장가 가는날
300x160x450cm, 알루미늄주물, 단청채색, 2021

임인(壬寅)년에 태어났다.
정해진 숙명처럼, 연결된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처럼
전래동화 속의 호랑이 이야기들은 나를 사로잡았다.
우리의 전래동화에 흔히 해 뜨고 비가 올 때 “호랑이 장가 간다” 는 표현을 한다.
호랑이가 연잎우산을 받쳐 들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제작하였으며,
“까치 호랑이”, “호랑이와 꽃감” 등 우리의 전래동화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제작하고 단청문양의 채색을 덧 입혀놓았다
그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미감과 슬기, 해학이 함께 묻어나길 바라면서...



호랑이와 꽃감, 103x25x81cm, FRP, 단청채색, 2018

까치 호랑이, 40x18x53cm, FRP, 단청채색, 2021



이민주
Lee, Min 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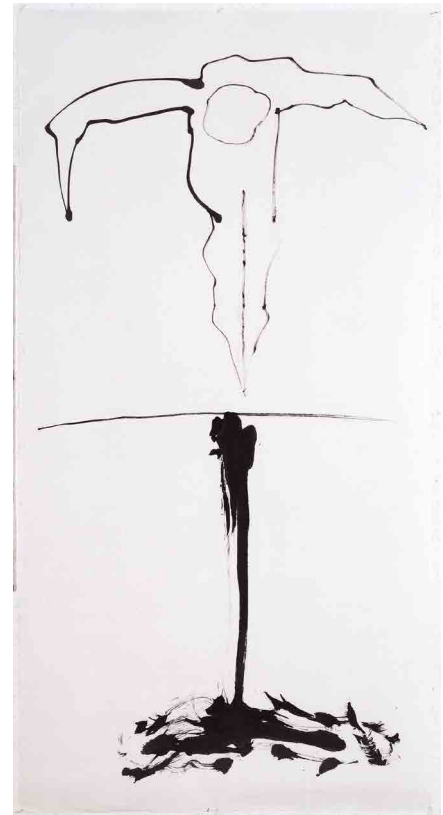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53회
단체전 600여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강사 및 겸임교수 역임
현재, 한국 인도 현대작가교류회 회장

B.F.A.&M.F.A. in Seoul National Univ.
53 times of Solo Exhibitions
600 times of Group Exhibitions
Present, President of Korea India Contemporary Artists Association



90X90cm, Turbulence, acrylic on canvas, 2008



REFLECTION OF GOD, 140X70cm, 화선지 위 먹,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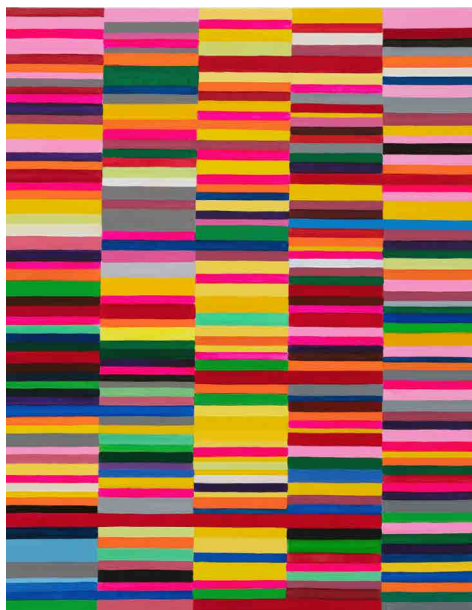
Romantic "-Resonance", 각 300.X100cm, 한 지 위 혼합기법, 2020

이
상
은
Lee, Sang Eun



개인전 32회 / 뉴욕, 서울, 후쿠오카, 성도, 동경, 타이난, 텐진
단체전 320여회
작품소장 :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수원가정법원
현재: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조교수
Homepage: <http://leesangeun.net>

Solo Exhibitions: 32 times / Seoul, NewYork, Fukuoka, Chengdu, Tokyo, Tinan, Tianjin
Selected Group Exhibitions: 320 times
Public Collection: Seoul Museum of Art, Art Bank of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Present: Assistant Professor majoring in Painting of SangMyung University
Homepage: <http://leesangeun.net>



색동 20211, 117x91cm, Acrylic on Canvas, 2021

미래를 열기설기 쌓아 올려 그 틈 사이로 과거-현재-미래의 세 시점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한다.

작업 안에서 나는 경험에서 생긴 기억들을 선(line)이나, 붓자국(stroke)등 단순화된 하나의 단위로 기호화하고 이를 쌓거나 나열하여 시간의 집적을 이야기한다.

한 줄 한 줄 굵기를 반복하여 위로 쌓거나 옆으로 나열하는 작업에서 한 줄의 선은 한사람의 작은 경험과 기억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한 줄 한 줄 겹쳐지며 올라가는 선들은 인간의 경험과 기억이 쌓이는 과정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공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의 선이나 붓자국으로 표현되는 기억의 조각은

계속적인 반복 과정을 통해서 증식하고, 증식이 다시 확산을 생산함으로써 시간의 중첩과 집적을 표현하는 것이다.

작가에게는 작업이 삶의 표현이자 삶이 곧 예술이다.

채동 2012, 117x91cm, Acrylic on Canvas, 2021



이숙진
Lee, Sook Jin



이화여대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박사과정수료
개인전 - 22회 (갤러리상, 단성갤러리, 평화화랑, 도올아트센터.예술의전당)
아트페어-시카고, 스트라스부르, 제네바, 취리히, 씨애틀. 텍사스, 홍콩, 상해, 북경, KIAF,
SOAF, 화랑미술제
현재, 한국화여성작가회, 채연회, 후소회, 목원대 출강

Graduated from college of fine Art and Graduate School Ewha Women's Univ,
Ph.D.Completed

The 22th Solo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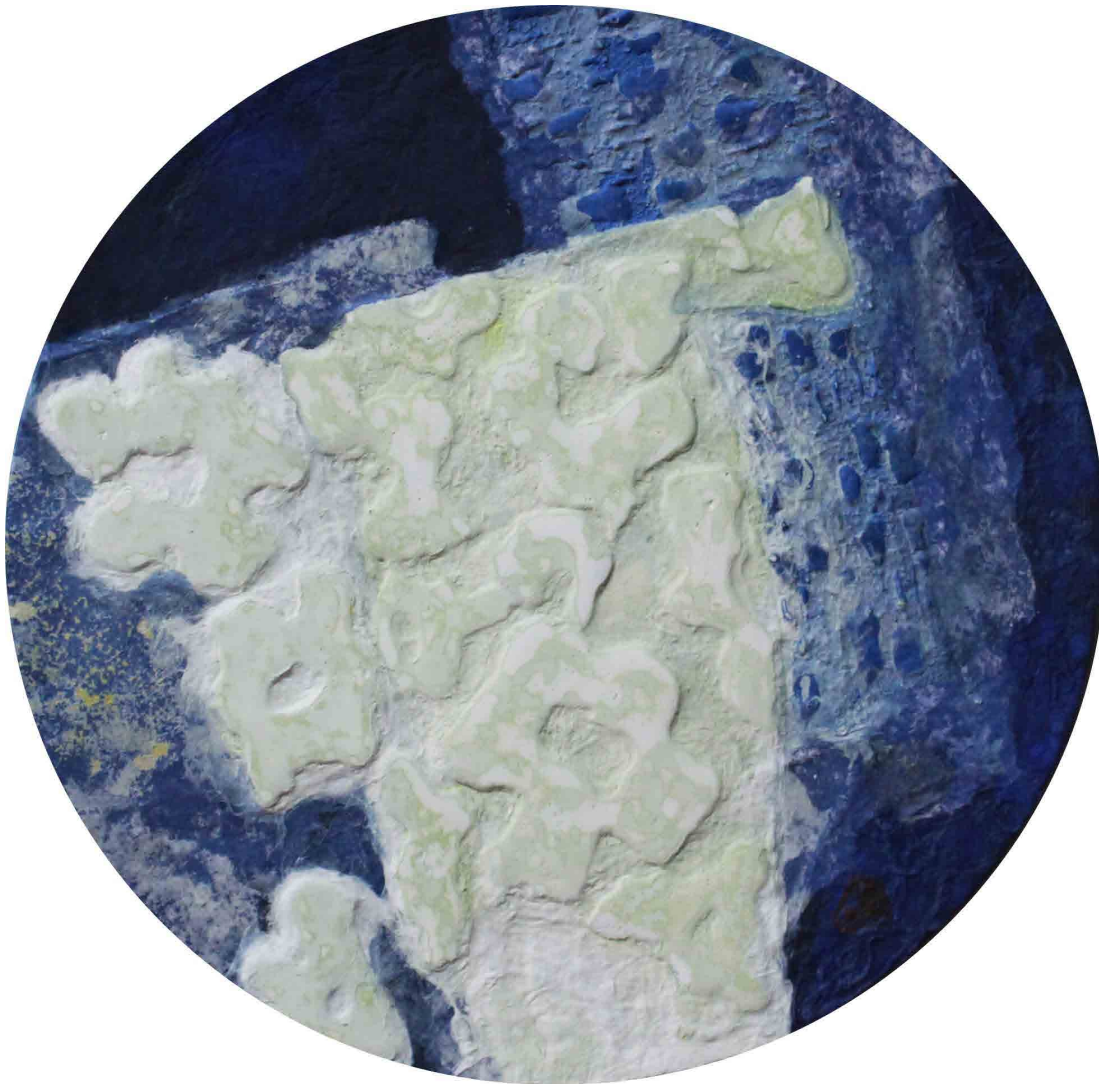
Art Fair - Strasbourg, Zurich, Hong Kong Shanghai, Hong Kong Hotel Beijing,
Seoul Open Art Fair, Korea Galleris Art Fair, Korea Contemporary Art Festival

Current: Professor MOKWON Art University

나의 작품은 각각의 특정한 풍경에서 출발하지만 점차적으로 청색이라는 공통된 색으로 표현하게 되며
주제가 되는 사물은 존재하지만 그 형상은 은유적인 이미지로 완성된다.
여기서 청색은 지극히 평화롭고 그로부터 느껴지는 신뢰감은 관조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또 다른 자연, 수제한지 먹 석채, 50x50cm, 2019



또다른자연, 수제한지 먹 석채, 50x50cm, 2020

이
순
애
Lee, Soon Ae



개인전 18회(서울대호암교수회관 한국경제신문사
조선화랑 백송화랑 세종갤러리 장은선갤러리 외)
화랑미술제 KIAF 시애틀아트페어 샌프란시스코아트페어
텍사스아트페어 마이애미아트페어 홍콩아트페어
생각의 숲을 만나다(한벽원미술관)
두 겹의 그림자노동(세종문화회관미술관)
불이-여성과 자연(조선일보미술관)
현재, 한국화여성작가회고문 춘추회 한국화진흥회 회토회 광화문아트포럼회원

B.F.A & M.F.A Collage of Fine Arts KyungHee Univ.Seoul
Solo Exhibition 18 times(Seoul)
Seattle Art Fair Sanfrancisco Art Fair Texas Art Fair
Kiaf (Coex Exhibition Hall Seoul) Busan Art Show(Bexco Busan)
Art Asia Miami 2010 (Miami Pavilion)
AIAA 2008 Art Fair (Convention Center Honkong)
korea-India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Korean cultural center India)
Gwanghwamoon International Art Festival(Sejong cultural center museum)



거닐다, 41x32cm, 견예채색, 2017



거닐다, 44x102cm, 천연채색, 2017



거닐다, 44.8x87.2cm, 천에채색, 2021

이
승
철
Lee, Seung Chul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 미술관 관장
간송미술관 상임연구위원
한국재료미술연구회 대표
우리한지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교수

M.F.A.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is: Influences of Hanji on the History of Korean Painting)

B.F.A.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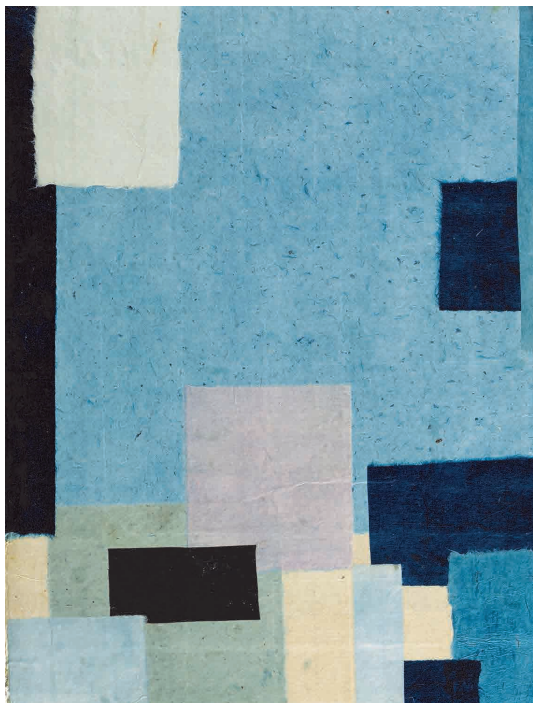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ainting of the College of Arts, Dongduk Women's University

Director of Dongduk Museum, Dongduk Art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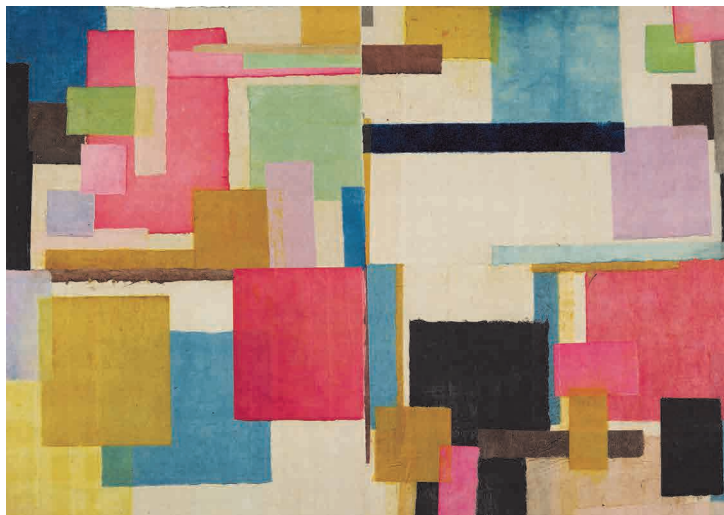
Executive Researcher for Materials of Korean Traditional Art at Kansong Art Museum

Representative of Korea Material Art Research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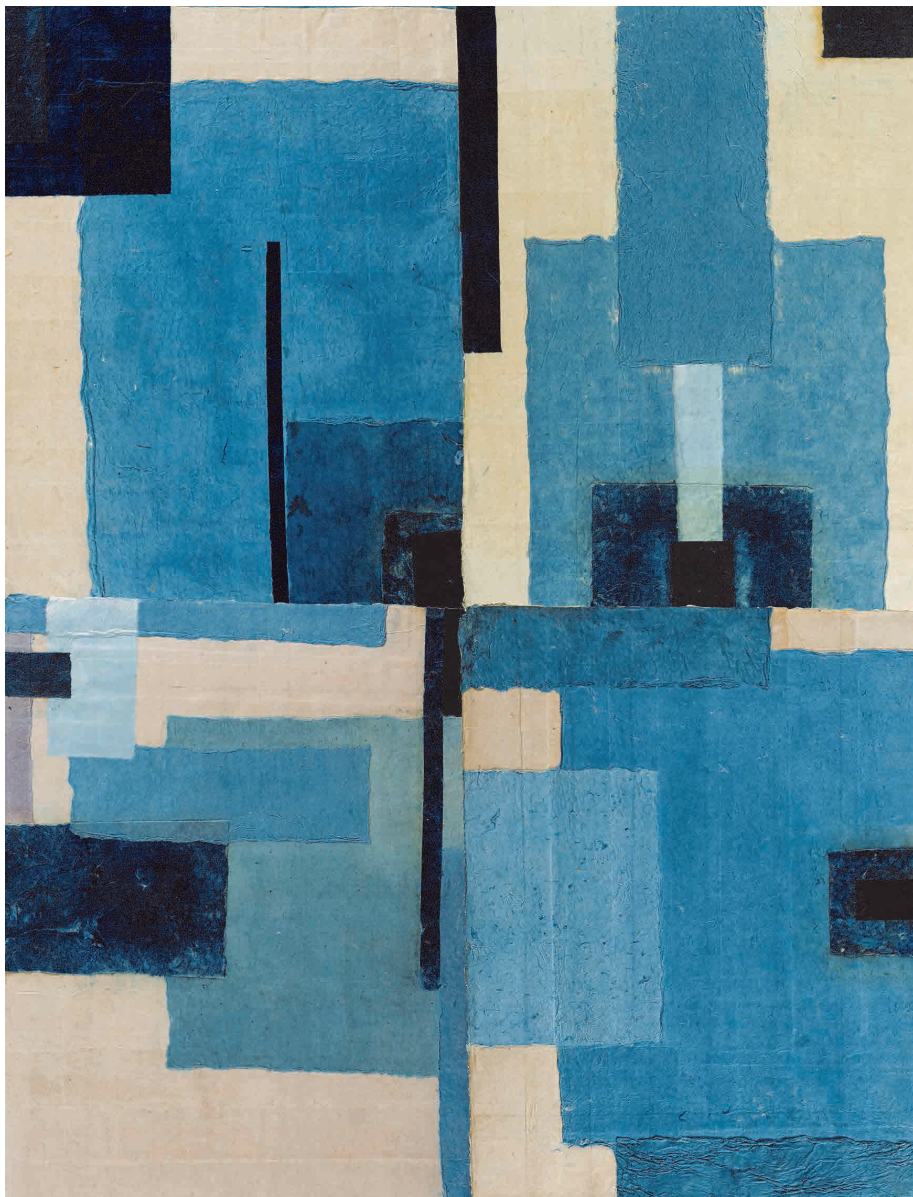
Publications : 'Hanji', 'The Natural Dye', etc.



靑-도시야경, 39x50cm, 수제한지에 쪽 자연채료, 2015



자연 색 모임 이야기, 103.5x73cm, 수제한지에 쪽 자연채료, 2015



청색모임, 75x68cm, 수제한지에 쪽 자연재료, 2015

이영배
Lee, Young Bae



1987 홍익대학교 도예전공 졸업
2004 국민대학교 테크노대학원 졸업
전시 70여회
1999~2009 국민대, 상명대, 건국대 강사 역임

B.F.A. Dept. of ceramic, Hongik Univ.
M.F.A. Ceramic design, kookmin Univ.
About 70 times of exhibitions

“누가 미친거요?
창자 이룩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가 미친거요?
아니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는 사람이 미친거요?”
-소설 돈키호테 중에서



돈키호테 II, 35x30x33cm, 점토, 테라시즐라타, 2020, Detail cut



돈키호테 II, 35x30x33cm, 점토, 테라시글라타, 2020

이영희
Lee, Young Hee



개인전 18회 (현대미술관, 조선, 백송화랑, 갤러리 사비나, 갤러리상, 798 양갤러리[북경], 예술의전당 미술관 7관, 인사아트 프라자, 등)
2008 서울미술대전 -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 (서울시립미술관)
2005 제11회 인도 트리엔날 (인도 뉴델리)
1998~99 화랑미술제 (예술의전당 미술관, 갤러리사비나)
1999 길 전-한국의 길 (예술의전당 미술관 기획)
1998 물의 풍경전 (갤러리 상, 갤러리사비나 기획)

Solo Exhibition 18th (Hyundai museum, Joseon, Baik Song Gallery, Savina Museum, Sang Gallery, Beijing 798, Art Gallery at the Seoul Arts Center, Insaartplazagallery, etc
2008 Seoul Grand Arts Exhibition Transition of Korea Figurative Arts (Seoul City Arts Museum)

2005 The 11th Indai Triennial (New Delhi LKA)

1999 '99 Art Galleries Festival (Art Gallery Seoul Arts Center, Savina Museum)

·Paths Exhibition·Roads of Korea (Art Gallery at the Seoul Arts Center, organized by Seoul Arts Center)

Scenery with Water (organized by Savina Museum, Sang Gallery)



단동 가는길, 291x181.5cm, oil on canvas, 2008



또 다른 자연, 수제한지 먹 석채, 50x50cm, 2019



삶의 길 2011-1, 130.3x89.4cm, oil on canvas, 2011

그림 속에 표현된 길은 평범한 시골길이 아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시작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길이다.
 그리고 역사의 수많은 미스터리를 안고 있는 푸른 공간과 인간의 삶의 영욕을 묻어두고 있는 길에 여러 가지 형상들을 묘사하려고 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는 것처럼 삶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시작되는가,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갖고 삶의 길을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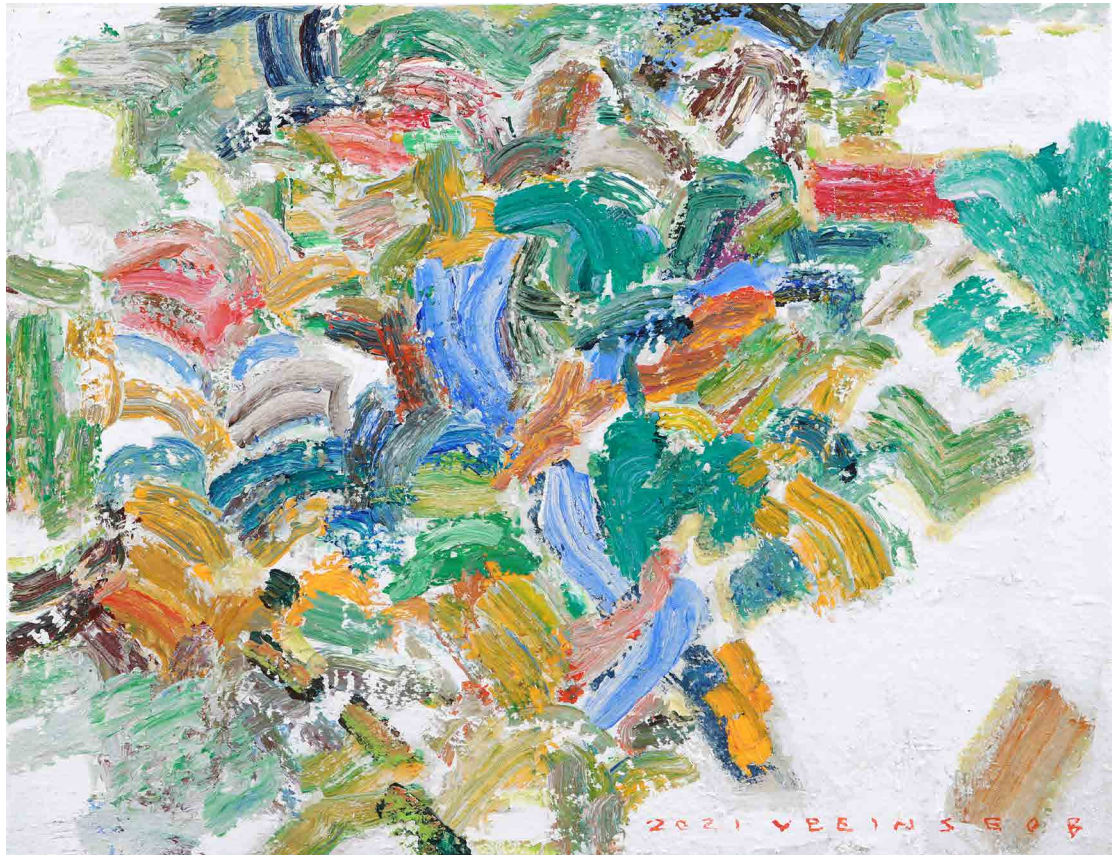
실상일 수도, 허상일 수도 있는 이러한 형상들은 밤의 음기로 차가웠다가 아침의 양기로 더워지면서
 기류의 변화로 피어오르는 안개 속에서 여명과 인간의 정신이 만나는 시점으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어둠이 잠들지 않는 시간까지 그릴 것이다.

이인섭
Lee, In Seob



개인전 35회 (예술의 전당, 금호미술관, 조선일보 미술관 외)
그룹전 300여회 (인도트리엔날레,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싱가포르),
아시아 현대미술제(동경도 미술관),아트부산,
르발로아 국제현대 미술전 초대출품(르발로아,프랑스),
한국현대미술전 초대출품(제네바, 스위스) 외 다수
현재, 사단법인 서울미술협회 이사장

B.F.A.&M.F.A., Hongik Univ.
35 times of solo exhibitions
300 times of group exhibitions
2017 'Four seasons:Enjoy', Solo Exhibition, Gallery Chosun
2016 'Korea-Japan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Present, President of Seoul Fine Arts Association



From Nature; untamed, 33.4x53cm, Mixed media, 2021



From Nature; untamed

화가 이인섭에게 자연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관망하는 그의 작업의 모티브이자 연구대상이다. 모든 생명을 고요히 품어내는 자연이 들려주는 울림에 귀를 기울이는 그는, 거침없는 색과 붓질의 조합으로 은유하고도 웅장한 자연의 하모니를 표현해 낸다.

또한, 그 하모니 속에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자연의 순환이 그대로 녹아있다.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물감으로는 낼 수 없는 작가 특유의 색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참나무가 타고 난 재를 걸러내어 물감에 섞어 그만의 색을 만든다. 때문에 이인섭 작가의 화폭은 모든 것이 소멸하고 남은 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 온갖 색이 피어나 그 자체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의 세상이 된다. 그야말로 자연의 순환을 오롯이 담아내는 것이다.

공명하는 초록색 푸른색 노란색들은 기본 좋은 자연의 울림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의 붓에 따라 이리저리 얹혀있는 색과 여백은 어느새 대자연의 품고 있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그대로 전달한다.

작가에게 자연은 '공존'이다. 내가 말을 하고 숨을 쉬는 동안에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름 모를 새는 지저귀고 어딘가에 새싹은 돋아나는 것, 그것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자연과의 공존이다. 자연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거침없는 붓질 사이사이를 산책하듯 둘러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자연과 비로소 함께 있는 듯한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From Nature; untamed

이재운
Lee, Jae Eun



2021 'BOB' 브랜드 미음나루점 콜라보, 남양주
 2021 '경계선', 2인전, 4LOG, 서울
 2021 감정쿠킹; 내 감정 요리하기, 수원시립미술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수원
 2020 'BOB' 브랜드 송파사옥 콜라보, 서울
 2020 bac: becoming a collector 순천아트페어, 기억공장 1945, 기억상회, 장천동 도시재생부지
 거리 등, 순천
 2019 end, and., 갤러리 노트, 서울

2021 'BOB' Brand Mieumnaru Branch Collaboration, Namyangju
 2021 Boundary Line, Dual exhibition, 4LOG, Seoul
 2021 Emotional Cooking: Cooking My Emotions, Suwon City Museum Children's
 Ecological Art Experience Center, Suwon
 2020 'BOB' Brand Songpa Office Collaboration, Seoul
 2020 Bac: Coming a Collector Suncheon Art Fair, Memory Factory 1945, Memory
 Sanghoe, Jangcheon-dong Urban Regeneration Site Street, Suncheon
 2019 end, and, Gallery Knot, Seoul

Embossing vase 3, 39x44x10cm, Stoneware, Detail cut



처음 작가의 작업은 다른 이들과의 분리에서 시작되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자 했을 때, 누군가의 딸, 친구, 연인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함을 느꼈다. 하지만 위의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했을 때, 상실감과 함께 작가는 자신을 정의하는 요소가 사라지는 것에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을 이기고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해 상상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그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것들이 작가의 작업이 되었다.

작가가 상상 속에서 그린 이미지들은 자기 존재를 탐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주관의 틀에 갇히는 생각이 들었다. 작업을 통해 구축되는 주체와 실재세계의 작가는 점점 다른 존재가 되었다. 작업을 통해 구축하는 자기와 물리적 현실의 자신과의 괴리는 다시금 자기 정의의 어려움을 피어 오르게 했다. 나는 또 나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Embossing vase 3, 39x44x10cm, Stoneware

이 때, 다른 이들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관계’ 역시 자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작업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의 자기 역시 그렇다.
자기 정의를 하지 못한다 느끼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선택 받지 못한 쪽에서 피력하는 존재의 위압감에 의한 불안감이다.

나는 이 두 관계를 오가는 것을 건강한 평풍이라 여기기로 했다. 타인과 분리하여 상상 속에 살고 있는 ‘나’와 타인과 더불어 살고 있는 실제세계의 ‘나’.
둘 사이를 오갈 때 느꼈던 불안을 이겨낸 감정을 작업으로 표현했다.
완충재의 역할을 하는 엠보싱 기법을 차용하여 실제 또는 작가의 상상 속의 것들을 표현했다.
매트리스나 소파 등 폭신하게 접촉하는 대상을 감싸 안는 엠보싱은 둘 사이의 관계를 뛰어다니는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

이정인
Lee, Jung In



개인전

2020 잔상: 기억의 흔적, 갤러리 H, 서울

그룹전

2020 제5회 A1 신진작가전, 금보성 아트센터, 서울

2020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 코엑스 C홀, 서울

2019 제15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청년작가공모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2019 지금, 바로 여기, 갤러리 그림손, 서울 외 다수

Solo Exhibition

2020 The Afterimage: A Trace of Memories, Gallery H, Seoul

Group Exhibition

2020 The 5th A1 Young Artists Exhibition, Geumboseong Art Center, Seoul

2020 Korea Galleries Art Fair 'ZOOM-IN', COEX C Hall, Seoul

2019 The 15th Gwanghwa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Young Artists Award', Sejong Museum of Art, Seoul

2019, Here and Now, Gallery Grimson, Seoul and many others

본인에게 기억이란 일상의 감각과 지각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과거의 시·공간이 응축된 추상 판넬이다.

기억들은 저장·인출되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감각,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된다.

이러한 기억의 축적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로써 기억구조를 구축하며

이는 종합적 사고와 실천적 태도를 이행하는 주체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된다.

본인은 이러한 기억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본인 스스로를 파악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역할을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한

주체적 욕구에 의해서인 동시에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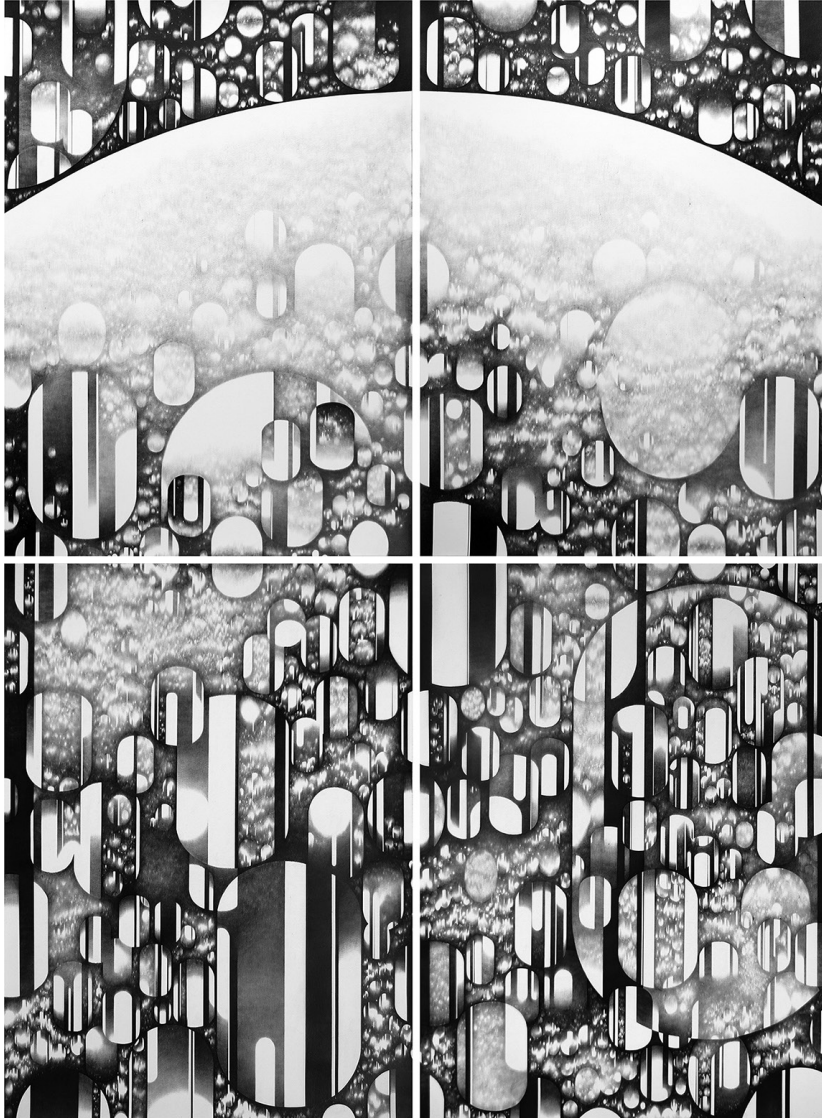
이와 같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억들이 겹치는 형상과 이로부터 구축된 기억구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기억들 2, 기억들 1, 각 60x50cm, 종이에 볼펜, 2020



'시간' 연작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458pm, 241am, 613am, 1027pm), 각 50x50cm, 종이에 볼펜, 2020



괘적 (Part. 3, 4, 9, 10)
종이에 볼펜, 150x110cm, 종이에 볼펜, 2020

먼저 기억이라는 비가시적 추상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기억을 저장하고 회상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인은 기억하고 싶은 대상이나 상황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한다.

일정 시간 동안 그 대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레 대상을 비추는 빛의 흐름에 따라 시선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로 당시의 분위기나 인상들을 기억으로 저장하게 된다. 이는 대상을 파악하고 이를 가시적인 것으로 재현하는 것에 익숙한 연구자에게 빛과 어둠, 즉 명암의 흐름을 읽는 것은 예술가의 습성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관찰을 지속하는 동안 강렬한 빛이 시각을 자극하여 경험하게 되는 잔상효과와 어떠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카메라 렌즈에 빛이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형상들로부터 도출한 둥근 형태, 직선, 기둥, 단면과 같은 기초 조형들은 본인의 기억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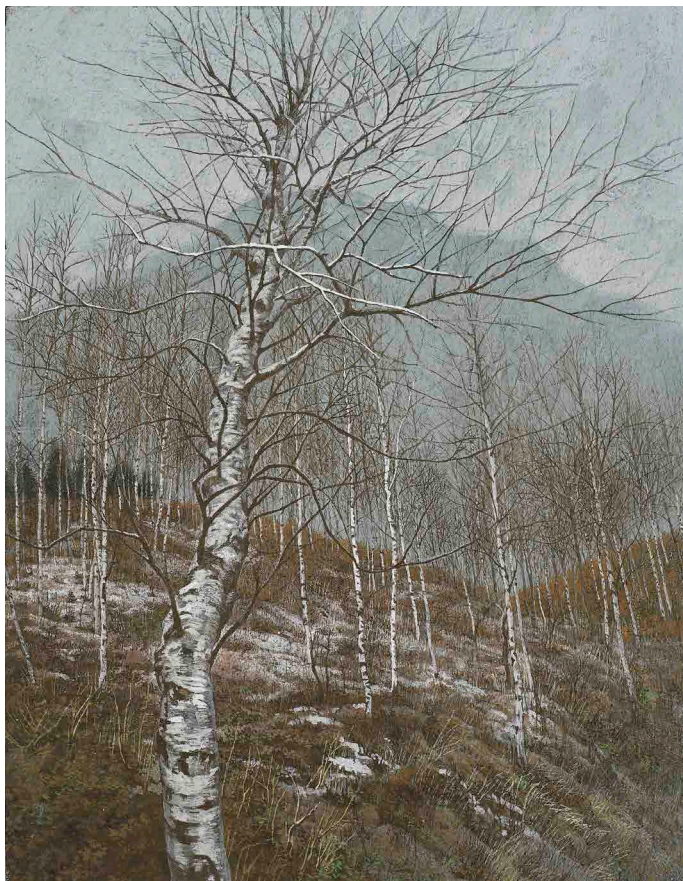
이를 기반으로 작품의 전면에는 여러 기억 이미지들이 결집한 양상이 밀집하여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이 공간은 기억 이미지들이 구축한 기억구조이자 한 개인의 주체성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이종민
Lee, Jong Mi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피서전>이천시립미술관, 이천
 한*일 지역미술관<협업의 묘미전>, 영은미술관, 경기광주
 <The인왕산(仁王山) Project>검재정선미술관, 서울
 개인전 11회 및 상하이, 두바이 등 다수의 단체전

M.F.A Graduate Seoul Natural University
 <Vacation exhibition> Icheon City Museum of Art
 Museum of Art in Korea, Japan<the beauty of collaboration>, Yeong-eun Museum of Art
 <The Inwangsan Project>, Gyeongju Museum of Art
 11 individual exhibitions and a number of organizations, including Shanghai and Dubai.



봉천가는 길-범바위, 116.7x91cm, 흙벽지위에 석회, 천연석채, 토분, 2019



세월이 찬 청이끼, 55x49cm, 흙벽지위에 석회, 천연석채, 토분, 2020



세월이 찬 청이끼2, 55x40cm, 흙벽지위에 석회, 천연석채, 토분, 2020

시간의 지속에 따른 체험의 중첩

무광택의 회벽이 다른 형상으로 환생하고 있는 자작나무와 설경은 오랫동안 나의 작업의 근간을 이어온 소재였다. 가치를 이어 붙인 연리지가 아닌 것으로 그 간격, 사이, 거리를 기본적인 생육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 자작나무의 배경에는 인왕산의 병풍바위나, 범바위가 표현되어 화면전체의 숲이 마치 홍천에서 옮겨온 것으로 늘 보던 익숙함에 대한 결별에서 새로운 것과의 조우, 다른 영토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나기 위해 자기 존재를 던지는 것에서 그림여행길을 나서는 것이다.

가을과 겨울, 봄, 사이가 중첩된 절기에 맞물려 있는 간극에 도드라지는 운동성과 엮이는 생명력이 미묘하게 겹쳐진 비움의 마음으로 인도한다. 간절기는 늘 나를 깨닫게 한다. 완전한 계절은 늘 모른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피부로 느낀다. 사람들처럼……

이주현
Lee, Ju Hyun



One way, one dream-connecting minds through art, 여주 미술관, 여주, 2020
 아시아프 2019, DDP, 서울, 2019
 "공간의 맛 ", 스페이스 신선, 서울, 2019
 개인전 'Incubation period' -파비온드 갤러리, 서울, 2015
 개인전 'Incubation period'- 유중 아트센터, 서울, 2014
 개인전 'Incubation period' -노암 갤러리, 서울, 2014

One way, one dream-connecting minds through art, Yeoju Art Museum, Yeoju, 2020
 Asyaaf 2019, DDP, seoul, 019
 <Taste of space>, Space shinseon, seoul, 2019
 Solo invitation Exhibition, Far Beyond Gallery, Seoul, 015
 Solo invitation Exhibition 'Incubation period', ujung art center, Seoul, 2014
 Solo invitation Exhibition 'Incubation period', Noam gallery, Seoul, 2014



Untitled-1, 60x60x15cm, resin, 2019



Untitled-2, 60x60x15cm, resin, 2019

이주현은 전체가 긴밀한 인과에 의해 구성되는 유기적 구조가 아닌 각각 독립된 단위 자체가 갖는 고유의 특이성에 주목하고 이를 보다 직접적이며 촉각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골반이나 달팽이 촉수, 기쁨 등 일상의 작은 단위들은 주변의 어느 것과도 접속하지 않고 독립된 형태로 정해진 위치에 자리할 때, 그것은 그것을 지시하는 의미 그대로로 사유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단위들이 합쳐져 새로운 하나의 총체로 제시되면서 그 의미는 교란되고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작가는 이렇듯 사소한 일상의 단위들을 무작위적으로 조합하여 그 단위 사이에 균열과 동요를 만들으로써 하나의 의미로 파악할 수 없는 초과된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ORGANIC-SANS ORGANIC, 160x140x140cm, resin, 2013

이 청 자
Lee, Chung Ja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 34회
France Paris Invitation
New York Invitation of Korean Art
대한민국미술대전 조직, 운영, 심사위원역임
현재, 한국미협상임고문, 한국여성작가협회고문, N.A회고문, 송파미협고문, ArtifexMAgency

34 times of Solo Invitation Exhibitions
France Paris Invitation
New York Invitation of Korean Art
Present: Korean Art Association Executive Advisor, Korea Women Artist Association
Advisor
Korea Professional Artists Association Director



Song of My Soul, 116.7x91.0cm, Mixed Media, 2021



Song of My Soul, 72.7X60.6cm, Mixed Media, 2021



Happy Dream Garden, 91.0x72.7cm, Mixed Media, 2021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공간으로 부터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을~
 원색적인 꽃의 이야기들은
 빛나는 생명체들의 환희와 소원을 은유하고, 자유로운 비상의 상징으로,
 나비와 새 물고기등과 항상 감동을 주는
 바이올린 음률등으로 내 마음의 자유를 표현.

인간의 삶에는 누구나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생각나는 기억들과,
 꿈꿔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 또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표현하고자 했다.

이태길
Lee, Tae Gil



개인전 25회

2007 '제3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수상

1997 '제26회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1974 '제11회 목우공모미술대전',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목우회이사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장 역임

현재, 광화문아트포럼회장, 신작전회 회장

25 times of Solo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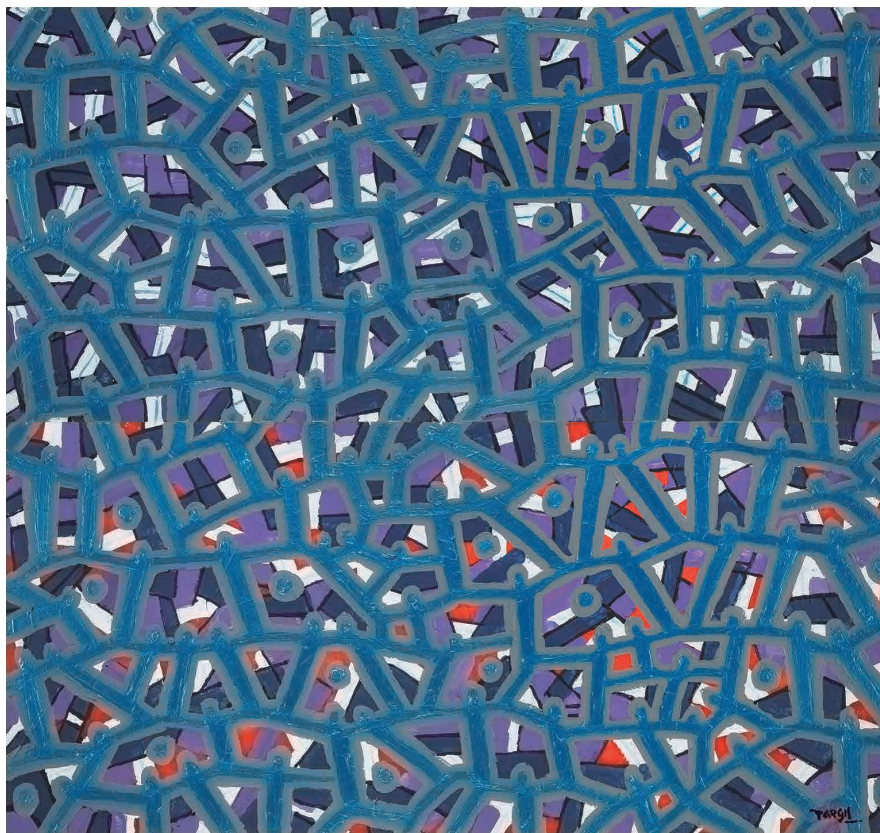
'The 39th Korea Culture&Art Award', President Prize

'The 26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Minister's Prize by Ministry of Culture&Public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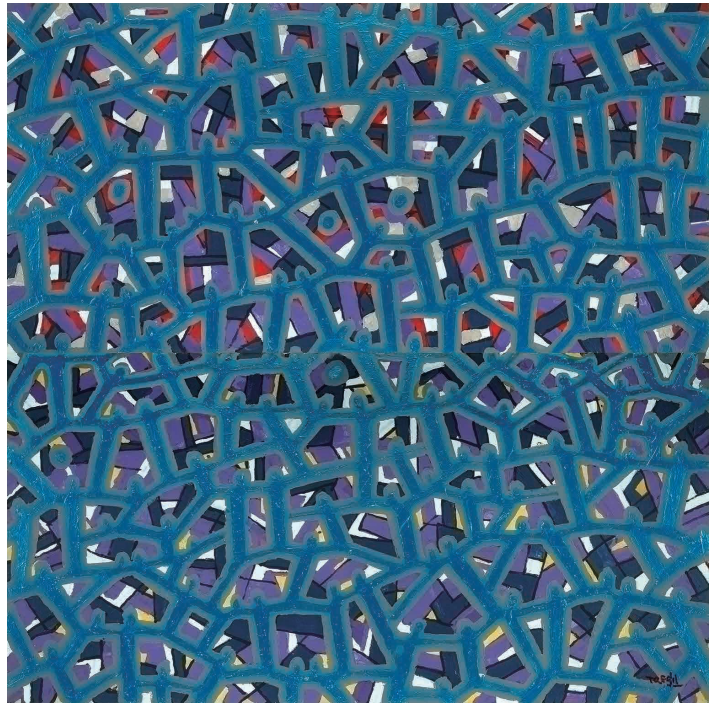
'The 11th Mok-Woo Hoe Fine Art Association', Minister's Prize by Ministry of Culture&Public Information

Judge of Grand Art Exhibition, Art Director of Gwangju City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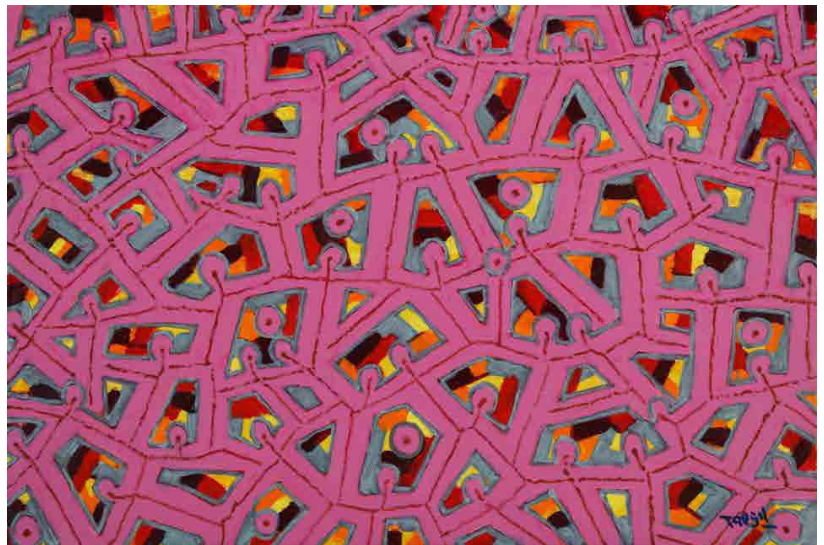
Present, Chairman of Shinjak Association



Festival (祝祭-세날을 노래함), 130x121cm, oil on canvas



Festival (祝祭-새날을 노래함) 2, 130x121cm, oil on canvas



Festival (祝祭-갈채), 88x58cm, oil on canvas

이
훈
기
Lee, Hun Ke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박사
2014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특별 초대전 (바람 그래서 생명전), 외 개인전10회
2020 한국기초조형학회 최우수작가상 수상
2019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작품전
2014 국회의장상 수상 (GIAF)
2012 광화문아트포럼선정 올해의 작가상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ankook University
2019. 4rd, GIAF Solo Exhibitio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2020 KSBDA Best Artist of the Year
2019,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Exhibition
2014GIAF Grand Prize at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2012, Gwanghwamun Art Forum Artist Of The Year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인간이 만든 원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그것의 출발은 자연일 것이다.



접시2021-21, 35x35x5cm, 석기질점토외,1100,1260°C라쿠소성, 2021



접시2021-11, 35x35x5cm, 석기질점토외, 1100, 1260°C라쿠소성, 2021

Lim, Seung O
임승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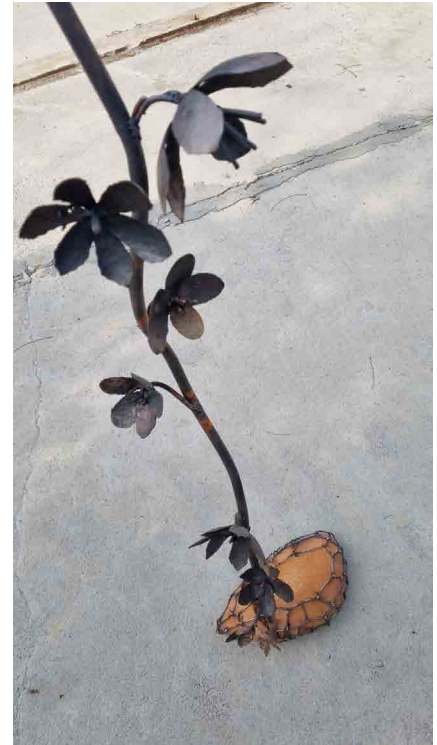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바르셀로나대학원 및 박사과정수료
개인전 16회
국제조각심포지엄 및 아트페어 다수 참가
2020 경기미술상 수상

B.F.A in Sculpture, HongIk Univ
M.F.A Barcelona Univ. & Completed the Regular course doctor
16th Solo Exhibitions
International Sculpture Symposiums .& Art Fair numerous
kyunggi Artist prize win of 2020 year

Acheulean- 꽃피우다
40x20x60cm, copper, stone, 2020



시간의 여정
50x50x120cm, terracotta, copper, 2021



우리 인류가 위대한 진화의 행진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 과거는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 내었다.
미래도 우리를 진화의 여정으로 인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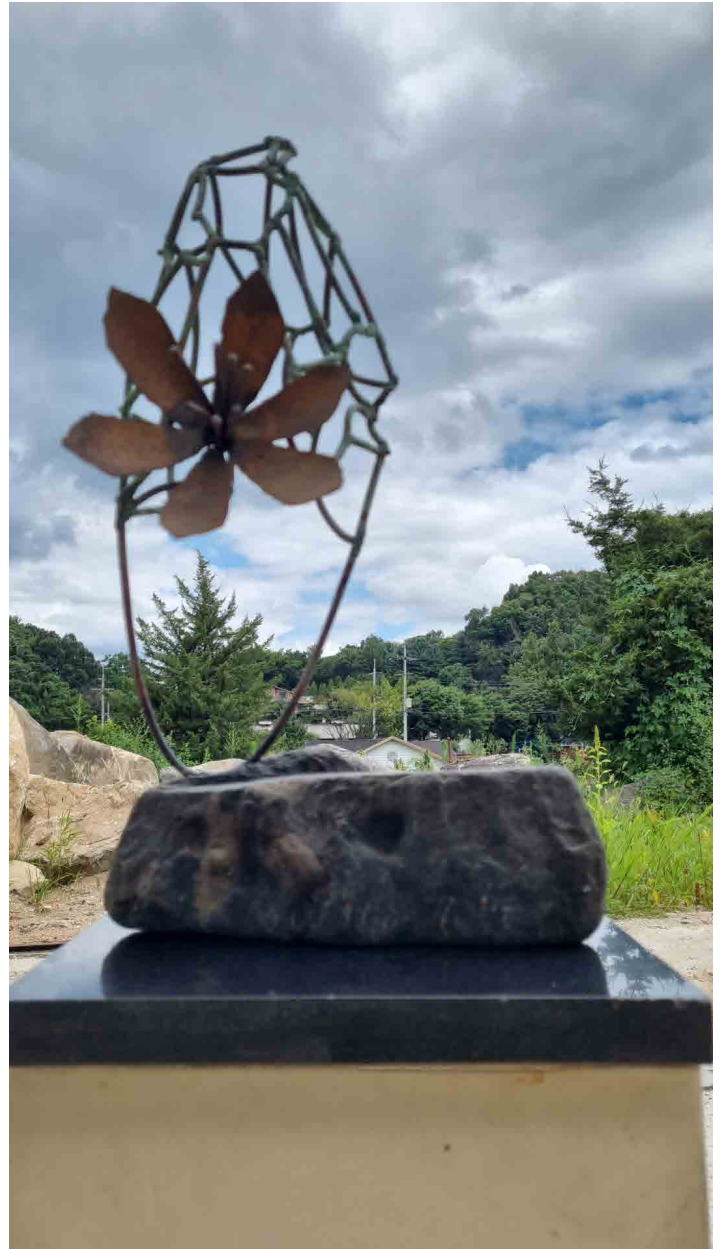
인류가 최초로 무엇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만들었을 것이다.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했던 구석기인들은 주변의 돌로 도구를
만들어 씹으로써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
인간사회를 만들어갔다.
도구의 쓰임새에 따라 한 방향으로
돌을 떼어내 쓰던 방법이 점차 양쪽으로
돌을 떼어내 쓰게 되면서 인류의 도구의 발전이 시작 되었다.

수십 수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살아온 구석기인들
또한 양날도끼 아슐리안(Acheulean) 석기를 사용했음을
전곡리 유적지에서 알 수 있다.
그 당시의 맥가이버 칼과 같은 만능 돌도끼가
지금 우리 손안에서 떠나지 않는
핸드폰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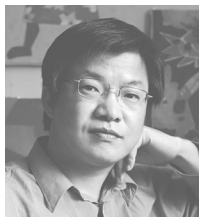
타제석기가 마제석기로 청동기로 철기시대로,
전기와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전자 칩이 개발되고,
리모컨이 생기고, 진공청소기가 등장하고,
이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며,
인공지능 AI시대가 왔다.
20만 년 전 한반도 최초의 고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이 쓰던 만능 돌도끼가 시대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을 통해
지금의 한민족은 수많은 역사를 거치며 이 한반도를 지켜왔다.

한탄강유역 전곡리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아슐리안형 석기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대적 작품으로 승화시켜 조명해 본다.

문명의 이기 3-1 (modern conveniences)
30x20x50cm, copper, stone, 2021



임종두
Lim, Jong Doo



전남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 23회

KIAF (COEX) . SOAF (COEX) . 화랑미술제 (예술의전당).Europ' ART 2008 (제네바)
AIAA2008 (홍콩).ART Singapore2008 (싱가폴). 아트바젤 (스위스).
휴스턴 아트페어 (미국). 햄튼 아트페어 (미국)

B.F.A. at Chonnam University .

M.F.A. at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Winner of the Korea Grand Art competi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bout 23times Solo Exhibitions

KIAF(COEX). SOAF(CO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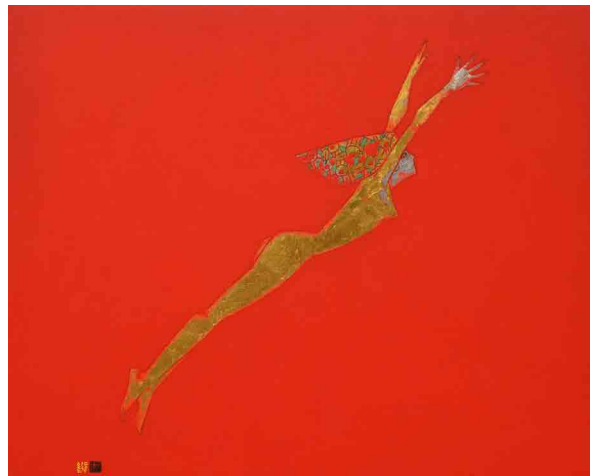
Korea Galleries Art Fair (Seoul Arts Center). Europ' ART 2008 (Geneva)

AIAA2008 (Hongkong). ART Singapore2008 (Singapore)

Art Basel (Suisse). Houston fine art fair (USA).



同行, 130X130.3cm, 장지에 석채, 금박,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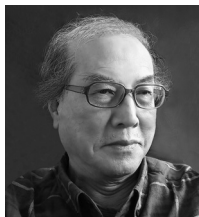


人, 100X80.3cm, 장지에 석채, 금박, 2021



달리달리, 116.8X91cm, 장지에 석채, 금박,은박, 2021

장완영
Jang, Wan Young



국립 강원대 예술대학장, 조형예술연구소장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국대학미전 심사위원/ 운영위원장 역임
개인전 12회/ 그룹전.단체전
서양화 원로작가 100인초대전 (월간미술세계)
서울 강북미술협회 고문
현재, 국립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Nominated as President of Arts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Nominated as member of jury for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12 Solo Exhibition / Group Exhibition
Invited Exhibition by Senior 100 Artist
Advisor, Gangbook Art Association
Emeritus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봄꽃, 53.0x40.9cm, Oil on canvas, 2020



추수, 53.0x40.9cm, Oil on canvas, 2020



과일농사, 90.9x65.1cm, Oil on canvas, 2021

전성규
Jeon, Seong Kyo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동대학원 서양화와 졸업
호주 RMIT 대학교 미술학 박사 졸업
개인전 27회
단체전 320회
'제3세계 현대미술 초대전', 한문텐미술관, 독일
2019 광화문아트포럼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상 수상
현재, 국립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B.F.A.&M.F.A. in Seoul National Univ.
D.F.A. in RMIT Univ., Australia
27 times of Solo Exhibitions
320 times of Group Exhibitions
'The 3rd World Contemporary Art', Invitaion Exhibition, Hanmunden Museum,
Germany Present, Professor of Visual Art, Mokpo National Univ.

삶은 생명의 지속이다. 생명체는 입자와 파동으로 물질과 정신의 경계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성을 구현하게 된다.

나의 작품은 진정한 생명이 삶으로 현상화 되는 접점에서 발화되고 표출되는 생명현상에 주목한다.

Hidden Passage-Life Phenomenal
Acrylic on Cavas, 72.7x60.6cm, 2021





Hidden Passage-Life Penomena11
Acrylic on Canvas, 100x72.7cm, 2021

전신종 Jeon, Shin J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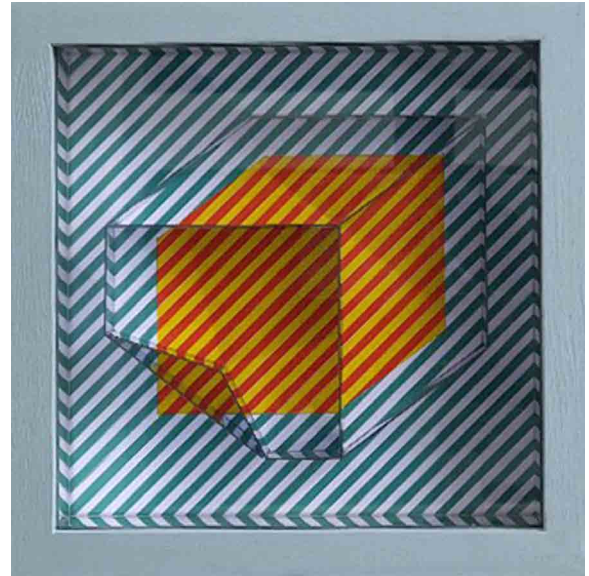


개인전 20회,
단체 초대기획전 200여회
현재, 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조교수, 한국기초조형학회 수석 부회장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CT Design, Hansung University
Vice Chair,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Solo Exhibitions Episode20
200 group and special exhib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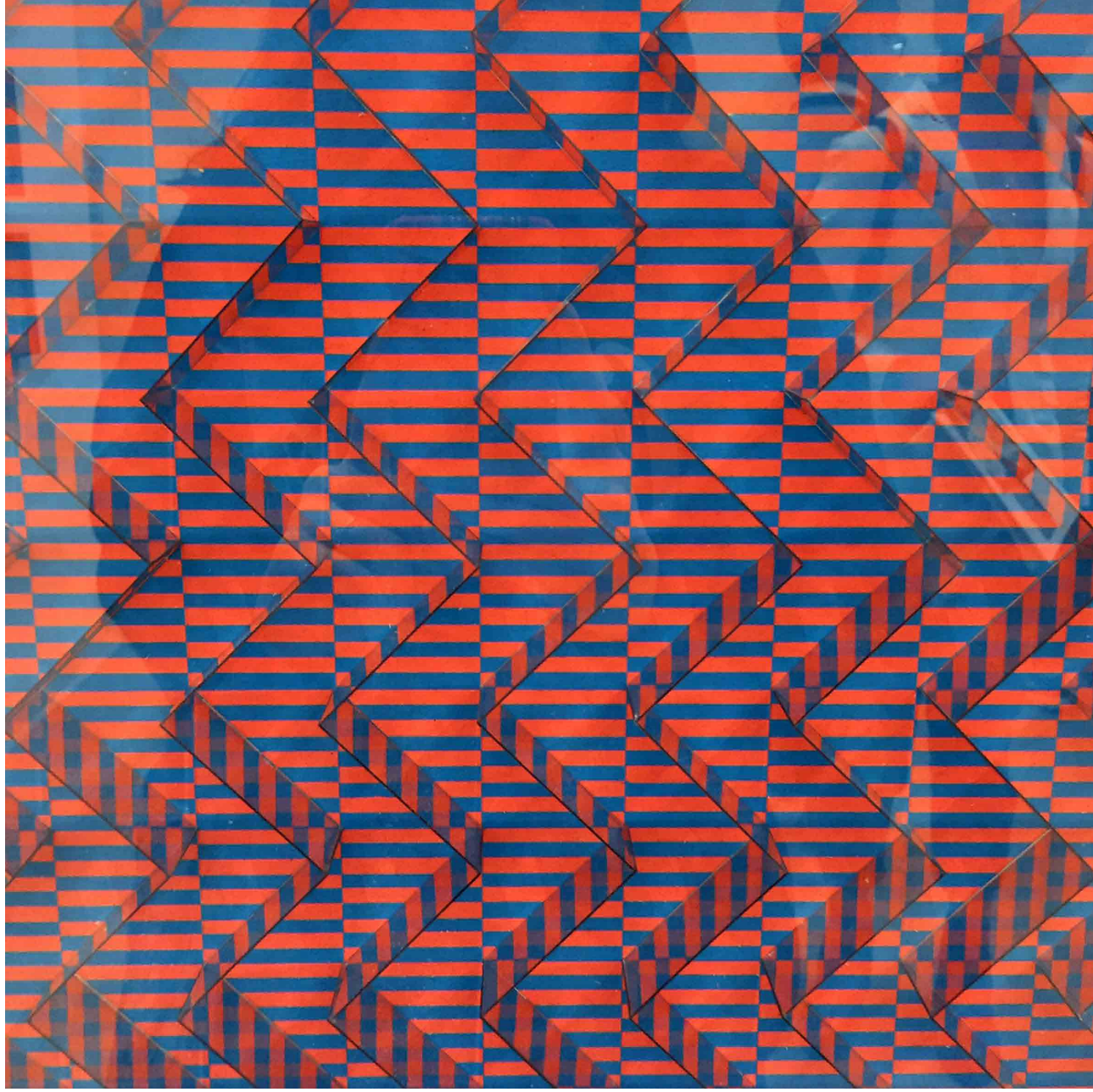


Reflection cube, 30x30cm, 아크릴채색, 하프미러, 2020



Reflection cube, 30x30cm, 아크릴채색, 하프미러, 2020

Reflection cube, 90x60cm, 아크릴채색, 하프미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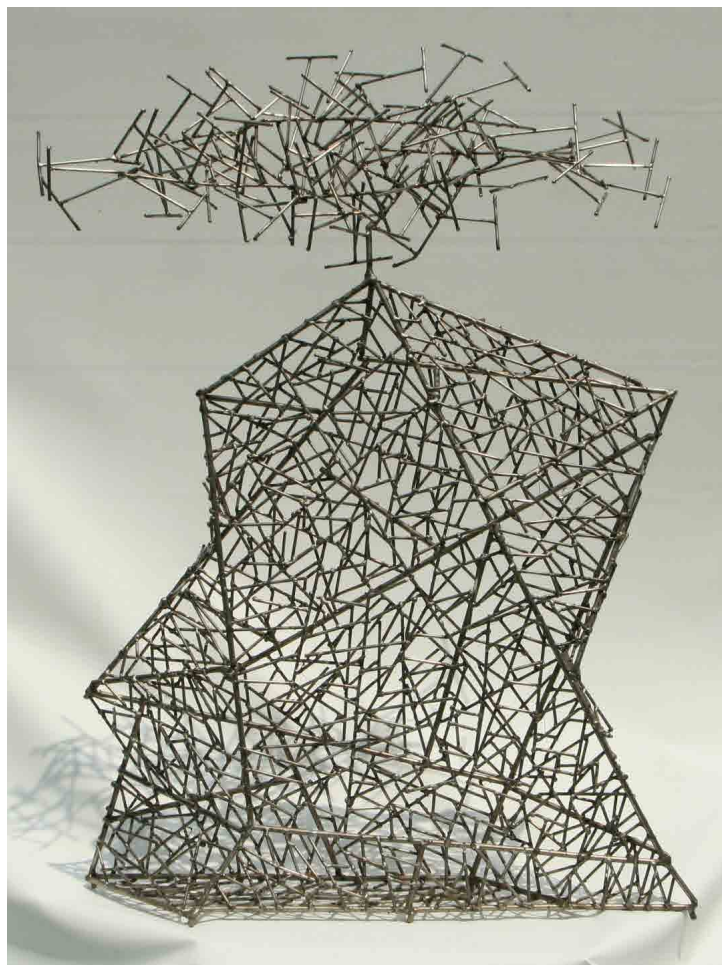


Chon, Joon
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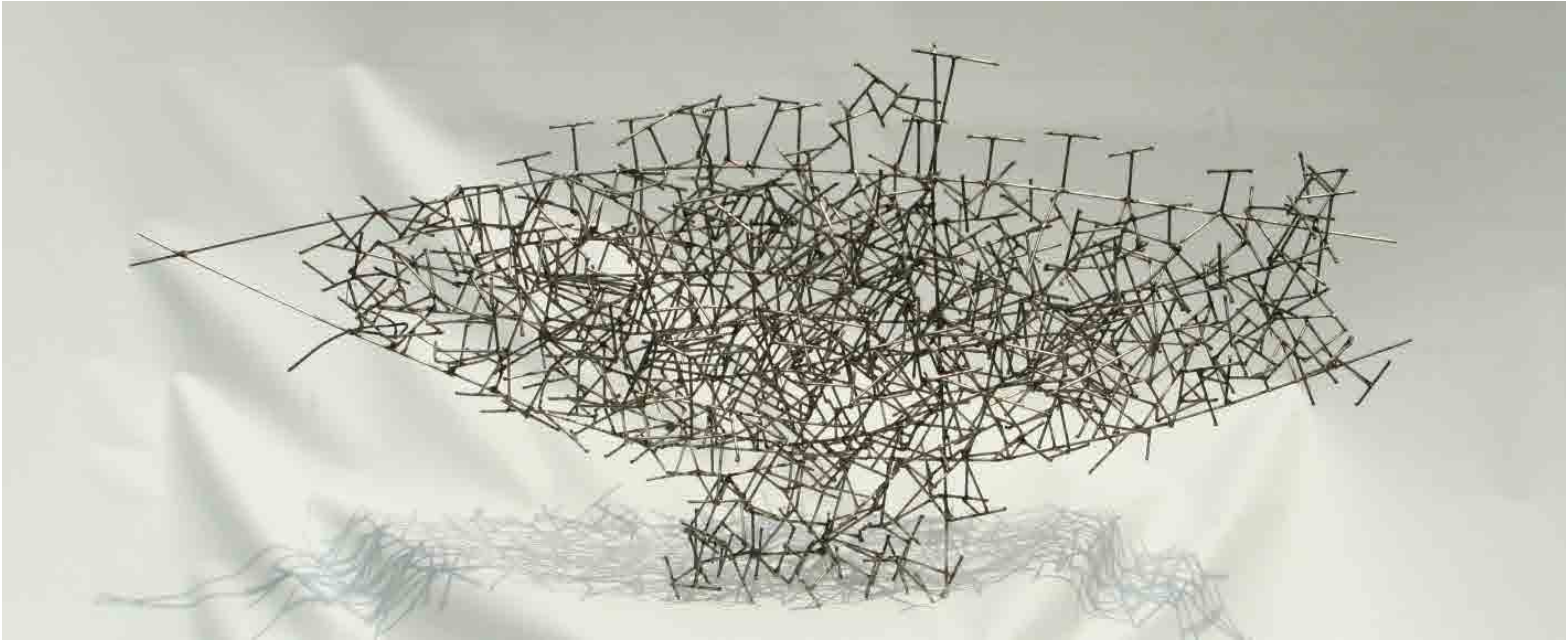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석사 졸업
개인전 13회 마니프 대상 수상, 김세중 조각상 수상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명예교수

B.F.A. in Seoul National Univ.
M.F.A. in California State Univ., USA
13 times of Solo Exhibitions
'MANIF', Grand Prize
Present, Emeritus Professor in College of Fine Art in Seoul National Univ.



소리-존재의의미, 60x20x80cm, Stainless steel, 2007



소리-존재의의미, 120x20x54cm, Stainless steel, 2007

전진규
Jeon, Jin Gyo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사각갤러리.관훈갤러리.제3갤러리.청년미술관.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KB증권갤러리.구구갤러리
단체전: 한국현대미술가협회(KAMA)전. 한국미술 리필전.아시아미술가협회전(AAA)전.
광희문국제아트페스티벌.등 180회
현재, 한국현대미술가협회(KAMA). 광화문아트포럼. ZERO회. 도원행. 경인수채화협회 회원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Western Painting
Individual Exhibition: Square Gallery.Kwanhun Gallery. The 3rd Gallery.Youth Museum of Art. Hangaram Museum of Art Hall.KB Securities Gallery.Gugu Gallery
Group Exhibition: Korea Contemporary Artists Association (KAMA) Exhibition.Korean Art Refill Exhibition.The Asian Artists Association (AAA) exhibition.Gwanghoe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e 180th
Pres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Artists (KAMA). Gwanghwamun Art Forum.Zero. Going to Dowon.Member of the Light Watercolor Association

'그리다'에 행위의 이유와 가치를 재규정 해 나가고 싶다.
정형화 되어가는 것을 거부하지만, 어렵다!
보여짐과 드러남, 현실과 비현실에 내재된 감추어진 것 들에 관심이 닿아 있다.

그림 안의 나무와 풍경들은 실재 했었는지,
실존하고 있을지 모를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놓은 것 처럼 보인다.
허상의 기억으로 남겨진다.



Virtual image, 194x96.7cm, Acrylic on canvas, 2021

Virtual image,
102x72cm, Acrylic on canvas, 2021



Virtual image,
53x33cm, Acrylic on canvas, 2021



정명희
Chung, Myung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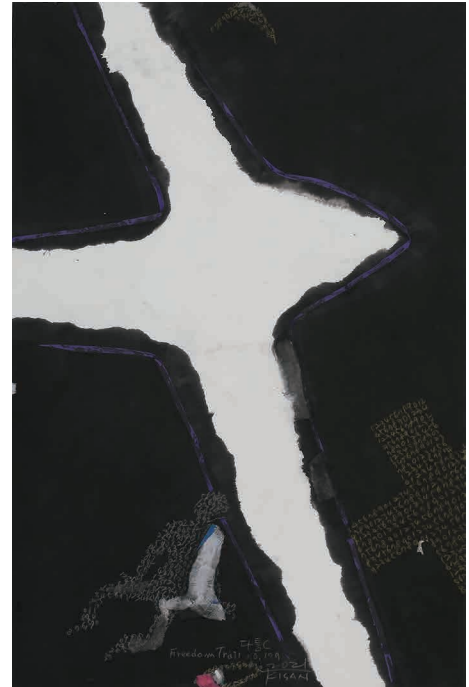
개인전/자유의여정(인사아트프라자외 88회/서울)
단체전/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운영위원,심사위원 역임)
한국화동질성전 명예회원(강릉,광주,대구,대전,부산,전주,제주,청주)
초대전/한국현대미술전(이탈리아,독일,헝가리,러시아,일본,중국,인도등)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대전시립미술관초대 '먹의 시간'(대전시립미술관)

Solo Exhibition 'Freedom Trail'(Insa art plaza excluding 88th/Seoul)
Korea Fine Arts contest Exhibition(consaltant,Committee member)
Tracin the Identity of korean painting(founding member, Honorary member)
Korea Modern Art Exhibition(Italy,Germany,Hanggari,Russia,Japan,China,India)
Jeonnam International Ink Art(mokpo Art Center)
Time for Ink(Daejeon Museum of Art)

수묵작업 중에 파생되는 운필의 변화를 삶의 에피소드에 연결시켜
정적인 화면을 동적인 화면으로 전환시켜 보았음.



다툼B Freedom Trail NO.200
70x104cm, paper+muk, 2021



다툼C Freedom Trail NO.199
70x104cm, paper+muk, 2021

다툼A Freedom Trail NO.198
70x104cm, paper+muk, 2021



정미애
Adela, Jung



동국대학교 고고 미술사학과 졸업
개인전 및 부스전 2회 (서울,파리)
1988~2021 단체전 및 해외 초대전130여회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심사위원, 사)한국미술협회 서대문지부 초대회장
현재, 풍세유 미술관장(파주), 풍세유갤러리(인사동), 아티스트아델라정,
ADAGP(글로벌저작권가),아트노믹스 제휴작가

Graduation of Department of archeology artist in Dongguk University
Private Exhibition / Booth Exhibition 2 times(Seoul/Paris)
Successive) Judge of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President of Seodaemun Art Association
Present) Director of Conseil Art Museum(Paju), Conseil Gallery(Seoul),
Artist Adela Jung, ADAGP, Artist of Artnomix

기성면 구산리 외가에서 보냈던 어릴적 추억이 정미애라는 예술세계를 만든 양분이 되었다.
소나무가 우거진 월송정의 풍경, 코 끝을 스치던 송진 향기,
그 숲에 어우러져 넓게 펼쳐졌던 동해바다와 모래사장, 그 바닷풍경을 붉게 물들었던 저녁노을까지
중년이 된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하다.
아름답고 따뜻했던 감정을 화폭에 담고자 고민을 거듭했고 오직 느낌에 맡겨 춤추듯 붓을 든다.

구상과 비구상으로 연결된 그림 속에서 추구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실체는 한국별종위기종인 산양이다.
고향을 찾는 동안 수십번의 산행을 했지만 어렵게도 산양을 눈에 담지 못했다.
그런 갈망이 꿈을 꾸듯 그리운 생명체로 내 마음에 파고들었다.
내 그림 속의 산양은 그리움이고 사랑이다.
산양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달, 물고기, 풀잎, 산새 등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을 화폭에 담아 그들을 품고 싶었다.



숲속의 잔치, 116.7x91cm, Oil on canvas, 2019



정원, 116.7x91cm, Oil on canvas, 2020



기다림, 162x130.3cm, Oil on canvas, 2019

조국현
Cho, Guk Hyun



개인전 34회 (한국, 프랑스, 일본, 중국)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 60여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현재, 도시문화공공예술협회 회장, 광화문국제아트포럼 운영위원, NA 고문, 송파미술가협회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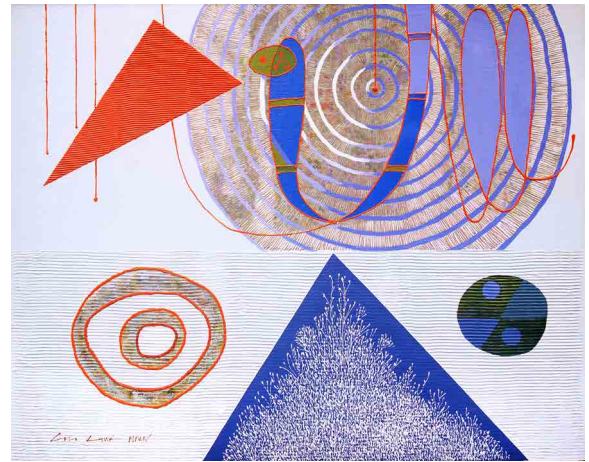
The 34times Solo Exhibition (Korea, Paris, Japan, China)
The 60times Biennials and Art Fair
Judge of Korea Fine Art Competition and Steering Committee
GIAF Gwanghwamoon International Art Festival Steering Committee Member /
President of Urban Culture Public Art Association / Advisory of Sonpa Artist Association
/ Advisory of New Art Group

자연과 인간의 끊임없는 부대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것은 때로는 대립으로 때로는 공존과 상생의 시선으로 보여지고 나는 그런 찰나의 순간들을 화폭에 담습니다.
추상화하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그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의 서정적 추상에 있어서는 심리, 소리, 감정, 생각과 같은 것들이
이미지를 통해 변주되는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도 큰 모험이자 도전의 연구물입니다.
무한한 상상과 즉흥적 감흥의 세계가 이미지 안에서 꿈틀거리고
이것은 나를 비롯한 우리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 심상(心象) I, 162.2x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우주와 생성 I,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vision of civilization I , 130.3x162.2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조명식
Cho, Myung Shik



서울대학교 회화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60여회/1991~2021
단체전 600여회/1984~2021/뒤셀도르프,뉴욕
페인팅 퍼포먼스/서울,뉴욕,방콕,광저우
공모전/제1회 미술세계대상전 대상수상

B.F.A, Seoul National Univ, Painting
ONE PERSON EXHIBITION
1991~2021,60times(NewYork, Istanbul,)
GROUP EXHIBITION
1984~2021/600times(Dusseldorf, New York, Istanbul)
Painting Performance/NewYork,Guangzhou
The 1st Public Contest for New Artist by ART-WORLD/Award Grand Prize/Seoul

나를 둘러있는 모든 대상은 고유한 가치와 존재의 이유가 있다.
나는 대상을 알아갈수록 나의 무지와 대면한다.
내가 숨 쉬는 숲은 각양 생물의 노래로 충만하다.
숲을 그리는 것은 대상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내 목소리와 몸짓을 섞어보는 버스킹이다.
그래서 나의 화면에는 생명의 노래가 무지의 여백이 그리고, 숲의 생동감이 공존한다.
나는 그림이 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코나투스 숲에서 호흡은 곧 그림이 된다.



Spring 2021, 122x122cm, acrylic on canvas, 2021



태백4계, 237x2,000cm, acrylic on canvas, 2021



Field2021, 91x116.7cm, acrylic on canvas, 2021

조성호
Cho, Sung Ho



개인전 및 초대전 29회(서울, 대전, 제주, 뉴욕, 상해 등)
아트페어 : 구상대제전, 상하이, SOFA, KOPA, KAPM, DIAS 등 다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및 조직위원, 심사위원 역임
국제전 :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중국, 헝가리, 터키, 홍콩, 크로아티아 등
한국현대미술신가회 회장, 서울아카데미회장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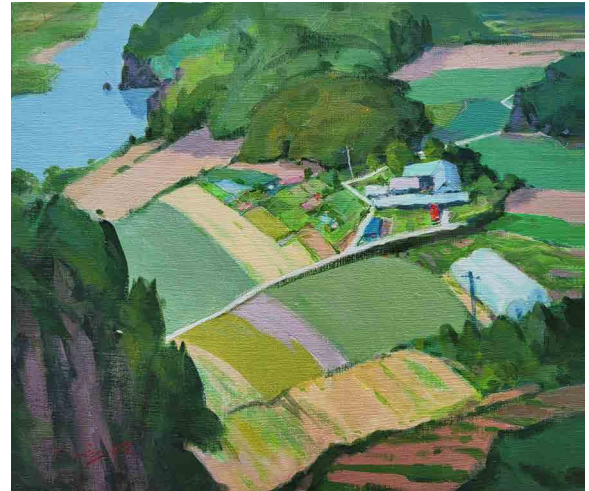
29 individual exhibitions and invitations (Seoul, Daejeon, Jeju, New York, Shanghai, etc.)
Art Fair: Sanggu Daejeon, Shanghai, SOFA, KOPA, KAPM, DIAS, etc.
Chairperson of the operation and organizing committee of the Korean Art Competition, and served as a judge
International competitions: United States, Japan, Russia, France, Canada, China, Hungary, Turkey, Hong Kong, Croatia, etc.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Contemporary Art and the President of the Seoul Academy
First Artist of the Republic of Korea Art Exhibition

누가 나에게 고향을 물을 때마다 나는 서슴없이 내 고향은 자연이라고 대답한다.
그만큼 자연은 나를 그림에의 길에 들어서게 한 어머니 이기도 했고, 또한 스승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높이와 깊이를 老子와 莊子처럼 익히 숙달하지 못한 탓으로
아직도 내가 構圖라는 자그마한 限界内部에서 다만 그 풍미를 모티브로 하는데 그치고 있다.

내가 비록 자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연에서 숨을 거두라는 명령을 나에게 줄 사람은 없다.
서양화가 도달한 모든 세계를 前進의으로 내 화폭에 담아
현대회화가 지녀야 할 世界的普遍性에 나는 되도록 접근하고,
이 장벽을 뛰어넘고 싶은 욕망과 그 추구의 길에서 손을 뗄 생각은 없다.
그 향해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일교차가 심하다 하더라도
변신과 발전의 필연성에 태만할 까닭을 나 자신도 인정할 수가 없다.



산토리니 이아, 150F, 유화, 2019



색동밭, 30F, 아크릴, 2021



안나프르나 히말라야, 30F, 아크릴, 2019

Choi, H. Mook
조영목



개인전 21회
2018 여수 엑스 포 국제아트페스티벌 초대작가
현재,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교수

professor of Department Ceramics (DKU)
21th solo exhibitions
2018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나의 이번 작업은 연리문을 이용한 그릇으로 무질서한 혼돈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작업이며, 반대로 격자문의 질서적세계에서 무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질서를 탐구한다.



연리문 발 No 20210825-1, 35x18cm, 색점토, 백색자기토, 2021



연리 격자문발 No 20210825-2, 30x42cm, 색점토, 백색자기토, 2021



연리문 선발 No 20210825-3, 41x28cm, 색점토, 백색자기토, 2021

차대영
Cha, Dae You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졸업
개인전 88회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등)
제1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
제5회 MANIF 서울 국제아트페어 대상 수상
제31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미술부문) 수상
현재,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Department of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and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88 Private Exhibitions(Korea, U.S., Germany, France, Japan, China, Singapore, etc.)

Grand Arts Exhibition of Korea, Grand Prize

Korean Artist Prize, MANIF 5 Seoul, Grand Prize

This year's the Best Artist Prize (Art Part)

근본적인 모티브로 자리하고 있는 인왕산은 특히 이 함축적이면서 중의적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한 강건하고 중량적인 인왕산이라기보다 섬세하고 신비한 산의 외형적인 모습은 독창적인 백색의 미감과 질학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인왕산 그림을 대했던 이제까지의 선입견을 깨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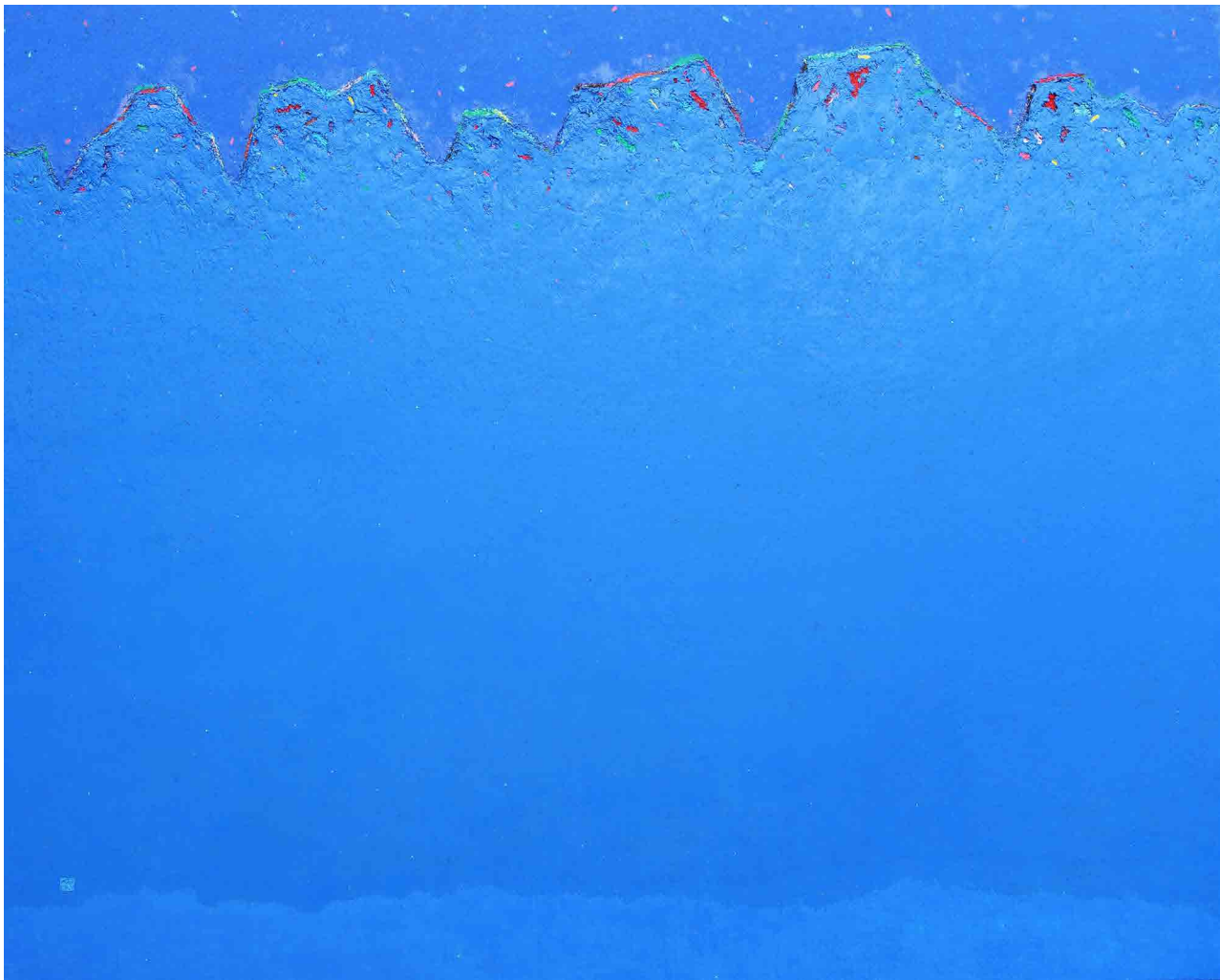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색채미학은 동서시점의 결합, 재료적인 융합, 공간과 형상을 이루는 질료와 아우라의 통합 거버넌스이며 의식 지평의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MT. INWANG, 136x162cm, Oil on canvas, 2019



MT INWANG, 112x162cm, oil on canvas, 2017



MT. INWANG, 136x162cm, Oil on canva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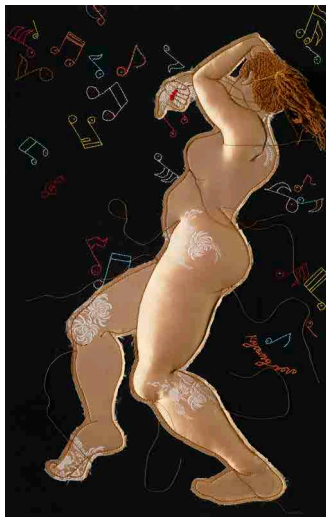
최경희
Choi, Kyoung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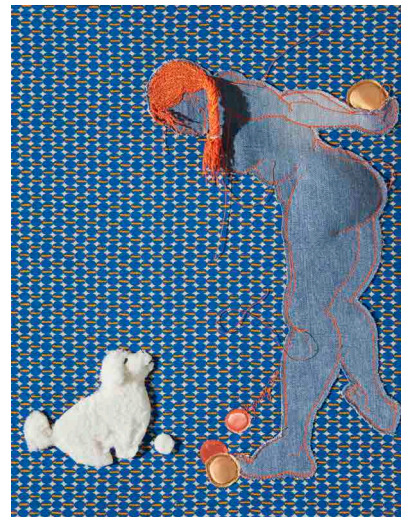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졸업(MFA)
개인전 및 아트페어 21회(서울. 성남. 일산. 안산. 중국. 스위스. 홍콩)
한국구상대제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프리미어 아트페어 홍콩 (Excelsior Hotel) 홍콩.
은빛나래초대전 (아람누리갤러리) 일산
한국미술전 (세종문화회관 전관) 서울.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fine art department (MFA)
Private Exhibition 21 times
(Seoul. Seongnam. Ilsan. Ansan. China. Switzerland. Hong Kong)
Korea Art Figuratif Exhibition (Seoul Art Center) Seoul
Hongkong Premier Art Fair (Excelsior Hotel) Hongkong
Goyang Senior Artist Exhibition (Aram Art Gallery)Ilsan
Korean Art Exhibition (Sejong Cultural Art Center) Seoul.

가공되지 않은 생생함,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서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자
순수함과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 인체에서 아름다운 선을 보았다.
그 선을 지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표현하고자 한다. 인간은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채우기 위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상이 허상이기에 반복적으로 소유함으로 욕망을 채우려한다.
욕망,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얻으려는 대상이 없으면 인간은 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욕망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욕망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다.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 욕망을 심각하지 않은 조금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자함이다.
나는 오늘도 나의 작품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작품 앞에 서다.



Desire 2005, Mixed Media on panel, 53.0x33.4cm, 2020



Desire 2015, Mixed Media on panel, 53.0x41.0cm, 2020



Conceptual Space-Desire 1605, Mixed Media on panel, 91.0x60.6cm, 2018

최용천
Choi, Yong Chu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시각디자인 전공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광고디자인 전공
개인전 10회 및 부스개인전 5회
PISA 한국현대 미술전 (이태리)
아시아현대미술전 (일본)
빅토리아시 초대전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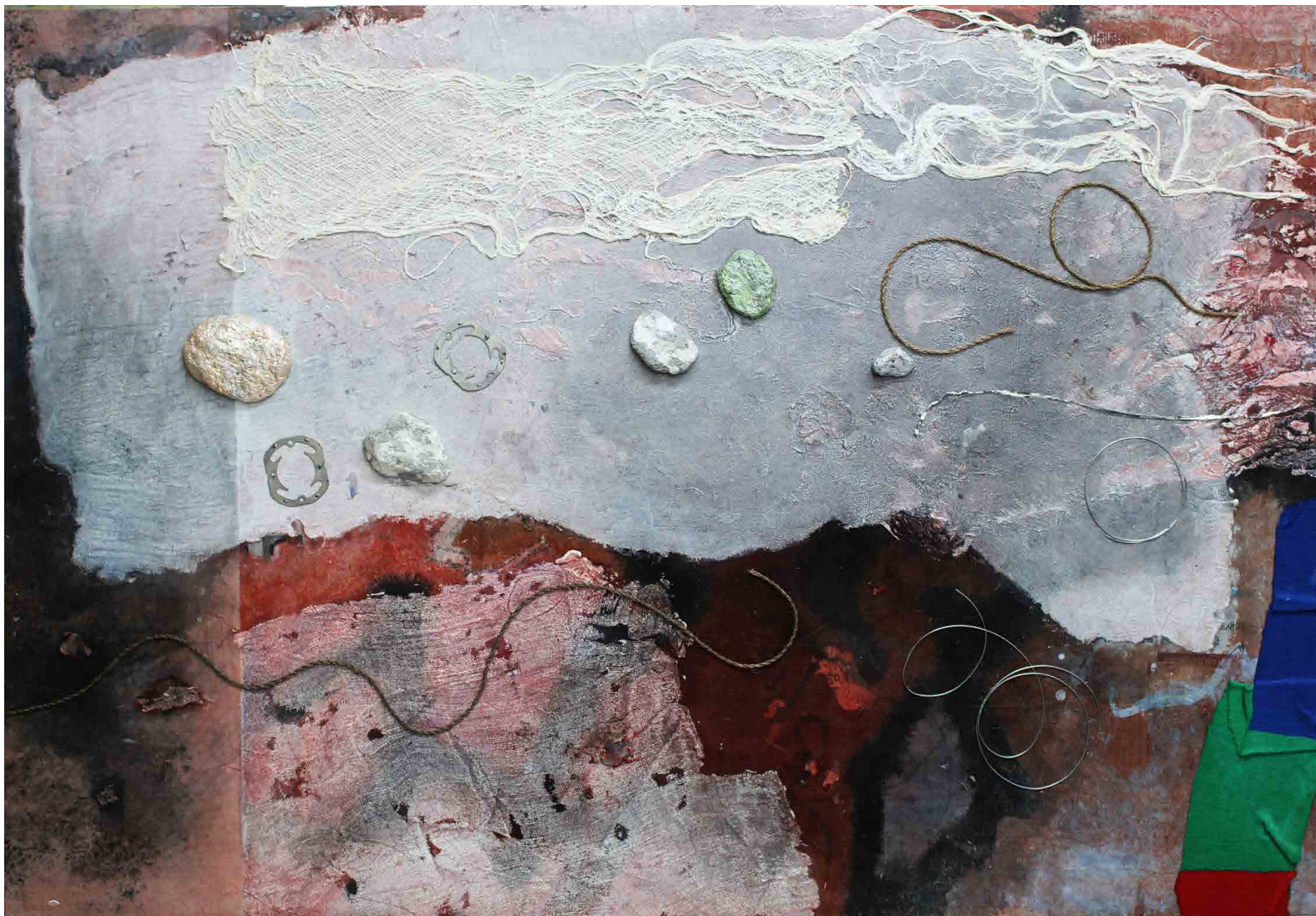
Hongik Univ., Major in Graphic Design, BFA
Hongik Univ., Graduated School of Industrial Arts, MFA
10 times of Solo Exhibitions & 5 times of Booth Affair
PISA-Korea Modern Arts(Italy)
Asia Contemporary Art Festival(Japan)
Invited Exhibition form Victoria(Canada)



Rhythm 律 웃음소리, 40x30cm , mixed media, 2021



Rhythm 律 웃음소리, 40x30cm , mixed media, 2021



Rhythm 律 바람소리, 103x71cm, mixed media, 2021

최창봉
Choi, Chang B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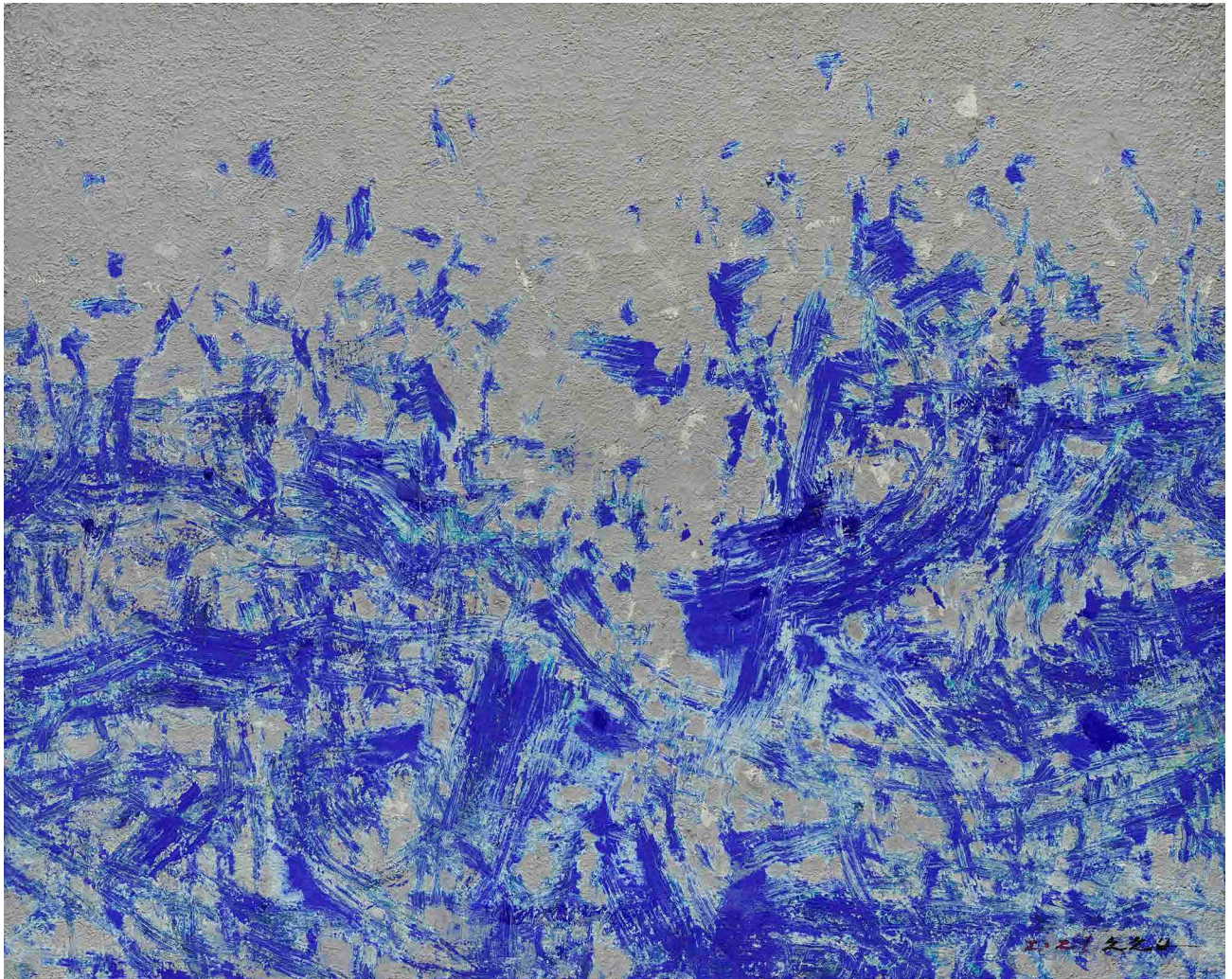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同 대학원 졸업
개인전14회(한국,일본)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우수상(과천,현대미술관)
국제수묵 비엔날레(목포 문화예술회관)
콩세유 개관초대전(콩세유갤러리)
광화문아트포럼 초청작가전(동덕아트 갤러리)및 단체전200여회
현재, 한국미술협회,,회화2000,아트노믹스 제휴작가, 광화문아트포럼,유연회원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충북대,선화예고 출강

Graduate School of Oriental Painting and Graduate School of Art at Hongik University
14 individual exhibitions (Korea, Japan)
Special and Excellence Awards
(Gwache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the Korean Art Exhibition
International Ink Biennale (Mokpo Culture and Arts Center)
Invitation to the opening of Kongseyou Gallery
Gwanghwamun Art Forum invited artists (Dongdeok Art Gallery)
and more than 200 group exhibitions
Currently, Korean Art Association, Painting 2000, Artnomics Affiliates,
Gwanghwamun Art Forum, Flexible Members
Hongik University Art Education Center, Chungbuk University,
Sunhwa Arts High School attendance



바람결 사이, 116.8x91cm, 한지에 닥 아크릴, 2021



바람결 사이, 90.9x72.7cm, 한지에 닥,아크릴, 2021

한근석 Han, Geun Seok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7회(서울/뉴욕/북경)
국내외단체전 150여회
작품소장 -이탈리아(화엔자 국제도자박물관)중국 이싱 도자박물관 /경덕진대학교 박물관
GIAF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현재, 전문예술단체 광화문아트포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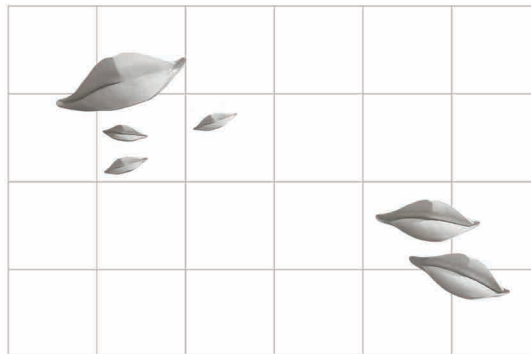
MFA.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College
7 Time's Solo Exhibition
About 150 Time's Group Exhibition(Korea & International)
Collection/Italy. Faenza International Ceramic Museum.
GIAF grand prize.
GAF Committee Director

나에게 있어 '입술'은 단순히 재현을 통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언어의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과 '소통'의 도구이다.
인간 행위에서 표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반대로 소통은 발신과 수신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인 것이다.
소통할 수 없는 표현이 범람하는 까닭에
우리는 이념의 갈등, 계층의 갈등, 남녀의 갈등, 문명의 갈등 등의 시끄러운 뉴스 속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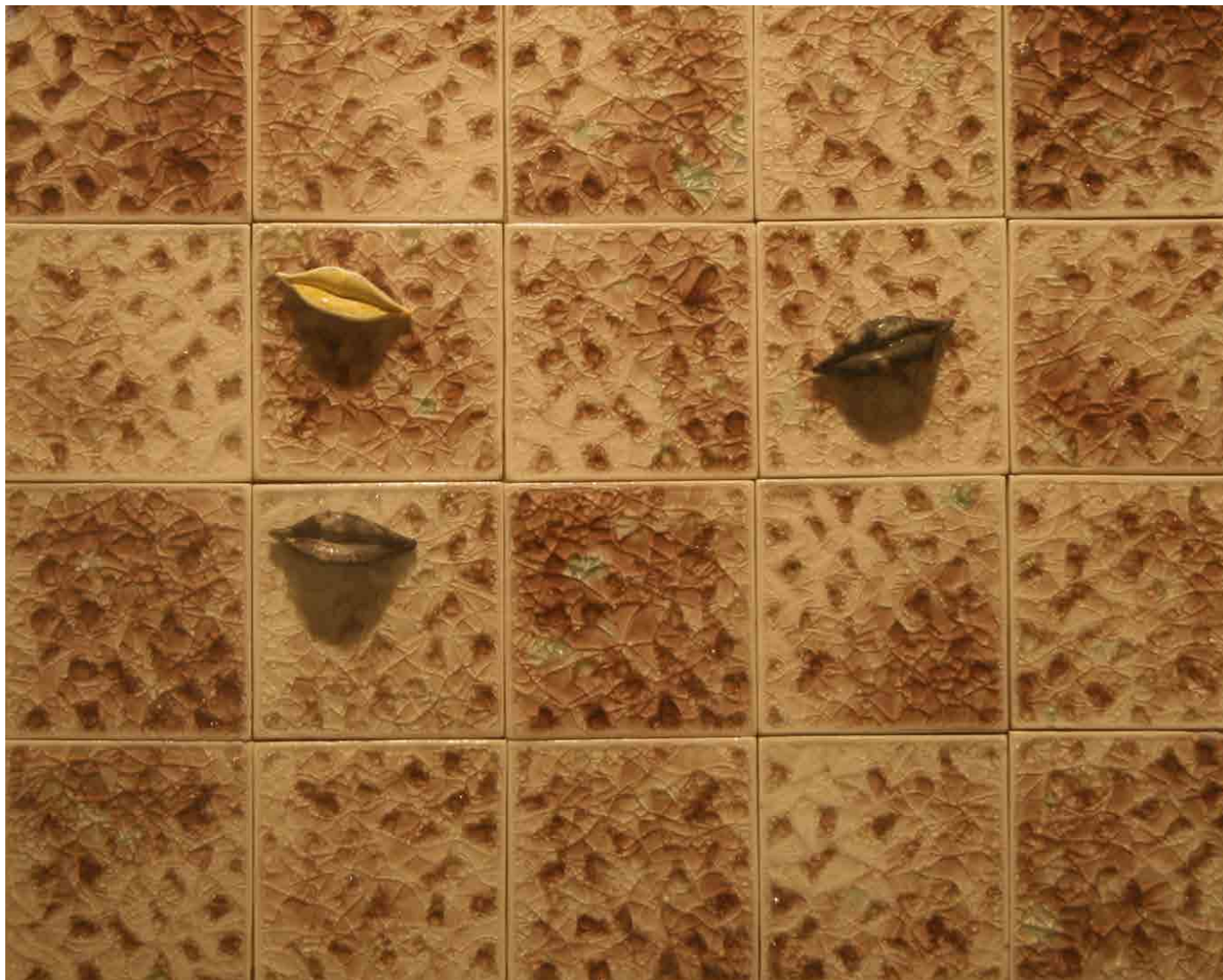
때로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단순한 명제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 일류와 아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 되어 져 있지만, 소통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표현과 소통이 결국은 '언어'라는 하나의 장치를 통해 이루어짐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원으로서
'입술'을 통해 표현된 나의 '표현'들인 동시에 '입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를 희망한다.



말이 없는 입. 듣는 자의 지혜, 40x60cm, 백자토, 2021



말이 없는 입. 듣는 자의 지혜, 40x60cm, 백자토, 2021



말이 없는 입. 듣는 자의 지혜, 40x60cm, 백자토, 2020

허진 Hur, Jin



개인전 30회

2001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화 관광부)
2015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 수상
2017 제21회 용봉학술상 수상(전남대학교)
2017 제37회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심사위원 선정 특별예술가상' 수상
현재, 전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30th Solo Exhibitions

2001 Today's Young Artist Prize 2001
(The Section of Fine Arts, Awarded by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2015 19th Heo Baek-ryeon Art Prize,
Gwangju Metropolitan City Culture and Art Awards
2017 21st Yongbong Academic Award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7 37th Judge-selected Special Artist Prize
(The Korean Association of Art Critics, Seoul)

류 철하(대전시립미술관 전 학예연구실장)

허진은 인간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구상적 형상과 개인의 관심을 조화시켰고
최근 환경과 문명의 생태론을 담아 인간성 회복이라는 담론을 모색하고 있다.

<유목동물+인간- 문명>시리즈는 산양과 낙타,
얼룩말과 코끼리로 상징되는 야생과 원시의 생명력이 화면을 압도하면서
문명의 허실을 안고 사는 인간군상이 흑백으로 부각되었고
핸드폰, 와인따개, 마이크, 압정 등 작가가 지닌 일상의 소품들이 화면 곳곳에 배치되었다.

허진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실한 현대라는 공간에 유목동물을 등장시키고
문명이라는 동굴 속을 배회하는 인간군상을 향해
응시하고 포효하며 돌진해오는 이미지를 통해 현대사회를 고발하고 있다.
허진이 표현하는 주요 이미지인 부유인간, 익명인간, 유목동물은 표리부동하고
뒤섞인 현실을 횡단하는 현대인의 자의식이 몽타주적 풍경으로 펼쳐져있다.

2006 월전미술관(서울) 개인전 팜플렛 서문에서 발췌



이중융합동물+유토피아 2020-3
145x112cmx2개, 한지에 수묵채색 및 아크릴, 2020



이중융합동물+유토피아 2020-1,
162x130cmx2개, 한지에 수묵채색 및 아크릴, 2020



The Imagination in a Circulating World - From Anonymous Men to Nomadic Animals

By Ryu Cheol-ha, Chief Curator of Daejeon Museum of Art

Hur Jin, basing his art on the exploration of humankind, has endeavored to delve into the problem of environment, ecology and civilization.

The recovery of humanity has recently become the main theme of his art. In his serial work "Nomadic Animal, Man - Civilization" the images of animals such as goat, camel, zebra and elephant are overwhelming, standing for a wild, primitive vitality.

In this work a group of human figures are represented in black and white and the artist's everyday stuffs including cellular phone, cork extractor, microphone, thumbtack, and the like are presented to the canvas.

Such animals emerge in a space where modern people are deprived of their harmony with nature. They are wandering in the wilderness of civilization. The human beings Hur Jin mainly portrays are buoyant and anonymous and his animal images, spread like a montage, are a metaphor for our self-consciousness, traversing a deceptively tangled reality.

Hong, Sung Mo
홍성모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한국화전공)졸업
개인전 12회

이당미술상 수상.한국전문인 대상 수상

국내 외 국제아트페어 5회

후소회 등 600여회 초대,그룹전 출품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동국대.원광대학교 미술대학강사,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강좌 강사 역임

현재, 영월군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분과위원장,

광화문아트포럼운영위원, 후소회, 산채수묵회원, 원묵회원

Graduate from Wonkwang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ion from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Korea Chemicals)

12 individual exhibitions

Winning the Yidang Art Award.Grand Prize for Korean Specialists

Five international art fairs at home and abroad

Invitation to 600 times, including after-sales meetings,

and submission of group exhibitions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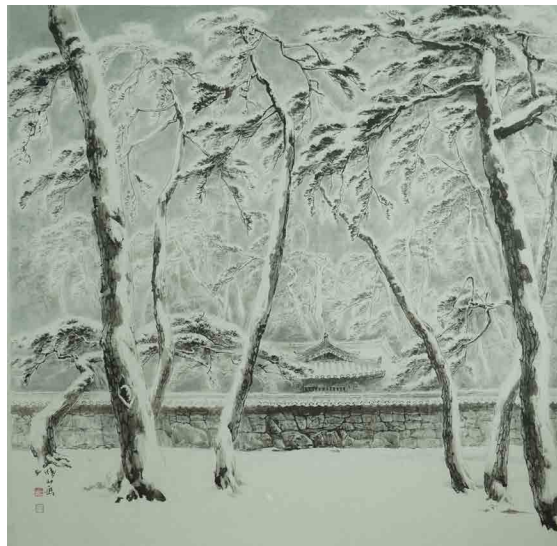
Lecturer at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Serving as a senior lecture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urrently, Yeongwol-gun Art Creation Studio's resident artist, Korea Art Association's

Korean painting Division Chairman, Gwanghwamun Art Forum Steering Committee

member, Hu So-hoe, San Chae-sook member, Won Muk member



슬픈 겨울, 140x140cm, 한지에 수묵,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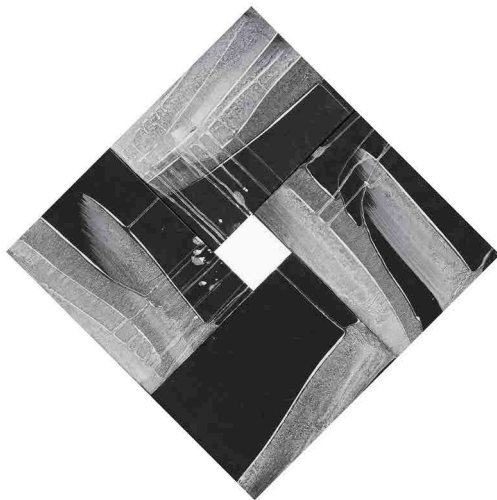
겨울 보덕사, 105x105cm, 한지에 수묵, 2021

홍순주
Hong, Soon 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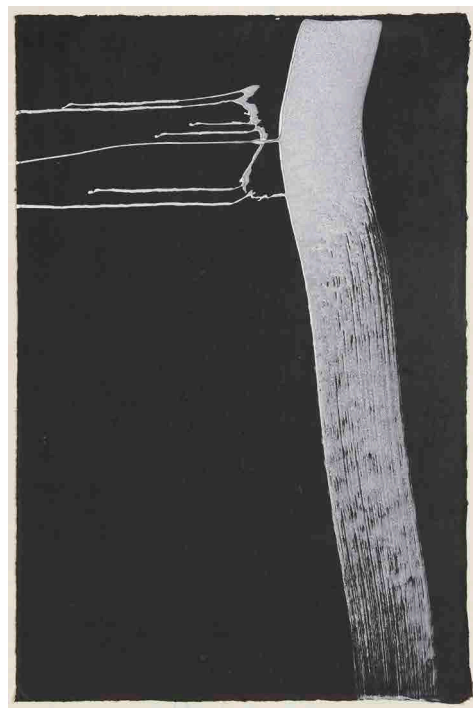


1979년 제 28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국립현대미술관)
1983년 제 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국립현대미술관)
2009년 제 9회 석주미술상 수상(석주문화재단)
2013년 제 9회 올해의 미술가상(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인전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및 국내외 15회
단체전 - 국내외 400여회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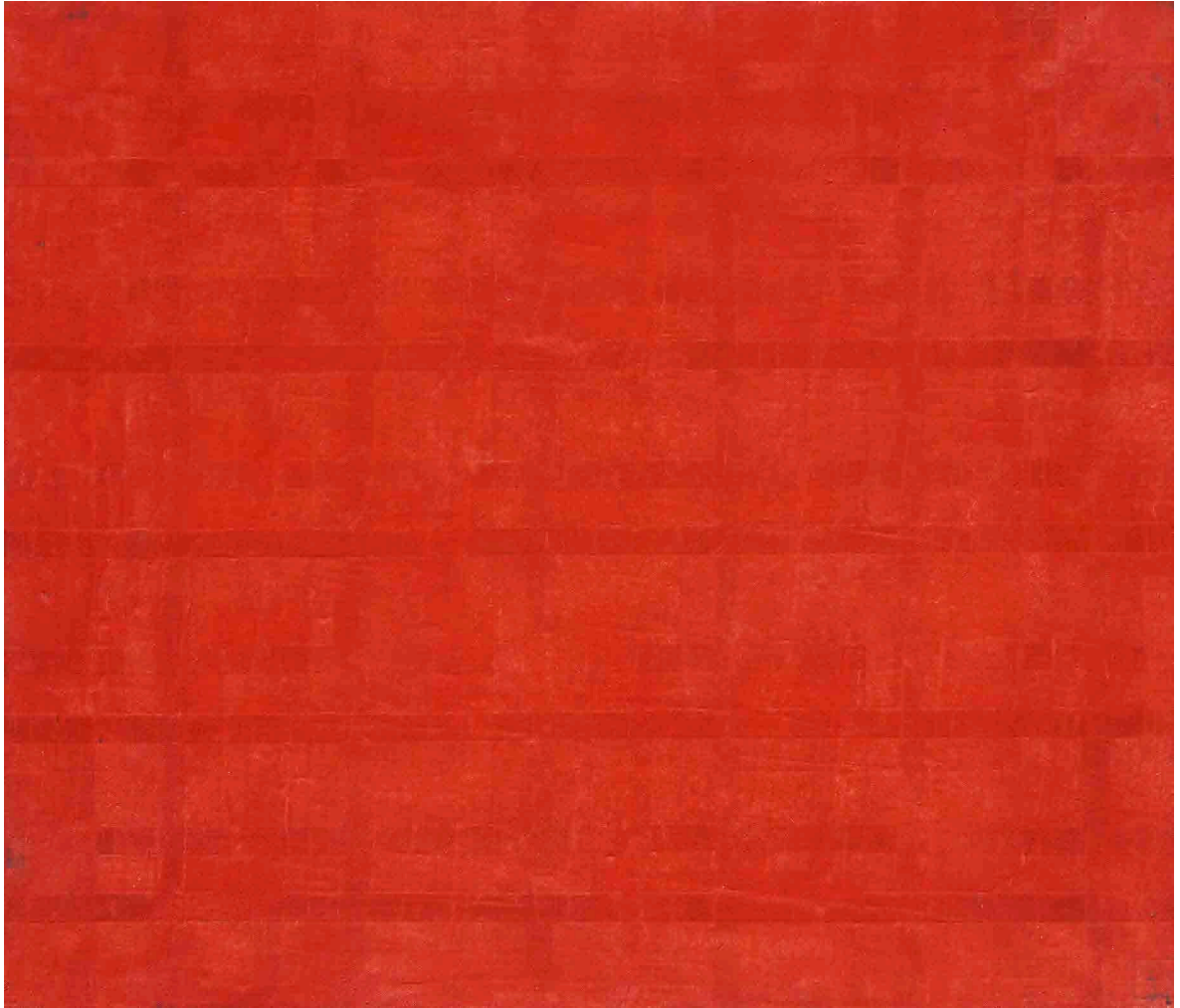
1979 Awards of the Minister of Culture and Information, 25th the Korean National Art Exhibitio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83 The Grand Prize Award, The 2nd Korean National Art Exhibitio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09 Art Prize Award, The 19th Seokjoo Art Exhibition, Seokjoo Art & Cultural Foundation
2013 Artist of the year, Gwang Hwa M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Solo Exhibition - 1992-2019 15 times
Group Exhibition - 1973-2020 over 400 times
Dongduk Women's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결, 81x81cm, 한지, 먹, 호분, 2016



결, 96x63cm, 한지, 먹, 호분, 2016



나의 작업은 한지 위에 자유롭게 그어내는 무심한 붓질로 시작한다.

이때의 붓질은 마치 호흡하듯 숨결이 담긴 자유로운 상태이다.

한 번의 붓질을 하고 기다리면 물감이 고이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한다. 기다림 속에 흔적은 제 각각의 결이 되어 버린다.

씨줄 날줄의 결이 중첩되는 긴 시간 속에서 층이 쌓이고 점차 공간이 드러나게 한다.

공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는 그 결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어버리기도 한다.

어린 시절에는 여과 없이 드러냈던 (그리 할 수밖에 없었던) 몸짓이

아직도 나의 내부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덮어버릴 때가 많아진다.

가능한 절제된 상태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하고 싶어진다.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쳐도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

결, 53x45.3cm, 한지, 석채, 2016

홍지
Hong, Ji



2021~현재 을쏘아트 운영
2021 온양민속박물관, “플라스틱 장난감 발굴” 렉처 & 워크샵
2021 을쏘아트갤러리, “모작전+발굴전” 전시
2020 온양민속박물관, “일상의 향유” 전시
2013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35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2012 야도 레지던시

2021~current ALSO art ceo
2021 Onyang Folk Museum,
“Plastic Toy Excavation” lecture&workshop
2021 ALSO art showroom,
“Copy ART+Excavation” exhibition
2020 Onyang Folk Museum,
“enjoyment of daily life” exhibition
2013 Seoul Art Center Hangaram Art Museum,
“Joongang Art Prize” exhibition
2012 YADDO residence



크리스탈 장난감 귀걸이, 8x8.5cm, 플라스틱, 2021



크리스탈 장난감 목걸이, 12x25cm, 플라스틱, 2021

나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 동일한 사물이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극명히 달라진 상황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지난 10여 년간 플라스틱 장난감의 미래 발굴 장면을 재현하고,
발굴된 장난감을 분류하여 사진과 함께 전시해왔다.

미래 어느 시점에 장난감은 유물이 된다.
그리고 어느날 세종문화회관에 전시된 가장 값어치가 큰 크리스탈 장난감 왕관이 도난당한다.



크리스탈 장난감 왕관 도난사건, 가변크기, 플라스틱 장난감, 사진, 유리진열장, 차단봉, 2021

2021GIAF 초대개인전

선정작가

김선화

김지현

이훈기

전신종

최창봉

Homegallery(김일해, 류영도)

황보지영 외 3명

Kim, Sun Hwa
김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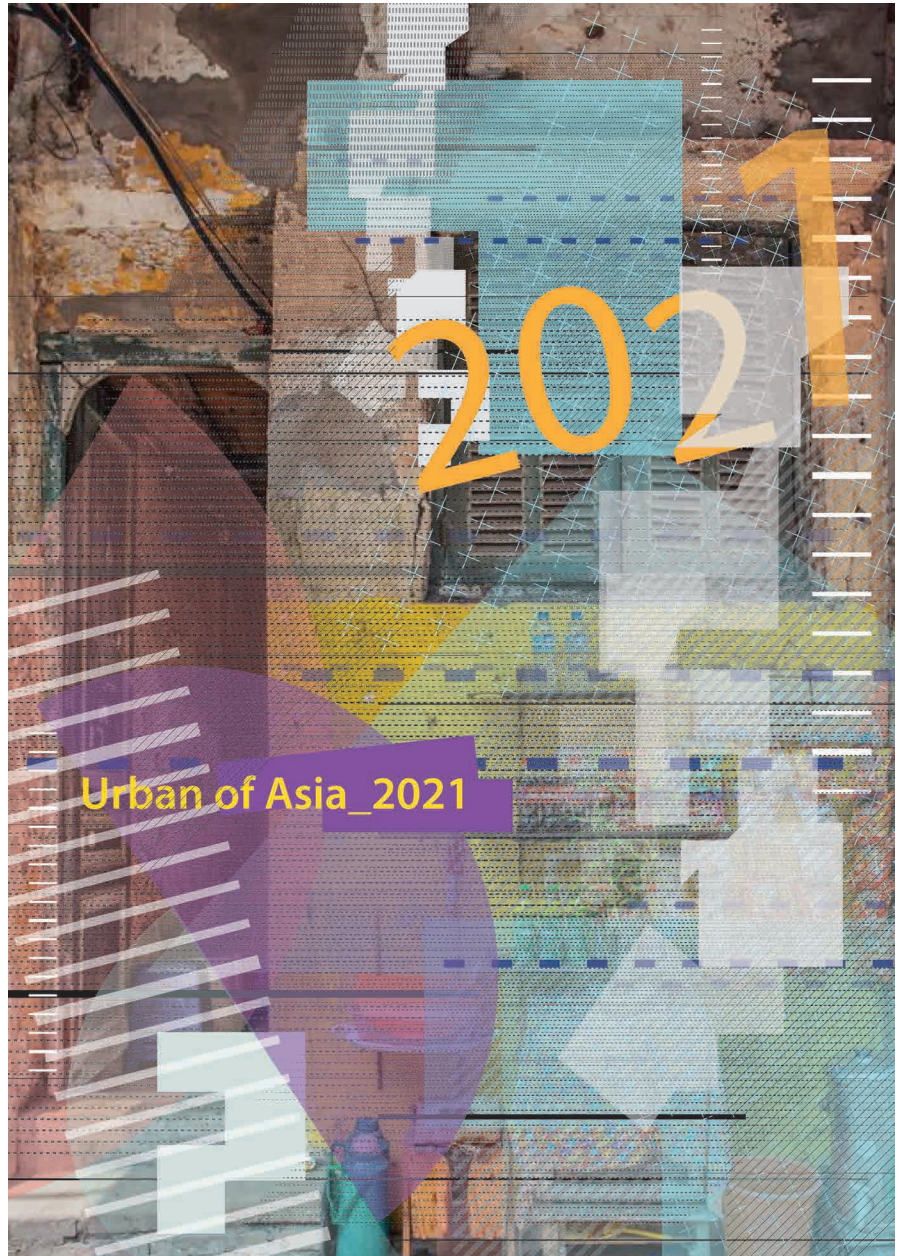


TDC (Thinking Design & Color) 디자인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한국기초조형학회 / 부회장
 제 15회 개인전 「2020 Macro-:Micro」 한국기초조형학회-세종문화회관
 제 14회 개인전 「2020-The beginning」 대만 타이페이 초청전 (ANBD)
 제 13회 개인전 「Color Assimilation_Colombo 2019」
 스리랑카 콜롬보 특별전 초청전(ANBD)
 현재, 대만, 타이난 응용과학기술 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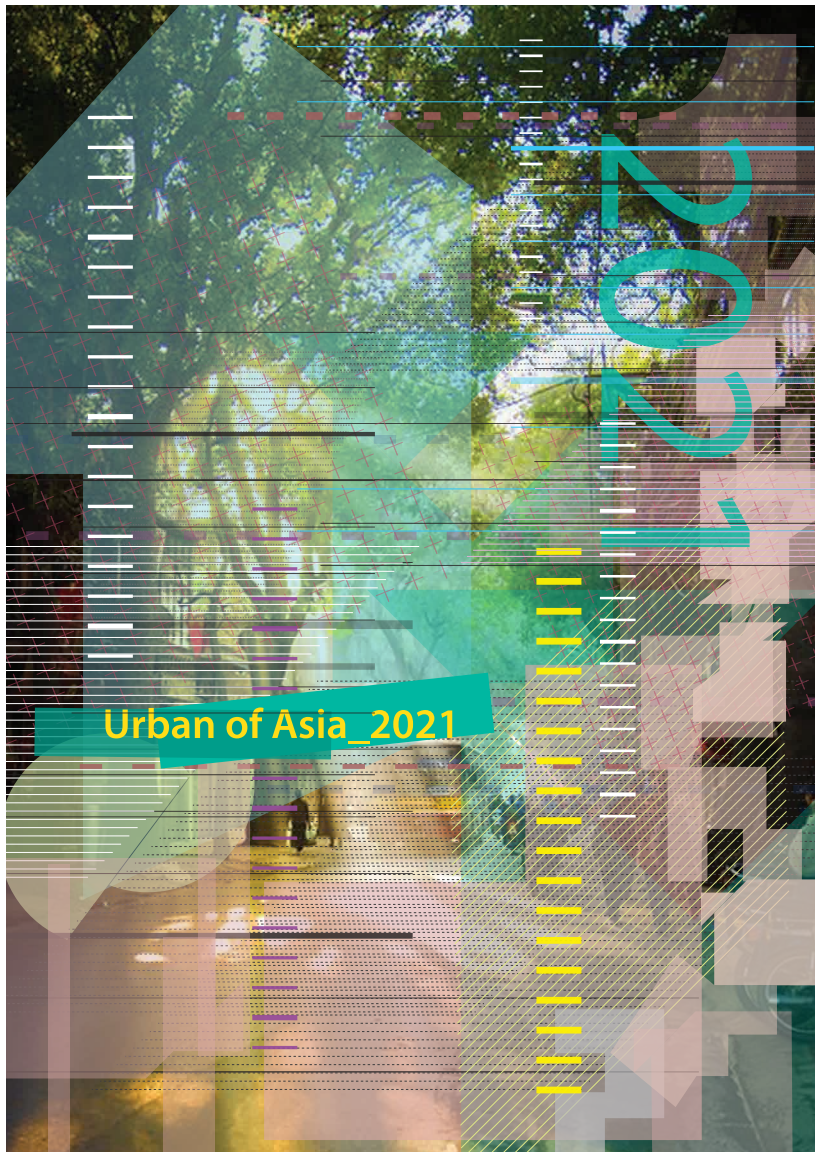
Professor, Tainan University of Technology
 Representative & Director, TDC (Think Design & Color) Institute of Design, Korea
 Vice-Chairman, KSBDA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3th 「Color Assimilation_Colombo 2019」
 2019 ANBD Colombo Special Invitational Solo Exhibition, SLIIT Main Auditorium
 (Colombo, SRI LANKA)
 14th 「2020-The beginning」2019 ANBD Taipei Invitational Solo Exhibition,
 NTNU Teh-Chun Gallery (Taipei, TAIWAN)
 15th 「2020 Macro-:Micro」2020 KSBDA Invitational Solo Exhibition,
 Sejong Gallery (Seoul, KOEAN)



Urban of Asia_2021 #1, 594x841cm, 2D프린팅, 우드락, 2021



Urban of Asia_2021 #2, 594x841cm, 2D프린팅, 우드락, 2021



“Urban of Asia_2021”는
아시아의 평범한 도시 풍경을 담아보았다.

전 세계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새로운 언택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시각적 이미지로 담아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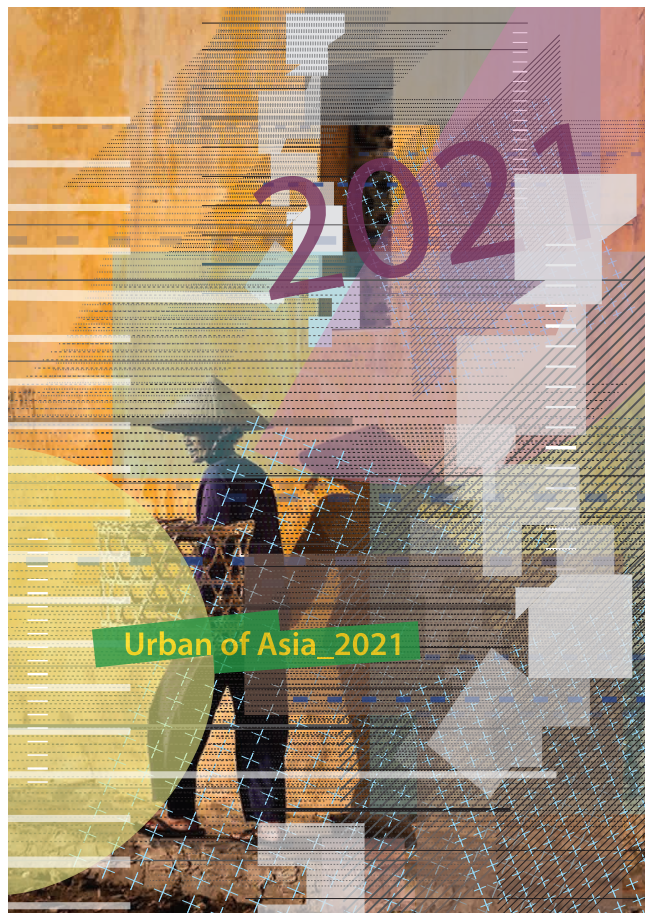
박제가 되어버릴 것 같은 잃어버린 일상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 번 그 가치를 되내어본다.

Urban of Asia_2021 #3, 594x841cm, 2D프린팅, 우드락, 2021

Urban of Asia_2021 #4, 594x841cm, 2D프린팅, 우드락, 2021



Urban of Asia_2021 #5, 594x841cm, 2D프린팅, 우드락,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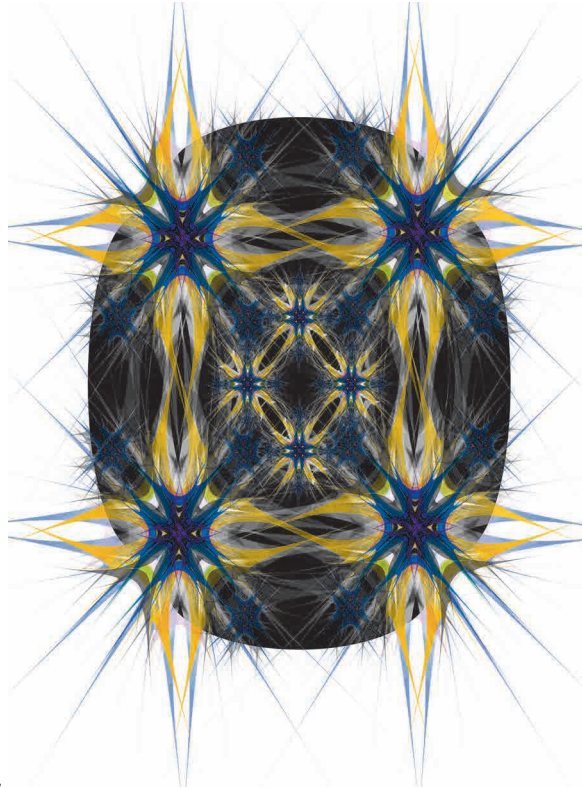
김지현
Kim, Jee Hyun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미국 이스턴미시간대 미술학과 MFA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연구교수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회장
현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장, 디자인대학장, 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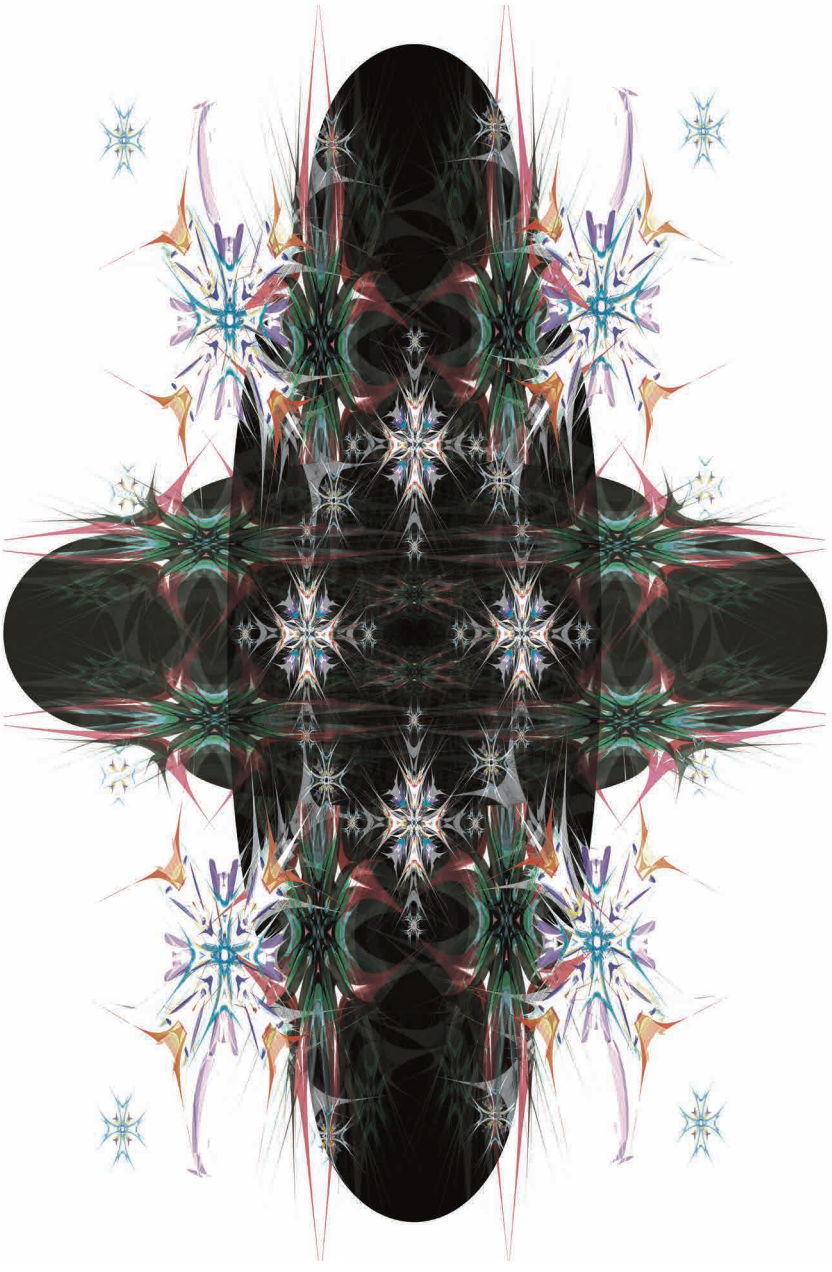
BFA,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MFA, Eastern Michigan University, USA
Research Professor, Syracuse University, USA
President,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President,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Dean, College of Art, College of Design

하나의 알파벳이 무한 반복과 변형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지 실험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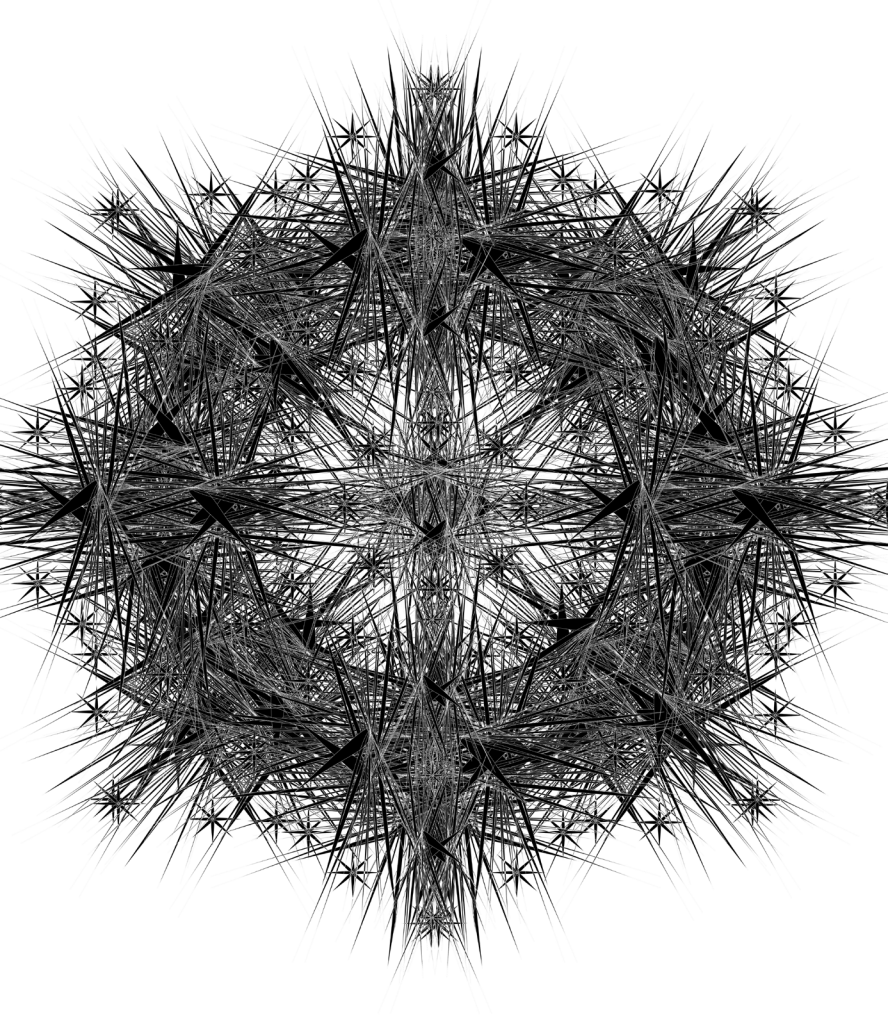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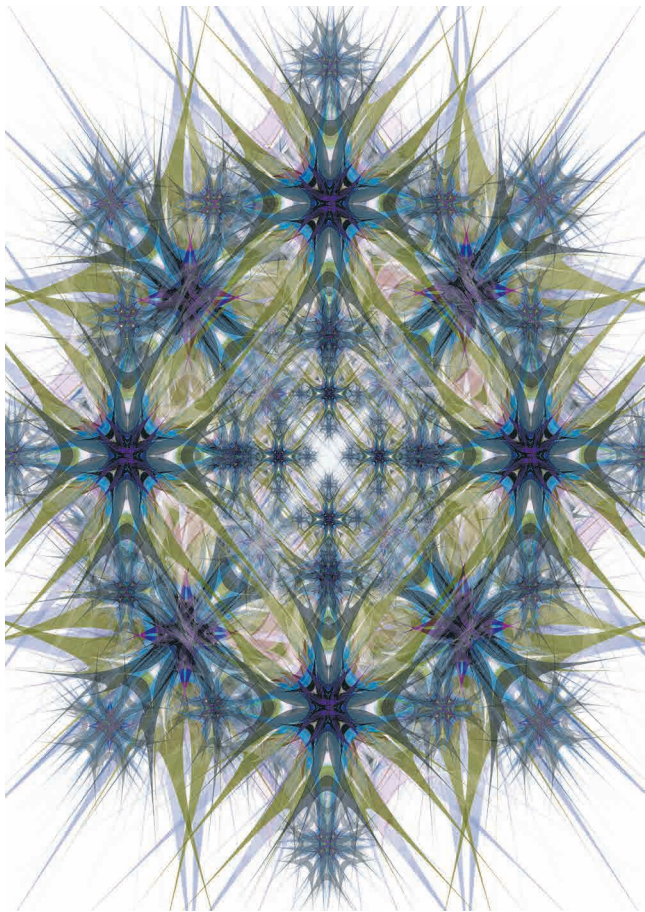
Expansion of Type 1,
42x59.4cm, Digital Printing on Paper, 2021

Expansion of Type 3, 42x59.4cm, Digital Printing on Pap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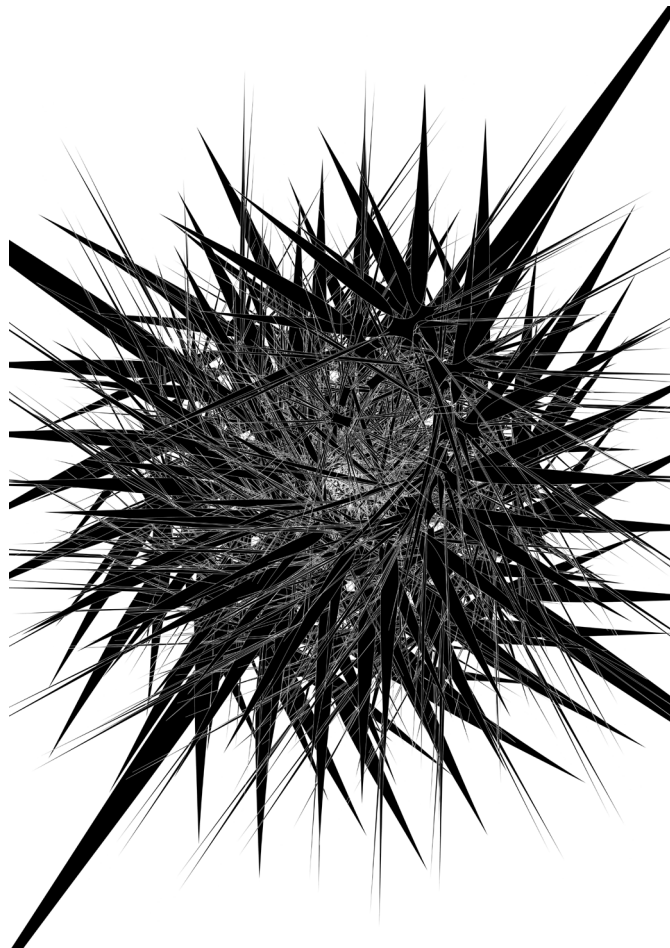


Expansion of Type 6, 42x59,4cm, Digital Printing on Paper, 2021





Expansion of Type 4, 42x59.4cm, Digital Printing on Paper, 2021



Expansion of Type 7, 42x59.4cm, Digital Printing on Pap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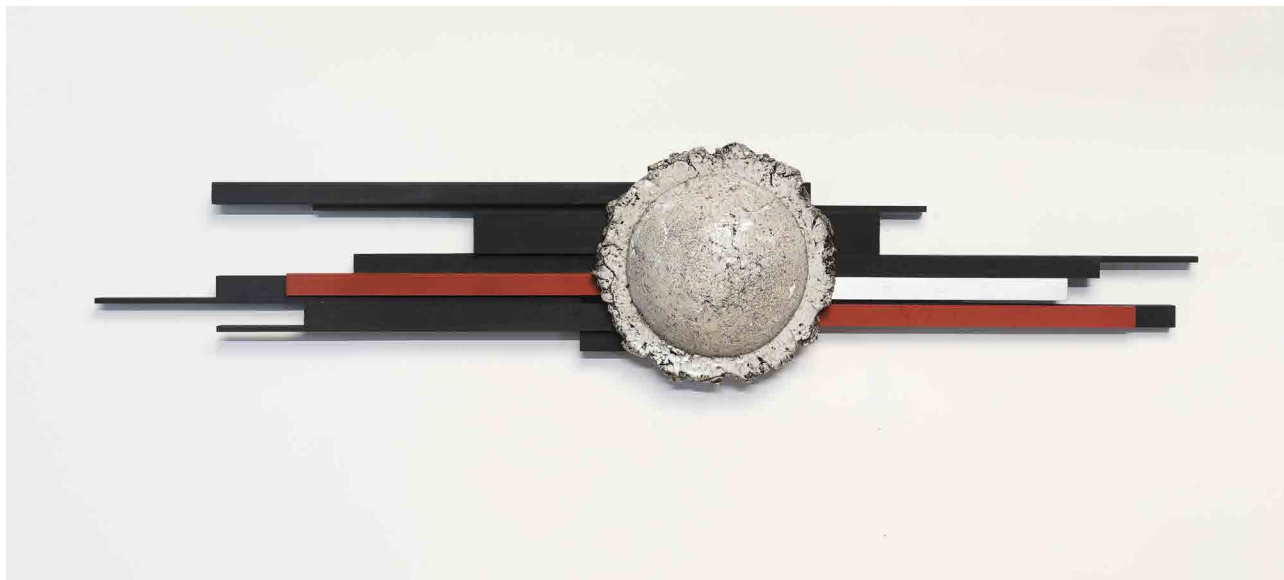
이훈기
Lee, Hun Kee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박사
2014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특별 초대전 (바람 그래서 생명전), 외 개인전10회
2020 한국기초조형학회 최우수작가상
2019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작품전
2014 국회의장상 (GIAF)
2012 광화문아트포럼선정 올해의 작가상

BFA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ankook University
2019. 4rd, GIAF Solo Exhibitio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2020 KSBDA Best Artist of the Year
2019,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Exhibition
2014GIAF Grand Prize at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2012, Gwanghwamun Art Forum Artist Of The Year

동그라미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있는 대지, 하늘의 달,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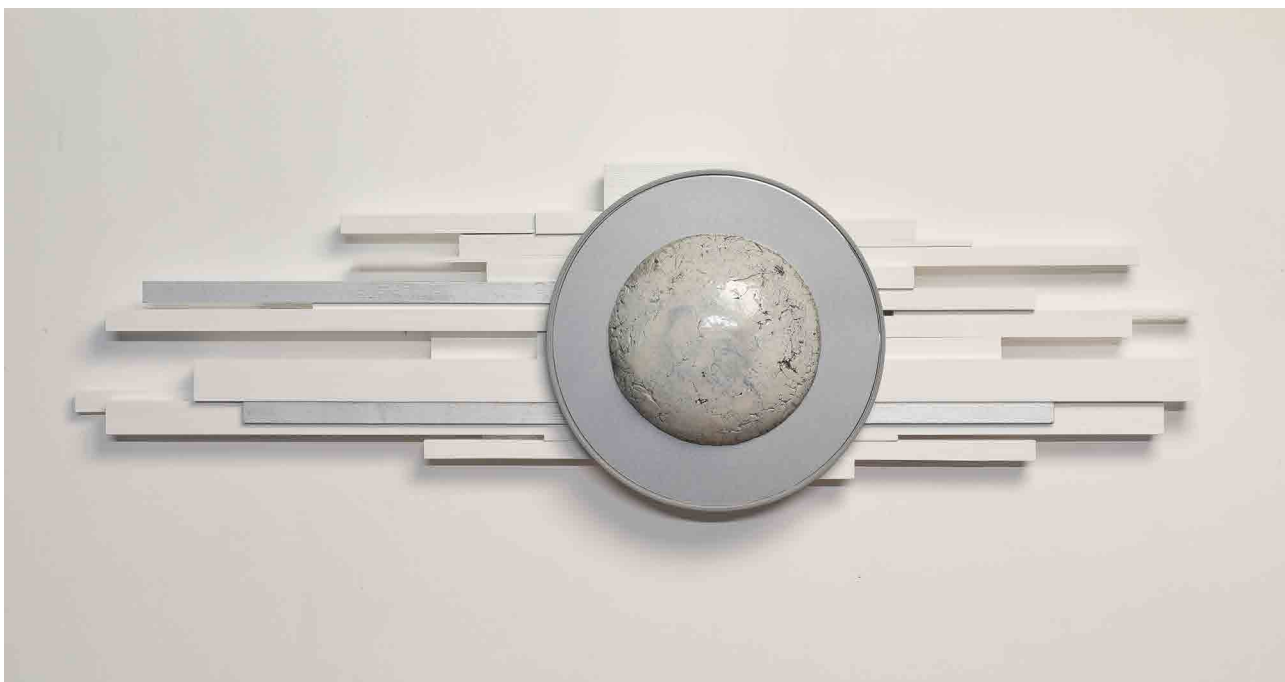
두 개의 동그라미2021-91,
30x70x10cm, 자기질, 석기질점토외 1100,1260°C혼합소성, 혼합재료, 2021



두 개의 동그라미 2021-92,
30x60x10cm, 자기질, 석기질점토의 1100,1260°C혼합소성, 혼합재료, 2021



두 개의 동그라미 2021-93,
30x75x10cm, 자기질, 석기질점토의 1100,1260°C혼합소성, 혼합재료, 2021



두 개의 동그라미2021-94 정민,
30x100x10cm, 자기질, 석기질점토의 1100,1260°C혼합소성, 혼합재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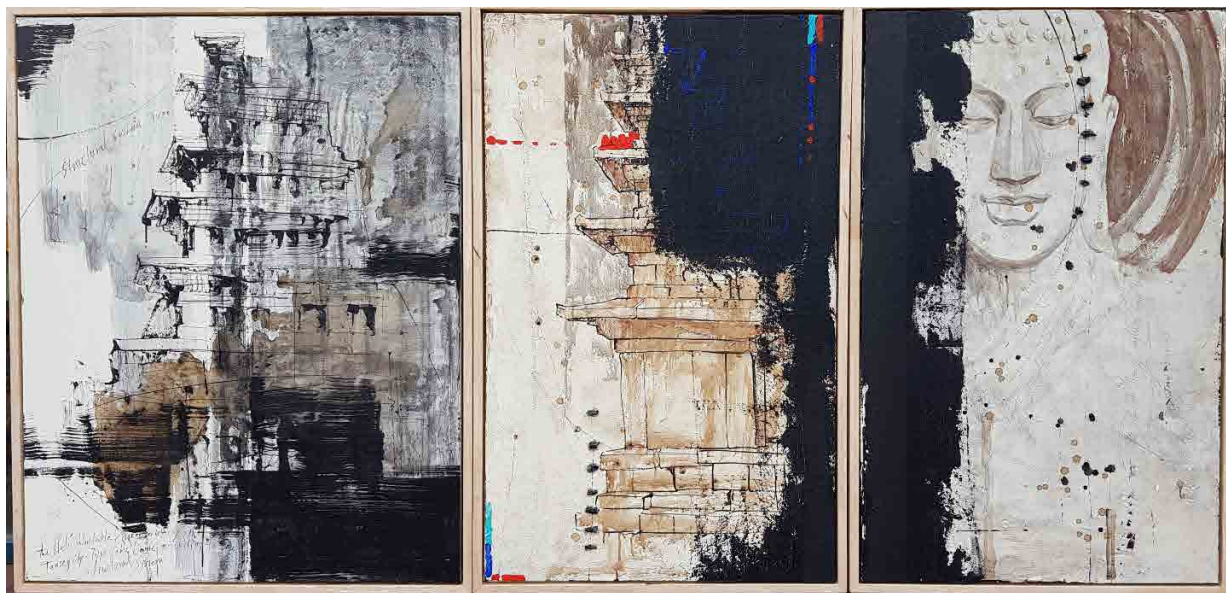
두 개의 동그라미 2021-94
30x75x10cm, 자기질, 석기질점토의 1100,1260°C 혼합소성, 혼합재료, 2021

이희권
Lee, Hee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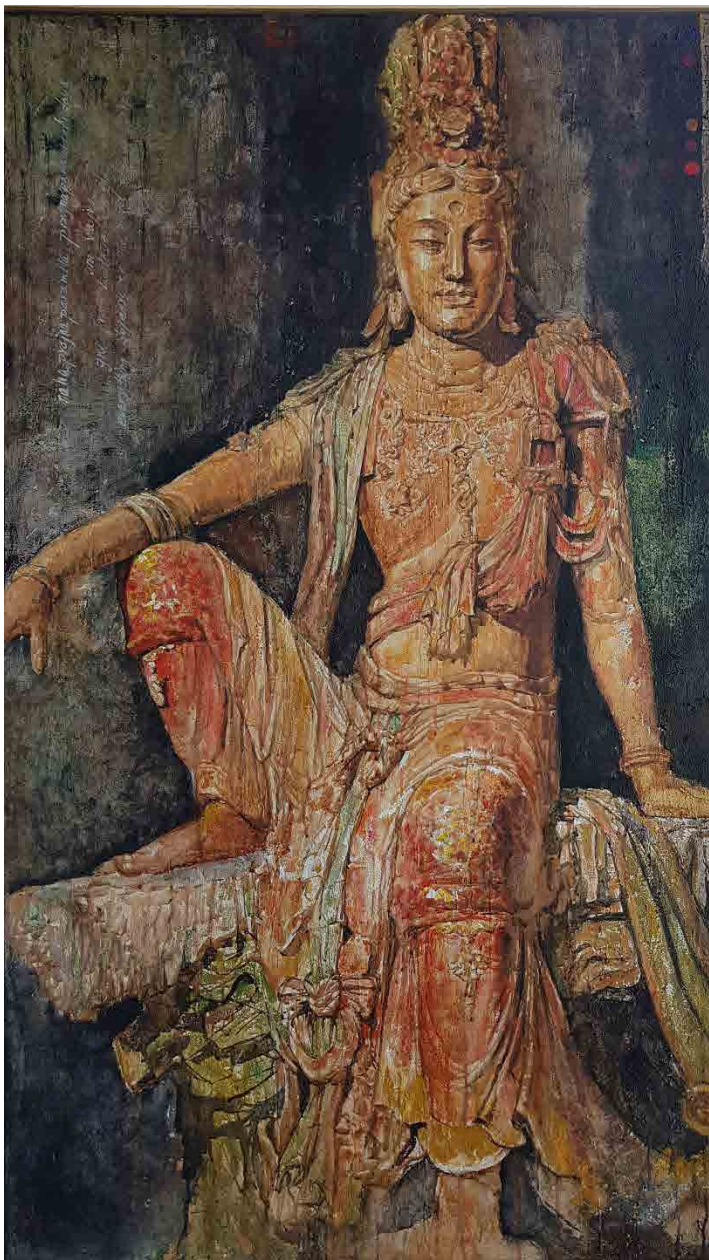


세종대 회화과(서양화) 및 동대학원 회화과 서양화 전공
제45회 목우공모 미술대전 대상
제44회 목우공무 미술대전 한별상
제9회 성남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14, 15, 17, 20, 28회 5회 입선
제1회 5회 대한민국 수채화 대전 특선
제33회 경인미술대전 우수상
개인전 및 단체전 다수 출품
현재, 미협회원, 목우회, 신작전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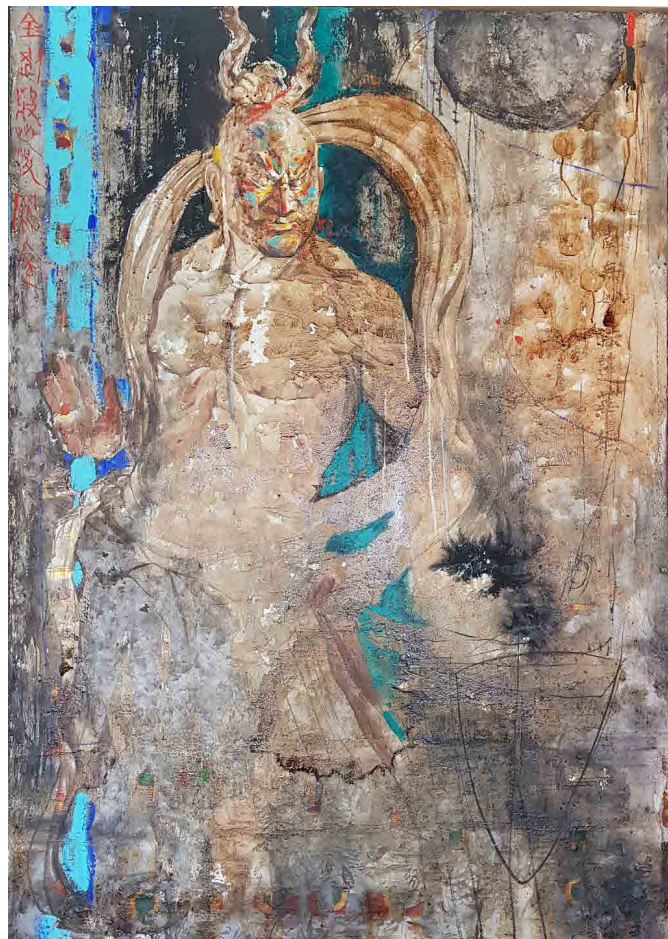
B.F.A. & M.F.A in Sejong University Department of Painting (Western Painting)
Grand Prize in the 45th Wooden Rain Competition
44th Korean Star Award for Mokwoo Official Art Exhibition
Grand Prize at the 9th Seongnam Art Exhibition
Art Exhibition of Korea 14th, 15th, 17th, 20th, 28th, 5th.
The 1st and 5th Korea Watercolor Exhibition
33rd Gyeongin Art Exhibition Excellence Award
Multiple entries for individual and team competitions
Present, Member of the American Association, Chief Secretary for New Operations, Mok Woo-h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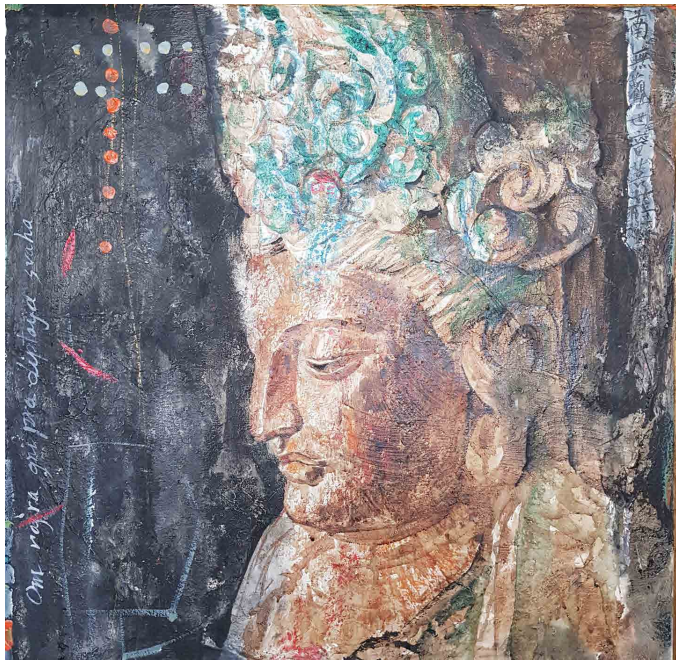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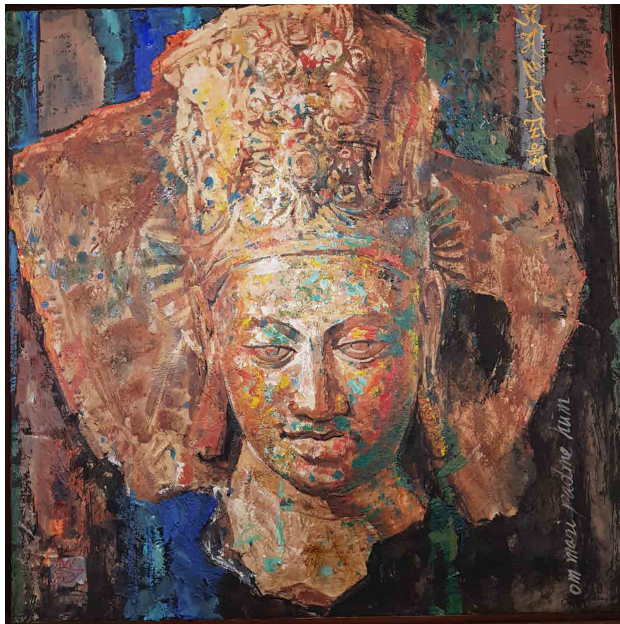
아만다마야 코사, 20호 2점, 유화



마하비데하, 100호m, 유화



마누마야 코샤, 100호P, 유화





Jeon, Shin Jong
전신종



개인전 20회,
단체 초대기획전 200여회
현재, 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조교수, 한국기초조형학회 수석 부회장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CT Design, Hansung University
Vice Chair,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Solo Exhibitions Episode20
200 group and special exhibitions

기초조형을 기반으로 한 사각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하학적 형태인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재창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디자인 기초 교육에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소(cow), 50x50cm, 칠, 아크릴채색,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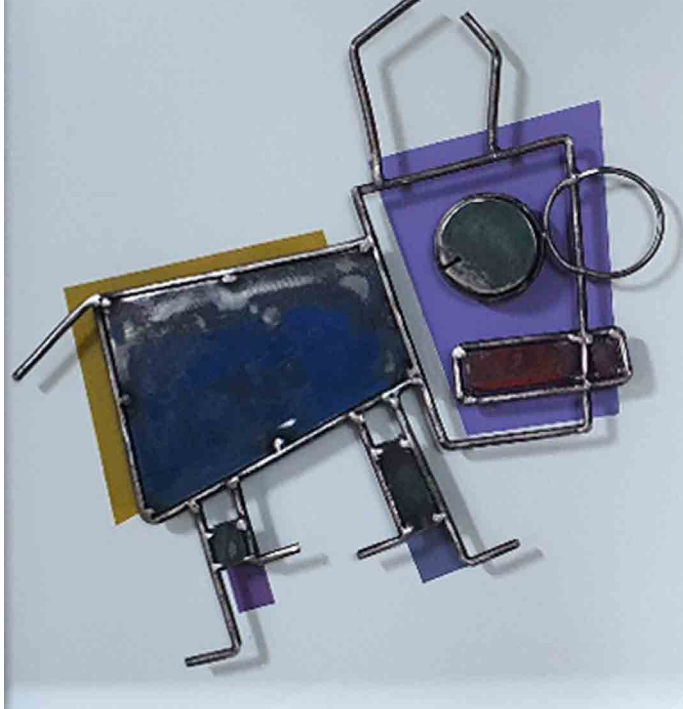


소(cow), 50x50cm, 철, 아크릴채색,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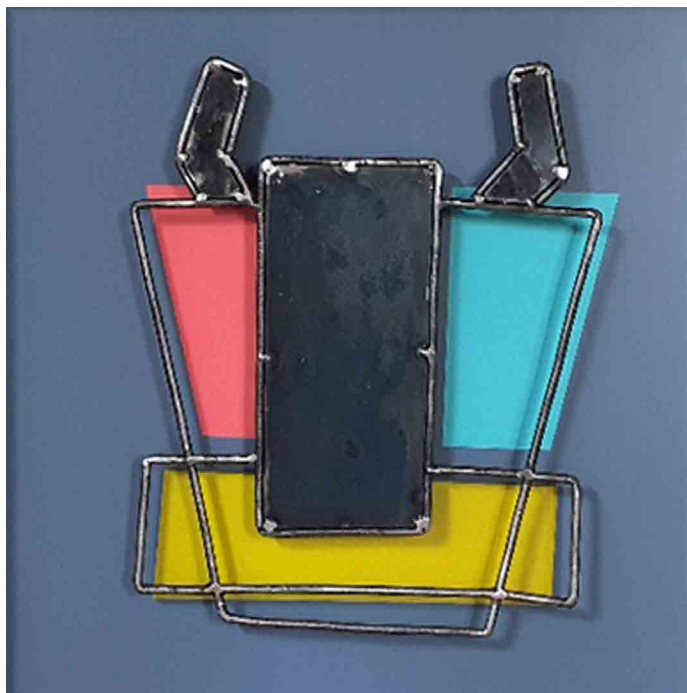


소(cow), 50x50cm, 철, 아크릴채색, 2021

소(cow), 50x50cm, 철, 아크릴채색, 2021



소(cow), 50x50cm, 철, 아크릴채색,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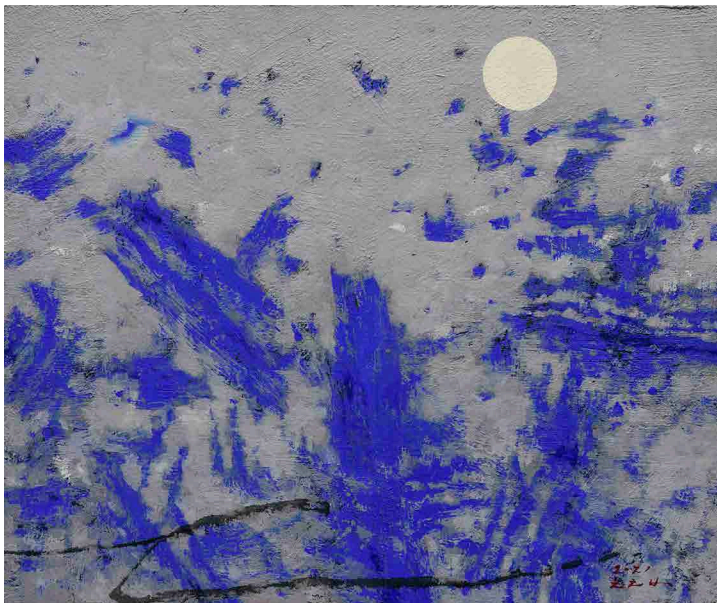


최창봉
Choi, Chang Bo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同 대학원 졸업
개인전14회(한국,일본)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우수상(과천,현대미술관)
국제수목 비엔날레(목포 문화예술회관)
콩세유 개관초대전(콩세유갤러리)
광화문아트포럼 초청작가전(동덕아트 갤러리)및 단체전200여회
현재, 한국미술협회,,회화2000,아트노믹스 제휴작가, 광화문아트포럼,유연회원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충북대,선화예고 출강

Graduate School of Oriental Painting and Graduate School of Art at Hongik University
14 individual exhibitions (Korea, Japan)
Special and Excellence Awards (Gwache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the Korean Art Exhibition
International Ink Biennale (Mokpo Culture and Arts Center)
Invitation to the opening of Kongseyou Gallery
Gwanghwamun Art Forum invited artists (Dongdeok Art Gallery) and more than 200 group exhibitions
Currently, Korean Art Association, Painting 2000, Artnomics Affiliates, Gwanghwamun Art Forum, Flexible Members
Hongik University Art Education Center, Chungbuk University, Sunhwa Arts High School atten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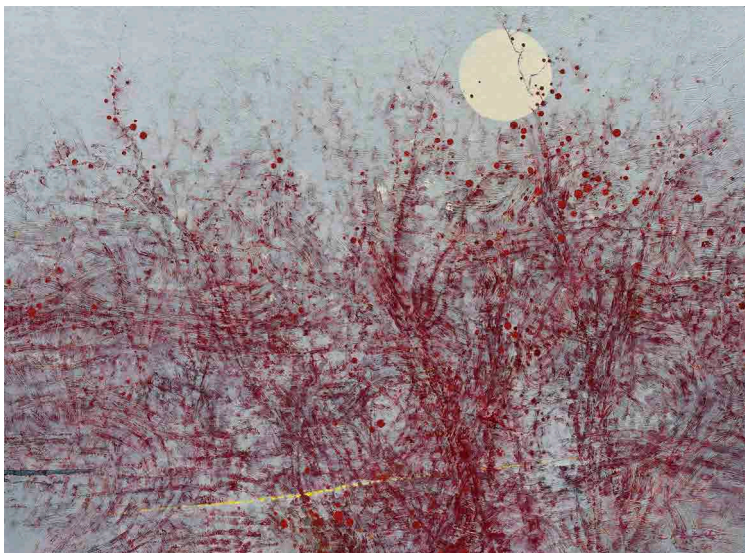
바람결 사이, 72.7x60.6cm, 한지에 막,아크릴,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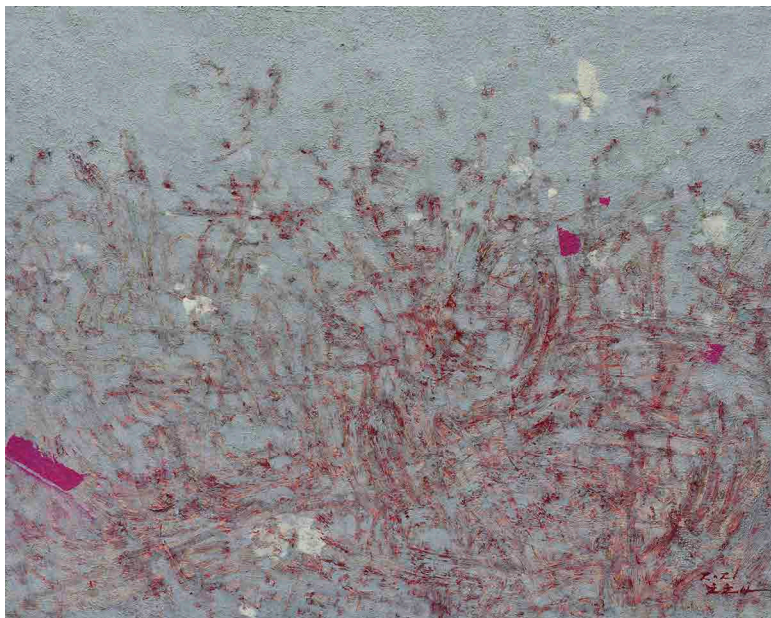
바람결 사이, 116.8x91cm, 한지에 닥,아크릴, 2021



바람결 사이, 116.8x91cm, 한지에 닥,아크릴, 2021



바람결 사이.162x120cm.한지에 닥,아크릴.2021



바람결 사이.90.9x72.7cm.한지에 닥,아크릴.2021

김일해
Kim, Il Hae



영남대학교 미술대학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졸업
개인초대전 50 회 (1984~2017 뉴욕,파리,동경,북경.서울등)
단체전및 국내외부스초대전 800여회 출품
국제아트페어30 여회참가(2002~2017)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운영위원장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역임
현재, 한국미술문화포럼 대표, 동방의빛-한.중.일교류전 회장

Graduation from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50 individual invitations (1984~2017 New York, Paris, Tokyo, Beijing).Seoul, etc.)

More than 800 exhibitions of group competitions and invitations to booths at home and
abroad

International Art Fair 30 Women's Participation (2002~2017)

Acting Chairman of the Youth Biennale Korea Youth Biennale Steering Committee

The chairman of the judging committee for the Korean Art Festival. Chairperson of
Operations

Currently,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Art and Culture Forum, Bit-Han of the East.
Chairman of China-Japan Exchange



for you, 20호



들꽃, 20호



welcome, 289.5x184.5cm, oil on canvas

Ryu, Young Do
류영도



2021 류영도 누드-조형적구성(서울 인사아트프라자,광주 무등갤러리) 외 개인전 35회
류아트센터 대표(서울)
한국미술협회(KAMA)회원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부이사장
한국현대인물작가회 회장
현재, 신행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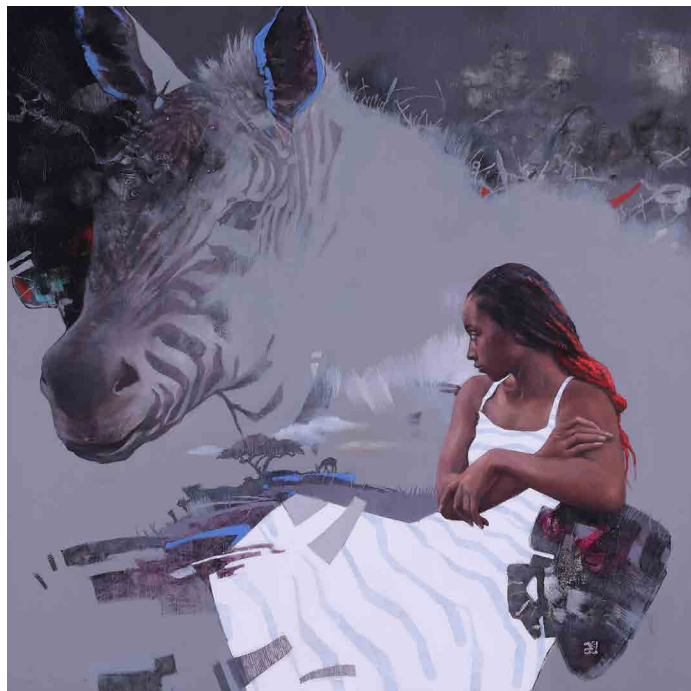
2021 Nude-the formative construction (Insa Art Plaza, Seoul), ect. 35times
The Representative of Ryu Art Center (Seoul)
Member of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Deputy Chairman of Sectoral Committee of Western Painting
Chairman of Korean Modern Human Figure Painter
Chairman of New-Form Group (Shin-hyeong hoe)



구성-붉은 모란, 60.6x45.5cm, Mixed media, 2021



구성-물빛에답다, 140x140cm, Mixed media, 2021



구성-초원의꿈, 90x90cm, Mixed media, 2018

인간은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의식과 감정을 지닌 존재로서 그 동작 및 표정이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인간 몸짓의 언어를 조형적 재구성을 통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과 배경에 나타난 비조형적인 추상 형태를 접목시킴으로써 구상과 비구상의 만남을 추구하며 여백의미를 강조한 작품이다.

황보지영(皇甫知暎), 심재천(沈載千), 전수걸(全洙杰), 안재영(安載榮)

大韓民國美術大展 招待作家展(工藝) 부처

2021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주최 초대전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이수자 황보지영(皇甫知暎)작가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전(공예) 특별전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내에서 연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가 1949년부터 1981년까지 33년간 이어오다가 현재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뀌어 맥을 이어오고 있다. 즉 국전이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이어진 것이 대한민국미술대전이다.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또는 특선3회 이상 작가는 그에 상응한 실력을 인정받아 초대작가에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초대작가에 선정된 공예가는 기술적으로 조형적으로 더욱 견고한 작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공예분야도 아카데미(Academi), 대학출신들의 융합적인 현대작업 시도와 장인 정신을 계승 해나가는 공예가, 미술가들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여러 상황전개와 구조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미술대전(공예) 초대작가들이 공예분야에 중추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사회적 위치로 간혹 간혹 보여 주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은 인생을 예술로 열심히 애절하게 헌신하며 살고 있는 작가들이다.

특히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이수자 황보지영(皇甫知暎)작가의 ‘연화의 향’은 금속공예 중에서도 상감기법을 활용하는 입사공예로 매우 섬세한 공력이 드는 작업으로 매우 정교한 예술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은입사(銀入絲)기법에 마무리를 옷칠기법을 이용해 현대적인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훌륭히 표현하고 실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섬세함이 돋보이게 하여 완성도를 더욱 높인 수작이다. 많은 미술가들이 공예라는 예술을 통해 생각하는 방식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길 기대한다.

윤영필(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황보지영- Lotus scent, 연화향



황보지영-Longing, 그림

황보지영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대통령상
대한민국정수미술대전 대통령상
청주공예비엔날레 브론즈플라타너스
(34회)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33회)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부산공예문화상품 공모전 대상
대한민국공예품대전(부산대회) 대상
김해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장려상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특선
한국공예대전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이수자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Doctor of Science)
Korea Crafts Competition Presidential Award.
Korea Water Purification Art Exhibition Presidential Award.
Cheongju Craft Biennale Bronze Platanus.
(34th) Excellence Award at the Korean Art Exhibition.
(33rd) Excellence Award at the Korea Art Festival.
Busan Craft Culture Product Contest Grand Prize
Korea Crafts Competition (Busan Competition) Grand Prize.
Gimhae Art Exhibition Grand Prize.
Encouragement Award at the Korean Buddhist Art Exhibition.
Special selection for Korea Victory Crafts Competition.
Korean Crafts Competition Special.
The first artist at the Korean Art Exhibition.
Person who has completed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78



황보지영-Line, 선



황보지영-Memories, 추억

심재천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청주공예비엔날레 대상
전국무등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 대상
중국심천국제비엔날레 금상
대한민국전통공예대전 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미국뉴욕 SOFA(엑스포)초대작가
미국시카고 SOFA(엑스포)초대작가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Grand Prize at the Korean Art Exhibition.
Korea Art Festival Excellence Award.
Cheongju Craft Biennale Grand Prize.
Grand Prize at the National Mudeung Art Exhibition.
Grand Prize for the first artist at the Korea Architecture Exhibition.
China Shenzhen International Biennale Gold Prize.
Silver Prize at the Korea Traditional Crafts Festival.
Korea Art Exhibition Special.
New York SOFA (Expo) invited writer.
The first writer of the Chicago SOFA Expo in the U.S.



심재천-물고기상감병

전수결

경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수미술대전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대구미술대전 대상
부산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성산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공예미술대전 대상
전국기능경기대회 은상
대한민국산업미술대전 특별상
대한민국전통공예대전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부산공예명장선정(부산광역시청)

Graduated from Kyung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Grand Prize of Jeongsu Art Exhibition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Daegu Art Exhibition Grand Prize.
Grand Prize at the Busan Art Exhibition.
Korea Art Festival Excellence Award.
The Grand Prize at Seongsan Art Exhibition.
Grand Prize at the Korea Crafts Art Exhibition.
National Skills Competition Silver Prize.
Korea Industrial Art Exhibition Special Award.
Special selection for Korea Victory Crafts Competition.
The first artist at the Korean Art Exhibition.
Busan Craft Master Selection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전수결-형상

안재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예술철학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6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울특별시장상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상
부산국제아트페어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한국문학예술상 수상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 of Arts Philosophy)
The 6th Korean Art Exhibition.
Korea Art Exhibition Seoul Mayor Award.
Grand Prize at the Korean Art Exhibition.
Busan International Art Fair Grand Prize.
The first artist at the Korean Art Exhibition.
Chosun Ilbo's New Year's Literature Award.
won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s Award.



안재영-청색그릇 넘버32

대회장

김인호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대회고문

고흥길 | 전 특임장관

노웅래 | 국회의원

정세균 | 전 국무총리

자문위원

김영종 | 종로구청장

김명중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신원철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집행위원장

엄종섭 | 갤러리가이드 발행 겸 편집인

운영위원장

림만선 | 남북국제문화예술인총연합회 위원장

예술감독

안재영 | 미술평론 예술철학박사

이훈기 | 공예가 조형예술학박사

아트디렉터

박해린 | 큐레이터

김하정 | 디자이너

조직위원

이범헌 |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광수 |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인섭 | 사단법인 서울미술협회 이사장

이태길 | 광화문아트포럼 회장

전 준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신종섭 |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고문

김춘옥 | 사단법인 한국화진흥회 회장

김성한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집행위원

한근석 | 광화문아트포럼 대표

임승오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객원교수

이민주 | 한국-인도 현대작가교류회 회장

송환아 | 국립안동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노주환 |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류경원 | 충북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김지현 | (사)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

운영위원

박치웅 | 예술의 전당 기획운영본부장

이재홍 | 변호사, Kim&Chang 법무법인

박종철 | 중국강소문화전파유한공사 대표

강세한 | 미술세계 상무이사

김외식 | 아리랑방송 뉴스센터장

문경란 | 주식회사 란스콤 대표

김재완 | 아미뉴스 대표



